2019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총괄 요약본

2020. 8.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차 례

제1장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Ⅰ.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 3

1.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3
2.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 4
3.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6
4. 경영실적 평가방법 ····· 7
5. 2019년도 준정부기관 전체 기관경영실적 평가 결과 ····· 10

제2장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요약

Ⅰ. 2019년도 기금관리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43

1. 공무원연금공단 ····· 71
2. 국민연금공단 ····· 75
3. 국민체육진흥공단 ····· 79

4. 근로복지공단 ····· 83
5. 기술보증기금 ····· 87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91
7. 신용보증기금 ····· 95
8. 예금보험공사 ····· 99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03
10. 한국무역보험공사 ····· 107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11
12. 한국자산관리공사 ····· 115
13. 한국주택금융공사 ····· 119

Ⅱ. 2019년도 위탁집행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125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43
2. 국립공원공단 ····· 147
3. 국민건강보험공단 ····· 152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57
5. 도로교통공단 ····· 162
6. 사회보장정보원 ····· 166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71
8. 우체국물류지원단 ····· 176
9. 축산물품질평가원 ····· 181
10. 한국가스안전공사 ····· 185
11. 한국관광공사 ····· 189
12. 한국교통안전공단 ····· 194

13. 한국국제협력단 ····· 198
14. 한국국토정보공사 ····· 203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8
16. 한국농어촌공사 ····· 213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18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23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28
20. 한국산업단지공단 ····· 233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38
22. 한국산업인력공단 ····· 242
23. 한국석유관리원 ····· 247
24. 한국소비자원 ····· 251
2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255
26. 한국시설안전공단 ····· 259
27. 한국에너지공단 ····· 263
28. 한국연구재단 ····· 268
29. 한국인터넷진흥원 ····· 274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79
31. 한국장학재단 ····· 284
32. 한국전기안전공사 ····· 289
33. 한국전력거래소 ····· 293
34. 한국정보화진흥원 ····· 298
35. 한국철도시설공단 ····· 304
3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309
37. 한국환경공단 ····· 313

Ⅲ. 2019년도 강소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321

1. 국립생태원 ····· 346
2. 국제방송교류재단 ····· 350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354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359
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363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368
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373
8. 독립기념관 ····· 378
9. 시청자미디어재단 ····· 382
10. 아시아문화원 ····· 386
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390
12. 우체국금융개발원 ····· 395
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400
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05
15. 창업진흥원 ····· 410
1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415
17. 한국고용정보원 ····· 420
18. 한국과학창의재단 ····· 425
19. 한국광해관리공단 ····· 429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34
2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439
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444
23. 한국디자인진흥원 ····· 449
2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454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59
26. 한국보육진흥원 ····· 464
2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468
2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472
2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477
30. 한국수산자원공단 ····· 482
3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487
32. 한국언론진흥재단 ····· 492
3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496
3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501
35. 한국임업진흥원 ····· 506
36. 한국재정정보원 ····· 511
3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516
3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520
39. 한국콘텐츠진흥원 ····· 525
4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530
4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535
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40
4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545

제 1 장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Ⅰ.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1.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지표 및 기본적인 평가방법(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18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였고, 2019년 11월에 이를 수정하였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6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였다.

○ 2020년 3월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공기업 경영평가단(37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62명)을 구성하였다.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 및 인터넷 공모를 받은 인력풀을 활용하였으며, 각 평가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관리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 경영평가단을 구성한 이후 합동워크숍과 기관설명회 개최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평가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 공기업 경영평가단,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는 2020년 3~6월에 평가대상기관의 2019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공공기관이 작성·제출한(법정기한: 3월 20일)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 및 집체실사를 통해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팀별 논의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

○ 공기업 경영평가단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관리 비계량지표와 주요사업 지표(계량 및 비계량)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범주별로 4~5명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공동평가를 실시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내·외부 전문인력으로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별로 평가하였다.

○ 평가 과정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영평가 포털을 운영하였다. 경영평가 포털을 통해 자료의 제출, 기관의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이 이루어졌다.

〈 경영실적평가 주요 일정 〉

■ 2020년 3월 6일	경영평가단 팀장 워크숍
■ 2020년 3월 7일	경영평가단 위촉 및 1차 워크숍
■ 2020년 3월 11일~3월 18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주무부처 의견 수렴
■ 2020년 3월 18일	경영관리비계량 팀장 워크숍
■ 2020년 3월 11일~3월 22일	서면평가 및 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2020년 4월 8일~4월 29일	화상 실사
■ 2020년 4월 30일~5월 5일	중간 평정 결과 검토회의
■ 2020년 4월 30일~5월 10일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 2020년 5월 11일~5월 15일	중간평가보고서 기관 회람 및 1차 이의제기 접수
■ 2020년 5월 25일~5월 27일	2차 이의제기 접수
■ 2020년 6월 1일~6월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소위 2차 이의제기 검토, 최종 평정
■ 2020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2.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 경영평가단은 총괄반, 경영관리비계량부문(7개팀), 주요사업부문(7개팀)으로 나누어 구성·운영하였다.

○ 평가대상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 유형(기금관리, 위탁집행, 강소형)으로 구분하였다.

가. 총괄반

○ 총괄반은 경영평가단장, 경영관리비계량간사, 주요사업간사로 구성하였으며,

○ 평가 진행 상황 점검, 평가 유형간 평가 등급 조정 등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평가보고서의 총평을 작성하였다.

나. 경영관리비계량 유형

○ 각 평가 유형별 기관규모를 고려하여 경영관리분야 총28명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였고, 팀당 4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전 기관에 걸쳐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혁신과 소통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를 팀당 1인씩 고루 배치하였다.

○ 경영관리비계량 유형에서는 93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범주」의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혁신과 소통 등의 지표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인 기금관리형 10개 기관, 위탁집행형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주요사업 유형

○ 각 평가 유형별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주요사업유형은 총27명의 평가위원을 배정하고, 팀별 기관수 및 평가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팀당 4~5명의 평가위원으로 하였다. 기금관리형은 총1팀 5명, 위탁집행형은 총3팀 12명, 강소형은 전년에 평가대상 기관수에 비해 평가위원이 다소 적었음을 고려하여 1팀이 증가한 총3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 전체 93개 기관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설정된 「주요사업범주」의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평가대상기관 유형별 경영평가팀 구성 현황〉

구분	경영관리비계량	주요사업
단 장	1명	
간 사	2명(경영관리비계량, 주요사업)	
기금관리 (13개 기관)	1팀(4명)	1팀(5명)
위탁집행 (37개 기관)	12명 3팀(팀당4명)	12명 3팀(팀당4명)
강소형기관 (43개 기관)	12명 3팀(팀당4명)	14명 3팀(팀당4~5명)

※ 자문위원은 2019년도 평가단은 운영하지 않음

3.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내부 계량평가팀 소속 회계사 7명과 외부 평가위원 23명으로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관리 계량지표의 평가를 운영하였다.

○ 평가대상 기관은 공기업 2개 유형(공기업1, 공기업2)과 준정부기관 3개 유형(위탁집행, 기금관리, 강소형기관)의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각 평가유형별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3~8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다(공기업1팀은 3명이 10개 기관을, 공기업2팀은 7명이 26개 기관을 2개 팀으로 나누어 평가, 기금관리팀은 3명이 13개 기관을, 위탁집행팀은 8명이 37개 기관을 2개 팀으로 나누어 평가, 강소형은 8명이 43개 기관을 2개 팀으로 나누어 평가, 위원별 평균 3~5개 기관을 평가).

○ 공인회계사와 회계전공 대학교수로 구성하여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범주」의 사회적 가치 구현 실적을 확인하고, 업무효율, 재무예산 운영·성과(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포함) 및 총인건비관리 지표를 평가함과 아울러, 국민소통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경영실적 평가방법

가. 평가의 기본개념

○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혹은 최근 몇 년간의 경영개선 추세와 비교하여 2019년도 경영개선 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범주의 2원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 2019년 평가지표 구성 체계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주요사업별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경영관리 비계량은 경영전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단위 평가지표는 평가 항목에 따라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2019년 평가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를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배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의 세부지표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은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전년도에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으로만 평가하던 내용을 배점의 강화와 더불어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의 세부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주요사업별 성과관리의 적정성은 추진계획 수립, 집행 실적, 성과, 환류 활동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세부평가내용으로 제시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를 제외하고, 이를 별도로 평가하기보다는 주요사업 성과관리 수행의 노력과 성과에 전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주요사업은 계량과 비계량지표를 한 팀에서 공동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계량 평가위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모든 평가위원이 계량과 비계량지표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주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평가지표 내용 및 평가방법

○ 계량 대 비계량지표 가중치

- 준정부기관의 가중치 합계는 총 100점이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비율은 44 : 56이다. 이 중 주요사업의 경우 계량과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기금관리형은 26:24, 위탁집행형과 강소형은 24:31로 구성되었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 경영관리 비계량은 기관이 제시한 보고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 지표에서 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였고,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였으며,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에서 조직·인사 일반, 재무예산 운영·성과(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였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서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관리, 노사관계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였고,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혁신노력 및 성과, 국민소통 등의 세부지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사회적 가치 지표의 경우, 기관의 특성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노력을 평가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 지표별로 기관이 가중치를 설정하여 제시토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

- 재무제표 및 기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업무효율, 재무예산 성과 및 총인건비관리 등을 과거 일정기간 추세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대실적평가 등의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사회적 가치 구현과 국민소통 지표는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확인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

- 주요사업 계량지표도 경영관리 계량지표의 평가방식과 대체로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다만, 선도적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실적 및 수준 등을 반영한 글로벌 실적비교로 평가하였다.

○ 비계량지표

-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 실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비계량지표의 경영실적은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9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또한 사전에 설정한 비계량지표 평가등급 평정기준을 적용한 '절대점수체계'에 근거하여 팀별 공동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5. 2019년도 준정부기관 전체 기관경영실적 평가 결과

가.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

❍ 2019년 준정부기관 평가단은 규모는 총 62명으로 총괄반 3명을 제외하면 총 59명의 평가위원이 위촉되었다. 평가단 구성은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팀장의 경우 평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위원을 선임함으로써 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평가의 일관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 2019년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에도 그 대상 기관의 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93개 기관이다. 기금관리 유형의 13개 평가 대상기관은 변화가 없으나(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명칭 변경) 위탁집행 유형의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소형에서 이동)과 한국시설안전공단(강소형에서 이동) 등 전년도 대비 2개 기관이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강소형으로 이동)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외되어 전년도와 동일한 총 37개 기관이었으며(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명칭 변경), 강소형의 경우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위탁형으로 이동)과 한국시설안전공단(위탁형으로 이동)의 유형이 변화하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제외되었으나,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신규 진입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총 43개 기관이다(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명칭 변경).

❍ 평가단 구성 과정에서도 전공, 지역, 성비를 고려하고 시민단체 등 공공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단의 객관성과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평가윤리의 제고를 위해 평가단 구성 시 상피검증을 엄격히 실시하였으며, 한층 강화된 평가단 윤리지침을 적용하였다. 특히, 기관의 평가위원 면담은

사전고지를 통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 평가위원의 기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문별·팀별 워크숍을 통해 평가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표별 복수의 평가위원 할당으로 심층적·객관적 평가노력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엄중한 상황에서 엄격한 방역지침을 설정하여 준수함과 동시에 실시간 화상 실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 정부지침 위반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하였으며,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공기관 채용, 안전 및 환경 분야 성과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실적은 엄정하게 평가되었다.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사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 적발 내용, 적발 후 후속조치 내용, 이와 관련된 기관의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안전 및 환경 분야의 경우 재해 발생 기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 요컨대 2019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특징으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평가 강화, 주요 정책추진 성과의 평가 반영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지표가 반영되었고, 평가 결과에 반영 되었다.

나. 2019년도 기관평가 결과 종합분석

○ 2019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급별 분포

- 2019년도 기관평가 결과의 등급별 분포는 총 93개 평가 대상 기관 중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A등급 15개, B등급 37개, C등급 27개, D등급 13개, E등급

1개 기관이며, 절대평가(강소형 제외 50개 기관)를 기준으로 하면 A등급 2개, B등급 31개, C등급 14개, D등급 2개, E등급 1개이다. 이 결과는 전년도(2018년도 평가대상 기관수는 93개로 동일)와 비교해 볼 때 상대평가의 경우 A등급, B등급, D등급, E등급은 각각 1개씩 증가하였으며, C등급은 4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급 분포〉

(단위: 개, %)

		등급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 미흡)
종합	위탁집행·기금관리	50개	상대	-	10	21	12	6	1
			절대	-	2	31	14	2	1
	강소형	43개(상대)		-	5	16	15	7	-
	종합 합계	93 (100%)	상대	-	15 (16.1%)	37 (39.8%)	27 (29.0%)	13 (14.0%)	1 (1.1%)
		50 (100%)	절대	-	2 (4.0%)	31 (62.0%)	14 (28.0%)	2 (4.0%)	1 (2.0%)
경영관리부문	위탁집행·기금관리	50개	상대	-	8	16	18	7	1
			절대	-	-	8	23	17	2
	강소형	43개(상대)		-	7	17	13	5	1
	경영관리 합계	93 (100%)	상대	-	15 (16.1%)	33 (35.5%)	31 (33.3%)	12 (12.9%)	2 (2.2%)
		50 (100%)	절대	-	-	8 (16.0%)	23 (46.0%)	17 (34.0%)	2 (4.0%)
주요사업부문	위탁집행·기금관리	50개	상대	-	9	17	14	9	1
			절대	-	13	30	7	-	-
	강소형	43개(상대)		-	8	18	10	5	2
	주요사업 합계	93 (100%)	상대	-	17 (18.3%)	35 (37.6%)	24 (25.8%)	14 (15.1%)	3 (3.2%)
		50 (100%)	절대	-	13 (26.0%)	30 (60.0%)	7 (14.0%)	-	-

- 2019년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종합등급 외에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 등급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상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C등급 이상 기관은 총 79개(A등급 15개, B등급 33개, C등급 31개), 주요사업 부문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76개(A등급 17개, B등급 35개, C등급 24개)로 나타났다.

〈2016~2019년도 기관종합 등급 분포 비교〉

(단위: 개, %)

기관유형별	연도별	기관수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 미흡)
위탁집행 기금관리	2016	32	3	16	9	3	1
	2017	48	8	18	16	3	3
	2018	50	9	17	18	6	-
	2019	50	10	21	12	6	1
강소형	2016	37	9	17	24	5	2
	2017	40	4	14	17	2	3
	2018	43	5	19	13	6	-
	2019	43	5	16	15	7	-
전 체	2016	69	12 (17.4%)	33 (47.8%)	33 (47.8%)	8 (11.6%)	3 (4.3%)
	2017	88	12 (13.6%)	32 (36.4%)	33 (37.5%)	5 (5.7%)	6 (6.8%)
	2018	93	14 (15.1%)	36 (38.7%)	31 (33.3%)	12 (12.9%)	-
	2019	93	15 (16.1%)	37 (39.8%)	27 (29.0%)	13 (14.0%)	1 (1.1%)

※ 지난년도 결과들과 비교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결과를 기입함.

- 특징적인 것은 50개 강소형 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대비 상승한 기관은 25.6%(11개 기관), 하락한 기관은 20.9%(9개 기관)로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기관이 많았다.

○ 전체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는 기관은 36개 기관이었고 하락한 기관은 28개, 상승한 기관은 29개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상승 하락기관 분포 비교〉

(단위: 개, %)

평가결과	계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
상승	29(31.2%)	18(36.0%)	11(25.6%)
동일	36(38.7%)	13(26.0%)	23(53.5%)
하락	28(30.1%)	19(38.0%)	9(20.9%)
합계	93 (100%)	50(100%)	43(100%)

※ 신규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동일한 것으로 기입함.

○ 2019년도 평가유형 및 평가범주별 득점률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체 평가유형에서 경영관리 계량 부문의 평균 득점률이 91.998점이고, 경영관리 비계량 부문의 평균 득점률은 63.779점, 주요사업 계량 부문의 평균 득점률은 95.302점, 주요사업 비계량 부문의 평균 득점률은 65.484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은 준정부 79.212점, 강소형 75.598점으로 부문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평가유형 및 평가범주별 평가 결과 득점률 비교〉

(단위: %)

평가유형	경영관리			주요사업			전체 (가점 포함)
	비계량	계량	합계	비계량	계량	합계	
기금관리(13개)	70.4	90.5	77.5	69.0	95.7	82.9	78.9
위탁집행(37개)	65.3	93.9	73.3	67.8	95.3	83.3	80.1
준정부(위탁, 기금) 합계	66.6	93.0	74.4	68.1	95.4	83.2	79.2
강소형(43개)	60.5	90.8	69.0	62.4	95.2	80.9	75.6
전체(93개)	63.7	92.0	71.9	65.5	95.3	82.1	77.5

※ 전체 합계는 혁신가점 및 협업가점을 반영한 득점률임.

○ 2019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간 평균 득점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비계량지표에 비해 계량지표의 평균 득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준정부기관이 26.85%p정도, 강소형 기관의 경우는 약 31.55%p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간 득점률 비교〉

(단위: %)

평가유형	비계량지표 평균 득점률	계량지표 평균 득점률	총 평균 득점률 (가점 포함)
기금관리(13개)	69.70	93.10	80.20
위탁집행(37개)	66.55	94.60	78.30
준정부(위탁, 기금) 합계	67.35	94.20	78.80
강소형(43개)	61.45	93.00	74.95
전체(93개)	64.60	93.65	77.00

다. 2019년도 기관평가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결과 분석

○ 2019년도 기관평가 경영관리 범주 내 5개 비계량 지표 관련해서는 지표의 내용과 평가대상 등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 먼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전략 및 리더십' 지표는 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등 세 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었다.

- 사회적 가치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포함되어 사회적 가치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년도에 조직·인사일반, 재무예산 운영·성과, 삶의 질 제고 등으로 평가되었으나, 삶의 질 제고는 조직·인사일반에 통폐합 되어 조직·인사일반,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세부지표로 보다 단순화되었다.

- 전년도에 운영되었던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는 금년도에도 보수 및 복리후생, 노사관계 2개의 비계량 지표가 포함되었다.

- 2018년도와 동일하게 ‘혁신과 소통’ 지표에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가 비계량 지표로 포함되었다.

- 전년도의 경영관리 범주 5개 지표 중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구현’, ‘보수 및 복리후생’, ‘혁신과 소통’ 등 4개 지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가 재구성되었다. 지표 수는 전년도에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를 위해 총 14개 비계량 세부지표가 활용된 반면, 2019년도에는 총 13개의 비계량 세부지표가 활용되었다.

- 2019년의 ‘재무예산운영성과’ 지표는 기금관리형 10개 기관 위탁집행형 6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수 및 복리후생’과 ‘노사관계’ 지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93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표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경영전략 및 리더십(6점), 사회적 가치 구현(15점), 조직·인사·재무관리(3점), 보수 및 복리후생비(5점), 혁신과 소통(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그 비중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여가 평가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9년 평가에서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대상 기관의 경영관리 범주 내 13개 비계량지표의 평균 득점률(%)을 비교해보면, ‘전략기획(69.40)’ ‘경영개선(68.40)’, ‘리더십(71.00)’, ‘일자리 창출(68.6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67.40)’, ‘안전 및 환경(66.20)’,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70.20)’, ‘윤리경영(52.60)’, ‘조직·인사 일반(67.20)’, ‘재무예산운영성과(73.75)’, ‘보수 및 복리후생 (66.20)’, ‘노사관계(68.20)’, ‘혁신노력 및 성과(68.60)’ 지표 순으로 경영관리 비계량 평균 득점률이 나타났다.

❍ 2019년 평가 대상 93개 전체기관의 경영관리 범주 내 12개 비계량지표의 평균 득점률을 비교해보면, ‘전략기획(66.88)’ ‘경영개선(65.27)’, ‘리더십(69.03)’, ‘일자리 창출(66.99)’,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64.41)’, ‘안전 및 환경(63.4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65.91)’, ‘윤리경영(52.15)’, ‘조직·인사일반(63.76)’, ‘보수 및 복리후생 (61.94)’, ‘노사관계(64.62)’, ‘혁신노력 및 성과(65.16)’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63.743을 평균으로 약 5.665의 표준편차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것은 리더십 지표이고 가장 낮은 것은 윤리경영지표로 나타났다. 리더십 지표는 기관장의 의지가 높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고, 윤리경영이 가장 낮은 것은 채용비리 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에 의한 감점조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전략기획’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9.4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3.85)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탁집행형(67.84)과 강소형(63.95)의 평균 득점률이 낮았다(93개 기관 전체: 66.88).

- ‘경영개선’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8.4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5.38)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65.95)이 다소 낮은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5.27, 강소형: 61.63).

- ‘리더십’ 지표는 기관장 및 임원들이 혁신에 대하여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71.0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5.38)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강소형(66.74)이 가장 낮은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9.03, 위탁집행형: 69.46).

- ‘일자리 창출’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8.6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2.31)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강소형(65.12)이 가장 낮은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6.99, 위탁집행형: 67.30).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7.4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3.08)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65.41)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4.41, 강소형: 60.93).

- ‘안전 및 환경’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6.2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3.08)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63.78)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3.44, 강소형: 60.23).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70.20이었고, 유형별로는 위탁집행형(70.54)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기금관리형(69.23)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5.91, 강소형: 60.93).

- ‘윤리경영’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52.6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이 58.46으로 가장 높은 득점률을 보였고, 강소형(51.63)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52.15, 위탁집행형: 50.54).

- ‘조직·인사 일반’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7.2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8.46)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66.76)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3.76, 강소형: 59.77).

- ‘재무예산운영성과’ 지표는 준정부 기관 중 평가 대상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73.75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4.00)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73.33)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73.75).

-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6.2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6.92)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65.95)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1.94, 강소형: 56.98).

- ‘노사관계’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7.2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0.77)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

(67.30)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4.62, 강소형: 60.47).

-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는 강소형을 제외한 50개 공공기관 전체 평균 득점률은 68.60이었고,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9.23)이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위탁집행형(68.38)이 그 다음의 평균 득점률을 보여주었다(93개 기관 전체: 65.16, 강소형: 61.16).

〈2019년 경영관리 범주 비계량지표의 득점률〉

평가유형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비	혁신과 소통	계
준정부 기 관	위탁집행 (37개)	67.748	62.972	66.847	66.486	68.378	65.255
	기금관리 (13개)	74.872	69.487	69.231	68.462	69.231	70.345
	강소형 (43개)	64.109	59.620	59.767	58.372	60.362	60.446
2019년 강소형 제외(50개)		69.600	64.666	67.467	67.000	68.600	66.579
2019년 전체(93개)		67.061	62.333	63.907	63.011	64.194	63.743

❍ 2019년도 경영관리비계량 지표의 득점률을 2018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평균 득점률은 63.743으로서 전년도 전체 기관의 평균 득점률 64.327보다 조금 낮아졌다. 기금관리형의 경우 2019년도 득점은 70.345로 전년도의 69.443 보다 0.902 높아졌으며, 위탁집행형의 경우 2019년도 득점률은 65.255로 전년도의 65.505보다 약간 낮아졌다. 강소형 기관의 경우에도 2019년도 경영관리 비계량 전체 평균 득점률은 60.446으로서 전년도의 61.776 보다 하락하였다.

○ 전년대비 등락을 살펴본다면, 2017년 이후 강소형 제외 기관들의 평균 득점률이 지난 3년간 64~70% 였고, 강소형 기관의 경우도 약 60% 내외 였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전년대비로 볼 때는 기금관리형 기관에서 0.902%p가 상승했고, 위탁집행형은 0.250%p가 하락하였으며, 강소형 기관의 경우는 1.330%p 하락하였다.

〈2019 경영관리 범주 비계량지표의 유형별 득점률 변화〉

평가유형	2017	2018	2019	차이(2019~2018) (%p)
기금관리(13개)	69.448	69.443	70.345	0.902
위탁집행(37개)	64.959	65.505	65.255	-0.250
강소형(43개)	57.440	61.776	60.446	-1.330
준정부(위탁, 기금)	66.175	66.529	66.579	0.050
전체	62.204	64.327	63.743	-0.584

라. 2019년도 경영관리계량 평가 결과 분석

○ 경영관리계량은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재무예산운영·성과, 총인건비관리 그리고 국민소통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2019년도 경영관리 계량의 평가지표의 비중은 유형별로 차별화된 가중치로 평가되었으며, 공기업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에서 20점을, 준정부기관의 경우 위탁집행형은 13점, 기금관리형은 18점을 차지하여, 2018년의 비중보다 각각 1점이 낮아졌다.

○ 평가유형별 및 지표별로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의 수와 하락한 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총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67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57개이다. 2018년도에는 상승한 기관이 81개였고, 하락한 기관은 42개여서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하여 상승기관의 수가 줄어들고, 하락한 기관의 수는 늘

어났다. 공기업은 상승기관의 수(20개)가 하락기관의 수(15개)보다 더 많았고, 준정부기관도 상승기관의 수(47개)가 하락기관의 수(42개)보다 더 많았다.

〈경영관리계량의 평가유형별 및 지표별 득점률 등락 기관수 현황〉

평가 유형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 효율		재무예산 운영·성과		총인건비 관리		국민소통		총 득점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공기업1	3	7	4	6	4	6	1	0	7	3	4	6
공기업2	12	13	16	9	13	12	2	0	10	7	16	9
기금관리	8	5	-	-	9	4	0	0	9	3	8	5
위탁집행	19	18	-	-	1	0	0	0	17	20	18	19
강소형	22	17	-	-	1	0	0	1	19	20	21	18
소 계	64	60	20	15	28	22	3	1	62	53	67	57

※ 5개 기관(공기업2의 주식회사 에스알, 강소형의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이 신규로 평가받았음.

❍ 지표별로 득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전년도의 91.59점에서 92.03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64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60개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 항목의 평균 득점률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95.86점), 일자리 창출(89.53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88.05점) 순이었다.

❍ 업무효율의 전 기관 평균 득점률은 전년도의 60.60점에서 63.59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20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15개이다. 공기업1 유형에서는 전년도의 74.72점에서 8.03점 하락한 66.69점으로 나타났고, 공기업2 유형에서는 62.39점으로 전년도의 54.94점에서 7.4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준정부기관(기금관리, 위탁집행, 강소형 유형)은 2018년도부터 업무효율 지표가 삭제되어 평가받지 않았다.

○ 재무예산운영·성과의 평균 득점률은 전년도의 72.06점에서 74.01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28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22개이다. 유형별 평균 득점률을 살펴보면 공기업1 유형은 76.51점에서 76.04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전 유형에서 득점률이 상승하여 평균적으로 득점률이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공기업2 유형이 전년도 61.98점에서 65.27점으로 3.29점 상승하였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계량관리업무비와 부채감축달성도 지표가 2018년도부터 삭제됨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가 있는 일부 기관만 전 기관 평균 득점률에 영향을 주었다.

○ 총인건비관리의 경우 전년도에 “0”점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은 2019년에 총인건비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여 만점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총인건비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여 3년 연속 “0”점을 받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019년에 신규로 준정부기관에 편입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0”점을 받았다.

○ 국민소통의 평균 득점률은 전년도의 87.58점에서 87.03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62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53개이다. 국민소통 세부항목의 평균 득점률은 국민평가(90.62점), 경영정보 공시(83.64점) 순이었다.

○ 2018년도 평가와 비교하여 2019년도 평가에서는 전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 득점률이 88.76점에서 89.07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국민소통 지표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재무예산운영·성과, 총인건비관리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득점률이 상승하였다. 기관의 유형별로는 공기업1, 강소형의 득점률은 하락하였고 공기업2, 기금관리, 위탁집행형의 득점률은 상승하였다.

〈경영관리계량의 평가유형별 및 지표별 득점률 현황〉

평가유형 (기관수)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 효율	재무예산 운영성과	총인건비 인상률	국민소통	총계
공기업	공기업1 (10개)	89.76 (89.92)	66.69 (74.72)	76.04 (76.51)	100.00 (95.00)	84.87 (87.92)	82.98 (84.92)
	공기업2 (26개)	89.62 (90.27)	62.39 (54.94)	65.27 (61.98)	100.00 (92.00)	89.76 (88.23)	80.92 (78.07)
	공기업 평균 (36개)	89.66 (90.17)	63.59 (60.60)	68.26 (66.11)	100.00 (92.86)	88.40 (88.14)	81.49 (80.03)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3개)	96.55 (95.26)	- (-)	78.07 (76.96)	100.00 (100.00)	90.22 (90.90)	90.51 (90.02)
	위탁집행 (37개)	94.61 (93.44)	- (-)	100.00 (94.78)	97.30 (97.30)	85.91 (86.97)	93.89 (93.35)
	강소형 (43개)	90.43 (90.04)	- (-)	72.22 (74.88)	95.35 (100.00)	85.87 (86.63)	90.82 (91.53)
	준정부기관 평균 (93개)	92.95 (92.12)	- (-)	84.36 (81.54)	96.77 (98.92)	86.50 (87.37)	92.00 (92.04)
전체 (129개)		92.03 (91.59)	63.59 (60.60)	74.01 (72.06)	97.67 (97.27)	87.03 (87.58)	89.07 (88.76)

※ 괄호 속의 득점률은 2018년 득점률임.

마. 2019년도 기관평가 주요사업 평가 결과 분석

❍ 2019년도 주요사업 평가는 2018년도 평가 방식을 개편하여 진행하였다.

- 2019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지표별 평가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사업별 PDCA 평가를 하나의 단일 지표로 평가하였다. 다만 전년도와 달리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을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의 세부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의

세부평가내용이었던 사회적 가치의 고려를 제외하고 이를 PDCA 전반에 걸쳐서 노력과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모든 주요사업에 대해 1.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2.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두 지표로 통합하여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은 2018년도 기관평가에서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로 통합되어 평가한 것으로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이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가중치 배분이 적정한지, 산출 및 결과 지표로 구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②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는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지,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의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전체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비계량지표 비중이 상향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의 종합적 평가가 강화되었다. 주요사업 범주 내에서 전체 계량지표의 비중이 축소(58% → 52%(기금), 56%(위탁 및 강소형)되었고, 비계량지표의 비중이 전년도 42%(기금), 38%(위탁 및 강소형)에서 48%(기금), 44%(위탁 및 강소형)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금관리 유형의 경우 주요사업의 비계량 가중치는 24점, 계량 가중치는 26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위탁집행 및 강소형 유형의 경우 주요사업의 비계량 가중치는 24점, 계량 가중치는 31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 2019년도 주요사업 범주 비계량 평가는 법령개정, 기능조정에 따른 환경변화를 기관의 주요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합하여 평가하였다.

- 법령개정, 기능조정에 따른 기관의 환경변화가 주요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의 전략목표체계가 주요사업과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 2019년도에는 기금관리형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탁집행형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강소형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전년도에 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되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강소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외되었고, 강소형으로 분류되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되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이 강소형 기관에 포함되어 평가하였다.

❍ 2019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계획(Plan), 집행(Do), 성과(Check), 환류(Action)의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더불어 PDCA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워크숍을 통해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유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 개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 비계량 평가 등급은 전년도 대비 개선실적과 당해 연도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적 수준 간의 매트릭스 표 구축으로 비계량 등급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PDCA 평가원칙을 바탕으로 PDCA별 가감점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PDCA 과정에서 실현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적인 등급 결정에 반영하였다.

- 주요사업 실사 및 평정과정에서 전 지표에 대해 복수의 위원이 공동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질문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사전 체크리스트, (사전)팀평정WS, 실사, (중간)팀평정WS, 중간평정회의, (최종)팀평정WS, 이의제기 및 최종 등급 결정과정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원, 언론 지적사항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정리하고 평가위원들이 실사 전에 숙지토록 하였으며, 실사 후의 확인 결과를 중간평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 등급 결정에 반영하였다.

○ 2019년도 주요사업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기여와 혁신성장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평가하였다.

- 2018년도의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2019년도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더해 총 득점에 1점 이내 가점을 반영하였다.

- 혁신성장 가점은 ①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④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 비계량지표의 득점률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득점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주요사업 범주 비계량지표의 득점률을 평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금관리 유형의 득점률이 가장 높고, 강소형 유형의 득점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과 비교하면 기금관리, 위탁집행, 강소형 유형 모두 전년도보다 득점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사업 범주 비계량지표의 득점률〉

(단위: %)

평가유형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2018년	2019년	증감
준정부기관	기금관리(13개)	68.46	68.97	0.51
	위탁집행(37개)	66.04	67.79	1.73
	강소형(43개)	60.08	62.44	2.36
전체 평균		63.62	65.48	1.86

○ 주요사업 계량 평가는 각 사업별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사업별로 1~3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 지표 간소화를 위해 주요사업의 핵심지표 위주로 구성하여 지표수를 기관당 2~6개로 유지하였고 필요한 경우 세부지표를 활용하였다.

- 지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입지표(input)가 아닌 성과지표(outcome) 위주로 설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산출지표(output)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계량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목표부여, 글로벌실적비교, 중장기목표부여, 목표대실적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에는 지표의 과거 5개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목표치를 정하는 목표부여(편차)방식을 적용하고,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만이거나 5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치의 일정비율을 통해 목표치를 산정하는 목표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 변별력 제고를 위해 목표부여(편차)에서 2표준편차를 적용하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중 높은 실적을 기준치로 설정하는 등 도전적 목표설정 및 기준치 합리화를 유도하였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과다한 표준편차 값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표준편차 계산 시 제외하도록 설정하였다.

- 평가에 있어서 극단치 실적 제외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편차의 50% 이하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나, 해당 평가팀이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극단치의 발생원인, 전반적인 지표실적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 글로벌 실적비교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기관의 실적을 글로벌 벤치마킹 기업의 실적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실적 등과 비교하여 기관의 성과를 글로벌 수준과 비교·평가하였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표달성 연고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 목표대실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목표를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실적은 전년도 92.49점 보다 소폭 상승하여 95.30점을 기록하였다.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 현황〉

(단위: %)

평가유형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증감 (2019년 ~ 2018년)
준정부기관	기금관리(13개)	85.59	88.08	94.26	95.70	1.44
	위탁집행(37개)	86.58	90.26	93.06	95.30	2.23
	강소형(43개)	89.21	90.43	91.46	95.19	3.72

- 2019년도 평가결과 계량지표의 득점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금관리 유형과 위탁집행 유형, 강소형 유형 순으로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득점률에 있어서는 강소형 유형, 위탁집행 유형, 기금관리 유형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2019년도 기관평가 혁신성장 가점 결과 분석

❍ 2019년도 기관평가 혁신성장 가점 평가는 혁신 성장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다음 평가항목으로 평가하였다.

〈 2019년 혁신성장 가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점
(1)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1점
(2)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3)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혁신성장 수요창출의 경우, 선도사업에 대학 투자확대, 혁신기술·제품 구매,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고려하였다.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는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기관 생산성·업무효율 향상을 고려하였으며, 데이터 결제 활성화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개방 및 품질관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사업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하였고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의 경우, 인력양성, 소·부·장 및 신산업분야 R&D 활성화 및 사업화, 공공기관의 자원·역량을 활용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였다.

〈 2019년 혁신성장 가점 평가 득점 현황 〉

평가유형	2019년
기금관리	71.5
위탁집행	69.5
강소형	65.1
준정부기관 합계	67.7

- 평가 결과 기금관리 유형 기관 평균 득점률은 71.5이고 위탁집행 유형, 강소형 유형의 평균 득점률이 각각 69.5, 65.1로서 기금관리 유형이 다소 높았다. 전반적으로 혁신성장 가점의 득점률은 기관 종합 득점률 평균보다 다소 낮아 준정부기관들은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도 기금관리/위탁집행형 등급 분포: 상대평가 〉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0)	기술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9)
B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16)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7)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12)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18)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4)
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7)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9)
E	우체국물류지원단 (1)	우체국물류지원단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 가나다 순 배열

〈 2019년도 기금관리/위탁집행형 등급 분포 : 절대평가〉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2)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3)
B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8)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30)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23)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7)
D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	국립공원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7)	(0)
E	우체국물류지원단 (1)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토정보공사 (2)	(0)

※ 가나다 순 배열

〈2019년도 강소형 기관 상대평가 등급 분포〉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8)
B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
D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5)
E	(0)	한국디자인진흥원 (1)	창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 가나다 순 배열

〈2020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단장 최 현 선(명지대)

경영관리 비계량 (29명)	주요사업(비계량/계량) (32명)

간사	노승용 (서울여대)	김병재 (상명대)
기금관리 (9명)	**문두철 (연세대)** 김충원 (삼정회계法) 박장호 (서울대)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硏)	**박수철 (울산대)** 구철회 (청주대) 김동률 (서강대) 박광수 (동의대) 정창수 (경희대)
위탁집행 (24명)	**이석환 (국민대)** 길현종 (한국노동硏) 김상노 (한길회계法) 윤석년 (광주대)	**장기복 (환경정책硏)** 박주영 (문화관광硏) 오세희 (인제대) 신준호 (이앤에프어드바이저)
	권원순 (한국외국어대) 백지건 (대현회계法) 윤영진 (상명대) 이병하 (서울시립대)	**박선규 (성균관대)** 김재일 (단국대) 정 진 (경동대) 홍승진 (광장法)
	홍형득 (강원대) 김준현 (부경대) 문성욱 (서강대) 소순창 (건국대)	**서경란 (IBK경제硏)** 김 철 (사회공공硏) 이인원 (시립대) 전종식 (경남대)
강소형 (26명)	**김태영 (경희대)** 박석희 (가톨릭대) 유성규 (노무法참터) 이수진 (전남대)	**김창완 (중앙대)** 이동규 (동아대) 이상민 (차의과대) 이창준 (한국외대) 전현정 (KCL法)
	이종원 (가톨릭대) 김영미 (상명대) 성시경 (단국대) 안병선 (세무그룹 에이블)	**박형준 (성균관대)** 고용기 (영남대) 양희철 (에이앤엘경영硏) 장항배 (중앙대)
	최대식 (선진노무法) 김선주 (부경대) 김성준 (남서울대) 이윤석 (계명대)	**이덕주 (서울대)** 김정훈 (한국생활가치硏) 백승철 (안동대) 윤지웅 (경희대) 전태준 (서원대)

제 2 장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요약

I 기금관리형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국민체육진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기술보증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 신용보증기금
8. 예금보험공사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한국무역보험공사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3. 한국주택금융공사

Ⅰ. 2019년도 기금관리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경영관리 범주(비계량)

(1) 전략기획

○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외부환경 변화 및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전사경영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설립목적을 재해석하거나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관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정립하였고, 특히 안전의 개념을 핵심가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경영방침에 추가하거나 안전슬로건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의 가치를 경영전략에 반영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약점 또는 위협요인으로 진단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대안 또는 전략과제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비전 및 핵심가치의 내재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해 측정산식 및 구성내용 등을 보완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에 맞춘 사회적가치 지수를 개발하여 경영목표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관의 핵심업무를 국정과제와 연계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경영목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확인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목표 수준이 너무 낮거나 연도별로 롤링되지 않은 점, 기관이 자체적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점,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된 바, 목표의 정합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의 경영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개선, 통합하거나 신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세부 실행과제와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성과지표별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성과지표와 연계하는 등 중장기 경영전략 이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략과제 또는 세부실행과제와 국정과제간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전략과제의 성과지표가 일부 중복되는 등 경영전략체계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국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의 경영전략체계를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들은 비전과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기관의 사업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방향을 제시하거나 공공성과 효율성 등의 기준으로 핵심사업을 도출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인력과 예산 등 중장기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자원수요 분석과 실제 자원배분 계획이 상이하거나 새롭게 도출된 전략과제에 대한 자원배분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 실행력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영개선

○ 대부분의 기관들은 대내외 경영환경 및 미래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 기관의 미래상을 수립하거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경영방향과 연계하여 기관의 기능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은 국민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성장성, 공공성 등의 기준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력, 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자원배분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다만,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신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 비중이 매우 낮아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점, 기능조정 방향을 모두 강화 내지 확대로 설정된 점, 기능조정 방향과 신규사업 도출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미래 경영방향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들은 미래방향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신규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들은 유휴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또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전망 확충,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책임투자 및 일자리 지원, 남북경협 대비 역할 확대, 고령층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근로자의 재활지원 확대 등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역량 강화와 함께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대부분 내부역량 진단과 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점검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실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사한 과제를 통합하지 않고 중복 추진한 점,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닌 외부 지원을 통해 성과가 도출된 점, 추진과제가 일회성에 그쳐 지속성이 부족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의 경영개선 추진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단순반복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자동화를 도입하여 업무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업무처리 및 자료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디지털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및 피드백을 통해 이를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향후 언택트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리더십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정책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경영계약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분석 및 환경분석을 통한 경영계약 개선방향을 발굴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회적가치와 관련한 경영계약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경영계약 과제에 신규 추가하거나 자율혁신과제로 추진하였고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사회적책임 지표를 도입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영계약 과제가 기관의 경영목표 일부에 연계되어 선정된 경우가 있어 경영계약 과제와 경영목표 간의 연계성을 재검토하고 경영계약 과제의 적정성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기관장의 경영계약 과제에 대한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전년도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성과지표 실적이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계량 성과지표의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연도별 목표수준의 도전성 및 목표설정의 근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기관들은 계량 성과지표 선정 시에 대표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경영계약 과제가 비계량 성과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목표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가치체계 분석과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소통과 코칭을 통한 핵심가치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여 핵심가치 공유도가 전년대비 상승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핵심가치 공유도는 지속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유수준 측정방안을 개선·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들은 대부분 전 직원 참여형 업무혁신 활동을 추진하여 혁신문화 조성을 도모하였고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강화하여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들은 주요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내·외부 협업을 통해 대처하였는데 일부 기관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요 현안과제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여 외부환경 분석, 내부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과제 풀을 도출하고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과제를 발굴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운영실적과 환경진단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향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이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 건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이사회 내실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경력을 고려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였고 중요안건 수정의결로 정책결정 견제기능을 수행하였다. 일부 기관들은 실질적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 직원의 이사회 참관을 구체화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사회의 성별 균형성 구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이사회의 성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화상회의와 서면회의로 개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비상임이사의 참석률은 상승하였으나 발언비중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일자리 창출

○ 대부분의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일자리 추진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일자리 추진단, 일자리 창출팀, 일자리 노사협의체 등 다양한 일자리 전담부서 및 기구를 두어 체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 의견과 기업의 소리, 시민참여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관 고유의 업무특성에 맞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금융지원 및 투자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간접적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관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대체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금융지원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기관들이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간접적 일자리 창출 성과는 대부분 실제 창출된 일자리 수라기보다는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증액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한 자체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창출된 일자리 수에 대한 양적 평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기관이 창출된 일자리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들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신규채용 및 퇴직 및 휴직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원 관리를 통해 정현원차 비율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관들은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육아 휴직자 비율을 고려한 정규직 추가채용 확대와 함께 연월차 휴가 및 시간 외 수당의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한 탄력 정원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육아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고용 기간, 급여, 처우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관 안·밖의 지적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심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도 나타나고 있다.

○ 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전환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1, 2단계의 정규직 전환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관들은 전환자들에 대한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 상향, 복리후생 적용확대 및 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등 기관 내 차별 대우 완화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 경영권, 노동권 침해 요소 등 모·자회사 간 불공정 계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제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기관의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사내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일자리 창출 노력도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기관들은 정부의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외부면접 위원의 비중 확대 및 감사인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입사지원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절차별로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더 나아가 일부 기관에서는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자 전원에게 역량분석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구직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상당수 기관의 채용 프로세스 점검과정이 서류나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식별정보의 사전 차단 등 블라인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청년,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내외 환경진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청년의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채용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청년, 고졸자, 지역인재 이외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등 사회형평적 인재에 대해서는 일부기관을 중심으로 적합직무 개발, 채용가점제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채용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조직에서 차별받지 않고 업무에 잘 적응하고 직무에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들은 대부분 여성관리자를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관리자 양성 목표 및 여성인력 채용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인력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부서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십 교육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인원의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여성임원 임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다만,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 및 활용 확대에 따른 조직내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고졸자,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적절하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를 대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입사 이후 4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졸자와 동일한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존 직원과 대비하여 차등화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전년대비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사와 보수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조직문화 차원에서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안전 및 환경

○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경영관리 분야에서 환경보전 개념을 정의하고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추진, 일회용품 줄이기, 온실가스 감축,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환경보전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환경보전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사업추진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환경보전 개념을 다소 추상적이고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전의 범위 및 실천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기관들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예방·대응·복구로 구성된 재난안전 체계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안전조직과 시스템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정·정비하고 국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등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의 범주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자연·사회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 관련 조직 및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 성과를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근로자의 피해방지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무형태 및 사업장별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취약근로자의 정의 및 지원내용이 협소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건설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활동, 현장시정요구 등을 실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안전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추진전략 체계를 마련하고,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 및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따라 내부 제도를 보완하고 정보유출 사전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대부분 교육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다

양한 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의식 제고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니즈와 자체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대학과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물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생산품 및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지역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고유사업을 넘어 주도적으로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물 개방과 함께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저소득 노인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환경분석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대체적으로 공정거래 제도개선과 공정거래 문화확산으로 설정하였다. 공정거래 제도개선을 위해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고, 계약 단계별 공정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협력업체 목소리를 반영한 갑질예방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해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방법을 개선하였고, 선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로 참여기회 확대를 추진하였다. 다만 기관들이 운영 중인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실적이 거의 없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협력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정책과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지원 및 기금투자 확대를 추진하였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한경쟁제도 강화를 시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추진하였는데 우수 중소기업 발굴 다변화를 통해 성과공유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환경분석 및 현장소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에 따른 지원모델을 설정하여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지원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 확대 및 수의계약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직접구매를 확대하여 대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윤리경영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환경분석과 청렴도평가를 바탕으로 준법·윤리경영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윤리경영 전략 및 조직 정비를 통한 윤리경영 추진동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포함한 윤리규범을 강화하였고,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비윤리적 행위 차단을 위한 신고채널을 확대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권익위 종합청렴도와 부패방

지시책평가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등급이 상승하였는데 일부 기관들은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하였다. 기관들은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윤리경영수준 평가와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환경분석을 통해 주요사업과 경영관리의 투명·신뢰성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적극적 공개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실명제 운영, 외부참여 확대 등을 실시하였고 인사, 계약, 예산집행의 제도개선으로 경영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채용 정착 노력을 하였고,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며, 기록물 통합관리 등을 통한 기록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점수가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채용면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환류를 통해 향후 채용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한 윤리경영 지원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예방중심의 감사를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리스크 진단결과에 따른 감사활동으로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이 증가하였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감사를 강화하여 적극행정문화가 확산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제도와 업무절차의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실적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향후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윤리경영 중장기 전략에 연계한 인권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인권경영 실천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조직을 구성하였고, 인권존중 문

화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규범을 정비하였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선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추진하였다. 또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발굴하였고 3대 인권침해 이슈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인권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환류활동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 이수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들에는 이수율 향상 및 미이수자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조직·인사 일반

❍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정책 등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조직운영과 인적자원 운용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관의 전략목표 등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조직과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여러 대내외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력운용상 대비를 하거나 상시적인 조직점검 프로세스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력 운용방향 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운용방향을 설정하면서 양자간의 모호한 관계설정으로 혼선을 초래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기관의 인력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권한을 지속적으로 하향위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전반적인 권한의 하향위임과 더불어 안전, 비리예방, 리스크 관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히려 권한을 상향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 점은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권한위임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출자회사 관리와 관련하여 대부분 기관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출자회사의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출자회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출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출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HRD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마이크로 러닝이나 플립 러닝 등 다양한 교육툴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학습조직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대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리버스 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교육과 안전관련 교육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 평가 및 환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교육의 질보다는 단순히 양으로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등 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들은 기관의 비전과 전략목표 등을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목표, 전략목표 등을 전사KPI, 조직KPI 그리고 개인KPI까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기관들은 조직 성과평가와 개인 성과평가 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연수, 급여 등에 반영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함은 물론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사항을 내규화함으로써 피평가대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개인평가의 이의신청을 특정 등급 이하로만 제한하여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1·2차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동일 조직에서 담당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기관은 팀/개인간 이기주의와 목표 하향설정의 우려 때문에 성과지표를 팀간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자칫 프리 라이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들은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순환근무 원칙하에서 개방형 직위공모제와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전문직위 대상 업무를 신규 개발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본사를 지역에 둔 기관 중 일부 기관은 지역근무 총량제라는 순환원칙을 수립하여 본사와 지사간 합리적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인력 이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채용 외에 직접 내부에서 기금운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렇게 신규로 도입된 제도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PC-OFF제 운영, 육아휴직,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활용 등을 통해 장기간 근로를 해소하여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 기관은 단순히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러한 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지원 통합매뉴얼을 제작하거나 리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구성원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10) 재무예산 운영·성과

○ 기관들은 경영전략 및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타당한 재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환경 분석 및 기관의 적정 재무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관들은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적정 규모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과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위

험을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리스크의 총량을 측정하고 관리하였다. 또한, 미래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stress test 등을 정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부채 및 유동성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재원조달 수지 예측을 고도화하는 등 노력을 추진하였다. 다만, 전염병 등 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하여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한 위기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여 위기상황별 예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에 부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예산집행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시 활용하는 등 국민과 고객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 등의 성과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클린카드 사용, 투명한 정보공개 등에 국한하고 있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기관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한 경비예산 절감, 전직원이 참여하는 예산절감 사례 공모,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체계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별로 절감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며, 전사적으로 예산절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제안시스템과 예산절감 노력을 연계하여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 예산절감을 프로그램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절감 실적이 전년대비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들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

관의 예산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1) 보수 및 복리후생

○ 대부분의 기관들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직무가치와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중장기 보수체계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보수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적·점진적 보수체계 로드맵을 정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중장기 보수체계 로드맵의 실행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다소 미흡하여 이를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에 경영목표, 업무특성 및 조직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상당수 기관들이 직무급 확대 등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외부전문가와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직무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급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직무의 전문성, 결과의 중요도,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직무가치 조사기준과 직무등급 기준 간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들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인 직무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직무급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대내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당수 기관에서 비금전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또는 세대별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직원들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여전히 정규직 전환자 등에 대한 복리후생 항목이나 복리후생비 수준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예산 및 자원 등을 점검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들은 정부의 권고안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충당률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하여 임금피크제 직원의 경력을 고려하여 적합직무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은퇴 후 미래 설계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직원의 니즈를 반영하여 탄력적인 집중근무 유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계별 은퇴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 및 다양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무 및 근태 관점에서 방만한 요소가 없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노사관계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대체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노사간 협의 체계 구축 및 합리적 노사관계 전략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보여주었다. 기관들은 다양한 노사협의체, 노사발전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 인사제도개선 기구 및 근무혁신 기획단(TF) 등 다양한 노사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주요 노사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관들은 노사 간 원활한 쌍방향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기관 내 현안 및 갈등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협력적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의 긴밀한 노사협의가 요구된다.

○ 기금관리형 기관 노사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생겨난 전문직 노조, 공무직 노조, 임금피크제 대상자 노조, 일반직 노조 등 복수노조의 등장이다. 이 같은 동일 기관 내 복수노조의 등장과 상급 소속노조의 차이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요구조건 등 노노 갈등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일부 기관들의 경우 복수노조 체제 아래에서 갈등조정위원회의 상시화 운영으로 노사, 노노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노조교섭을 통한 무분규 단체협약 체결 등 노사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기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노사갈등 대응 시스템 및 매뉴얼도 요구된다.

○ 기금관리형 일부 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노조가 설립되어 기관에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사관계 현안은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예산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기관 내 노사관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공공기관 노사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운영 및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등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들은 대부분 노동존중사회에 걸맞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의 HRD 전략과 연계한 다양한 노사관계 교육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관들 다수가 여전히 체계적인 노사관계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실적 현황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들은 협력적 노사관계 및 노사협의를 통해 무분규 단체협약체결, 일터혁신과 유연근무제 도입, 모성·육아 휴직제, 차별 없는 복지혜택과 고충 처리, 노동

조건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외에도 기관들은 노사 간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공헌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다만, 기관들은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발굴 및 실천 확대 노력도 요구된다.

(13) 혁신노력 및 성과

○ 대부분의 기관들은 국민참여와 상향식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혁신 지침을 토대로 기존 혁신과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 고유사업에 기반을 둔 혁신목표와 전략과제를 선정해 추진하였다. 기관들의 혁신 비전 및 경영전략, 그리고 혁신추진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혁신단 신설과 온라인 토론방 개설 등 국민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별 핵심요구를 반영한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장들의 발로 뛰는 리더십과 혁신리더로서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도 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 기관들은 기관 내 혁신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혁신포럼, 혁신아이디어 공유방, 혁신 경진대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 활동에 대한 인사 가점 확대 및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자발적 혁신네트워크와 혁신 포럼모임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 내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사회적 경제기금(BEF) 조성과 청년창업 허브 조성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들은 다양한 혁신포럼 행사를 통해 우수 혁신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내부 혁신사례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의 혁신사례를 기관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채널을 개선하고 데

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민 수요에 맞는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관들의 정보공개 건수 및 개방 데이터 활용 건수도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비대면 네트워크 공간인 혁신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이 자기 주도적으로 제품·서비스 및 IR 정보를 온라인에 상시 공개하고 외부 민간투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는 U-CONNEC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 활성화와 혁신적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 무료컨설팅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제도',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DB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고객서비스(Customer 360)' 등 유망한 혁신기업 및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도약 및 정책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들의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다만, 기금관리형 기관들 대부분이 지역 혁신도시 내 대표적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단계의 혁신네트워크 사업 및 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새로운 지역거점 혁신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범주(계량)

(1) 종 합

○ 2019년도 경영관리 계량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90.508점으로 전년도의 90.019점보다 0.48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득점 기관과 최저득점 기관의 득점률 차이가 9.014점으로 전년도 7.889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부문별 득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96.552점으로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98.538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은 모든 평가

대상기관(10개)이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74.932점을 기록하여 전년도의 73.705점에 비해 1.227점 상승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전년도와 같이 전 기관이 만점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통 지표는 평균 90.223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 득점률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95.461점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 86.447점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평가대상 총 13개 기관들 중 전년도 대비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627점 상승), 한국주택금융공사(2.544점 상승), 한국원자력환경공단(1.551점 상승) 등 8개 기관이며, 득점률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63점 하락), 예금보험공사(1.294점 하락), 한국무역보험공사(0.855점 하락) 등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득점률이 90점 이상인 기관은 8개로 평균 91.927점을 기록하였으며, 득점률이 90점 미만인 기관은 5개로 평균 88.238점을 기록하며, 상하위 그룹 간의 평균 득점 차이는 3.689점으로 고른 점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지표별

○ 일자리 창출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95.654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100.0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100.0점), 신용보증기금(99.133점)이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평균 득점률보다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6개로, 예금보험공사(85.5점), 근로복지공단(94.133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94.233점)이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93.285점으로 나타났다. 6개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만점을 득하였으며, 평균 득점률보다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6개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64.5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88.5점), 예금보험공사(90.0점)가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매우 높은 평균 득점률(98.538점)을 기록하였다. 8개 기관이 만점을 득하였으며, 평균 득점률보다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기

관은 3개로 국민체육진흥공단(88.433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95.7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중장기 재무관리이행계획 지표는 10개 대상기관 중,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에도 10개 기관이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을 득하였다.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74.932점으로 전년도 73.705점에 비하여 1.227점 상승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0점대 이상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60점대를 기록한 기관은 6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는 전기와 당기 모두 13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기록하였다.

○ 경영정보공시 점검 지표는 6개 기관이 벌점 0점으로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7개 기관이 일부 벌점으로 83.4점의 득점률을 보였다.

○ 국민평가 지표는 88.9점의 평균 득점률을 보였으며,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이 90점대 이상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3. 주요사업 범주(비계량)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3개 기관이 속한 기금관리형은 크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개의 기관이 포함된 공적연금 관리공단과 기금을 운영하며

정부 위탁형 사업을 수행하는 나머지 10개 기관이 포함되는 사업성 기금기관으로 분류된다. 사업성 기금기관들은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성 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일반 사업성 기금으로 세분될 수 있다.

○ 공적연금 관리공단은 주요사업인 가입자 관리사업과 연금급여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복지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에 장애인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편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주요사업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여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기존의 주요사업을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가중치는 14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성과를 보였다.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주요사업을 기관의 설립목적, 비전 및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른 상황 변화를 적절하게 사업편성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업무성격과 수행능력에 비하여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과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환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들은

급격한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사업의 유연한 조정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적절한 분배를 통하여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포괄적으로 분류된 주요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2019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4~7개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기관은 8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은 2점, 목표의 도전성은 8점으로 총 10점이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은 가입자관리와 연금관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기업 지원실적과 지원기업들의 성과 등을 비교 가능하도록 지표들이 설정되었다.

○ 2019년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객관적인 급여지급을 평가하는 세부지표 전자심의율의 연계성과 복지사업운영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신속성 지표와 취약계층 근로자 체당금 회수율 지표의 해당 사업에 대한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평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성과지표들은 외부기관들의 객관적인 평가, 신뢰성 높은 자료들에 의한 평가와 기관 사업들 간의 내부 경쟁 등이 목표의 도전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모든 성과지표들은 목표의 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적정성과 취약계층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지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도소외계층(유치원교육원) 연금수급권

확보노력과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지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와 국유지 개발사업 안전관리 성과지표가 타 기관 성과지표들의 장애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움에도 도전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일부 기관들의 성과지표는 실질적인 성과가 점점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었으며, 중장기 목표부여 방식에 따른 목표들이 이미 달성되어 새로운 목표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지표의 정의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측정 산식과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주요사업 범주(계량)

(1) 종 합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2019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보통 4~7개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기관은 8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기금관리형 전체적으로는 13개 기관의 39개 사업에 대하여 74개의 계량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은 대부분 목표부여(편차) 방식(43개)과 목표대실적 방식(19개)이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실적비교 방식은 가장 적은 1개 지표에서 사용되었다. 기관별 주요사업의 계량 가중치는 26점으로 동일하며, 기관들은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계량 가중치를 사업별로 조정하였다.

○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한 계량평가 실적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2018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9년 13개 기관의 전체목표달성률 평균은 95.70%로 2018년 94.20%보다 1.50%p 증가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체 목표달성률 100%의 최고 성과를 거두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도에도 99.46%의 높은 성과를 얻었던 반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두 2018년 93.62%에서 100%로 평균보다

높은 6.38%p 증가한 성과이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보다 각각 8.93%p(87.07%→96.00%), 7.14%p(89.33%→96.47%) 증가한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 2019년 주요사업의 계량평가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목표달성률 87.93%의 한국자산관리공사, 89.30%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91.12%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개발사업 안전관리 성과와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지표의 낮은 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신규지표인 제도소외계층(유치원교육원) 연금수급권 확보노력과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지표의 낮은 실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글로벌실적비교로 평가하는 국민체력인증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낮은 실적으로 전체 목표달성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5. 혁신성장 가점

(1) 혁신성장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혁신성장 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 등과 그 기업들 생산 제품의 구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챗봇 시스템 등으로 창구 업무의 비대면 처리, 기관 보유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공공데이터로의 활용, 창업과 혁신스타트업 지원 등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는 기관이 계속 수행해오고 있던 업무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처음 시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여전히 뚜렷한 성과로 연결되는 것들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기금을 통한 지원 혹은 정부예산을 통한 지원과 관계없이 상당한 규모의 투입자금을 보다 투입목적(혁신성장 지원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관들에게 요구된다.

○ 기술보증기금의 AI 기반 기술평가로봇(KIBOT) 개발로 기술평가업무 효율화 추

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통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등은 혁신성장 가점으로 인정할만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기금관리형 전체적으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들에 대한 기관들의 직·간접적인 신속한 지원은 혁신성장 사업의 유연한 대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 공무원연금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0	3	2.94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3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4.388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855
주요 사업	1. 연금사업				
	(1) 가입자관리 적정성			10	10.000
	(2) 연금수급권리 확인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노력도			10	10.000
	2. 재해보상사업				
	(1) 재해보상급여지급 적정성			3	3.000
	3. 복지사업				
	(1) 복지사업 운영성과			3	3.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사회적 가치와 기관 존재가치와의 균형을 추구하고, 경영전략의 전략코드를 신설, 성과지표별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였다. 농어촌 유휴자원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과 공공기관 휴양시설 공동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기관은 2019년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387개 직접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전략에 기초해 총 2,201명의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강화 및 채용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핵심직무에 여성 인력을 20% 이상 전략적으로 배치한 노력도 인정된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관리 전담 인원 확대 및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안전예산 확보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전략 체계 및 청렴 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각각 1등급씩 하락하여 3등급과 2등급으로 평가되어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맞춤형 직무발굴을 통한 CDP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근무 총량제' 도입 등 합리적인 순환보직 제도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산별 운용원칙 차별화'를 통해 창단 이래 최대의 기금 운용수익을 실현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기관은 단계적 직무급 확대 모델 설계, 기본연봉 상한 동결,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및 하후상박형 임금인상 확대 등으로 상·하위직 간 보수격차를 위해 지속하여 노력하였다. 제주대, SK 이노베이션 등 66개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혁신네트워크 구축과 혁신성과경진대회, 지식공유시스템 등 혁신성과 확산과 공유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제주 혁신도시 주관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혁신사업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년도 94.868점 대비 0.593점 상승한 95.461점을 기록하였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98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100점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이행실적 지표에서는 부채비율 목표 달성으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87.76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0점으로 2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 점수는 85.5점으로 국민소통 지표는 평점 92.75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0.798%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년 연금사업, 재해보상사업 외에 복지서비스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신속하고 정확한 급여심사업무 수행,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지속가능한 연금급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업 방향을 복지시설관리 중심에서 복지서비스제공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보다 많은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량지표 4개를 선정하여 모든 목표를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설정하여 전체 목표달성률 100%의 높은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해보상급여처리 적정성의 세부지표인 전자심의율은 급여처리의 객관성 확보와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며, 복지사업운영성과 지표들은 적정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량지표 4개를 선정하여 전체 목표달성률 100%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금사업의 '가입자관리 적정성'과 '연금수급권 확인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노력도', 재해보상사업의 '재해보상급여지급 적정성', 복지사업의 '복지사업 운영성과' 지표 모두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특히 복지사업 운영성과 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다르게 2018년에 유일하게 96.08%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2019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전체 계량지표의 가중치 26점 중에 20점이 연금사업에 집중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민연금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925
	(3) 안전 및 환경	5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3.000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796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936
주요 사업	1. 가입자관리사사업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성과			5	4.841
	(2) 가입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			5	4.958
	2. 연금급여관리사업				
	(1) 연금지급의 정확성 향상 성과			4	3.746
	(2)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 노력			1	0.962
	(3) 급여 적기지급 성과			5	4.962
	3. 장애인지원사업				
	(1) 장애인등록심사 신속성 제고			2	1.805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속성 제고			2	1.896
	4. 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				
	(1) 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			2	1.92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전략기획에 있어 SWOT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고도화 전략과 ICT 기반 기금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19년도 경영실적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5년간 적자였던 청풍리조트의 경영개선 노력을 흑자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노동단체 비상임이사의 영입으로 실질적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또한, 기관은 일자리 창출팀을 신설하여 2019년 장애 등급제 개편 관련 일자리 4,796개를 창출하였다. 청년·고졸자, 시간선택제, 이전지역 인재채용 등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전형 운영 노력도 인정된다. 2019년도 창립 이래 최대 여성 임원 비율 28.6%를 달성한 점과 기관장 직속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9년도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획득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위험을 요소별로 분해하는 팩터 모델을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을 통해 역대 최고의 기금 수익률(11.3%)을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직급별 대표자와 노조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단계적인 직무급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직급 간 임금 격차축소와 연공성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적극적인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3급 승진제도 개선('19.7월) 등의 성과를 도출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또한, 혁신 3종 대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적극적 혁신 활동 및 노력도 인정된다.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NPS ICT R&D 센터' 설립과 중소기업과의 공동특허인 'NPS 블록'의 상용화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북혁신네트워크의 핵심적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및 새로운 혁신 사업발굴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91.900점 대비 0.200점 상승한 92.100점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100점으로 만점을 받았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80점을 획득하여 92.5점을 획득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만점을 받았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75.920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75.620점 대비 득점률이 다소 증가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벌점 0점으로 만점을 받았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3.645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6.8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177%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도와 다르게 가입자관리사업과 연금급여관리사업에 장애인지원사업을 추가하여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입자 관리사업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건설일용자 가입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연금급여관리사업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연금소득 증액과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지속가능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 기본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신장장애에 대하여 재심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7개의 성과지표와 2019년에 한해 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을 성과지표로 포함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목표

부여(편차),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중장기목표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성과는 소득신고자 확대 지표를 추가하고 가입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 지표를 추가하여 가입자관리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높였으며, 연금급여관리사업 성과지표들의 목표는 비교적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 장애인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속한 처리보다는 장애인이 체감하는 지원과 만족도도 포함할 수 있는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2019년에 한해 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을 성과지표로만 포함하였다. 이들 계량지표들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96.50%로 작년의 94.54%보다 상승하였다. 가입자관리사업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성과'와 '가입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 지표는 각각 96.82%와 99.16%의 달성률을, 연금급여관리사업의 '연금지급의 정확성 향상 성과',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 노력'과 '급여 적기지급 성과' 지표는 각각 93.65%, 96.20%, 99.24%의 달성률을, 장애인지원사업의 '장애인등록심사 신속성 제고'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속성' 지표는 각각 90.25%와 94.80%의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판정기준 변경과 심사항목 추가 등이 발생하여 장애인등록심사 신속성 제고 지표의 목표달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점수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87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	B^+	1	0.900
	(3) 안전 및 환경	5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2.653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598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63
주요 사업	1. 체육진흥산업				
	(1) 국민체육 참여 향상			8	7.670
	(2) 국민체력인증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5	3.517
	2. 체육기금 건전조성사업				
	(1) 경륜·경정사업 건전성 제고			6	5.938
	(2)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2	1.800
	(3) 체육진흥투표건사업 건전성 제고			3	2.807
	3. 체육과학연구사업				
	(1) 체육과학연구 및 전파			2	1.95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건강, 안전한 환경, 사회통합, 참여의 사회적 가치를 비전에 추가하여 전략을 고도화하였다. 기관의 4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으로 국민 체육활동 참여율 역대 최고인 66.6% 달성, 일자리 22,492개 창출, 기금조성액은 1조 8,288억 원 달성 등 경영성과도 높이 평가된다. 위탁업무 확대, 그리고 혁신·협업사업 발굴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만, 기관이 창출한 민간 일자리의 경우 상대적인 저임금 일자리로서 향후 일자리 질과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목표 달성 및 ISO-45001 표준모델에 기초한 참여형 위험작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권익위 종합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전년 대비 1등급씩 하락하여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획득하여 미흡한 항목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은 안전경영추진단과 정보관리조직을 통합한 정보관리실을 신설하여 유지관리 시설의 국민안전사고 ZERO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기금 전입 시스템 개선, 경륜·경정 장외지점 임대료 현행화 및 부채비율 12.1%p 감축, 중장기자산 수익률 전년 대비 6.85%p 상승, 기금 운용수익 3.67% 달성 등도 기관의 긍정적 평가요소로 판단된다.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노사 간 갈등 예방부터 이사장 대화, 외부전문가 중재로 이어지는 기관의 3단계 갈등관리체계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체계적인 노·사, 노·노 간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응 매뉴얼화도 요구된다. 기관의 주요 혁신성과로서는 장애인 무료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규도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 ‘전방위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체육활동 안전사각지대 해소, 대국민 체력인증 서비스 확대 노력 등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년도 87.037점 대비 0.691점 상승하여 87.728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88.433점으로 기금관리형 기관 중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95.9점의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에서는 부채비율을 목표 수준 미만으로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전체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71.962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는 경영정보 공시 점검에서 벌점 3.0점으로 83.4점의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나, 국민평가 지표에서 92.9점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49%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8년과 동일하게 체육진흥사업, 체육기금 건전조성사업, 체육과학연구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체육진흥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국민체력관리를 위해 체력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국가체육시설 안전사고 Zero'를 실현하는 등 국민이 즐거워하는 체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소액·책임·실명 3대 건전가치 정립·시행으로 기관이 운영하는 사행산업 전 종목의 정부 건전화평가 최고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경륜훈련원을 전국체육대회 사이클 경기장으로 지자체에 개방·공유하여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행정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다소 미흡한 스포츠산업 육성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장기목표부여, 글로벌실적비교, 목표부여, 목표대실적, 목표

부여(편차) 등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지표의 도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민체육 참여 향상은 국민들의 설문조사로 평가되므로 지표의 적정성과 도전성 모두 높은 지표이지만 국민체력인증 활성화는 글로벌실적비교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서로 경쟁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목표의 도전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체육과학연구 및 전파 지표에는 기관의 지원 노력 평가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장기목표부여, 글로벌실적비교, 목표부여,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등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지표의 도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계량지표들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91.12%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체육진흥사업의 '국민체육 참여 향상'과 '국민체력인증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각각 95.88%와 70.34%의 달성도를, 체육기금 건전조성 사업의 '경륜·경정사업 건전성 제고',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건전성 제고' 지표는 각각 98.97%, 90.00%, 93.57%의 달성도를, 체육과학연구사업의 '체육과학연구 및 전파' 지표는 97.90%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체력인증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2%p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70.34%의 낮은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국민체력인증 활성화 지표는 적정성과 글로벌실적비교 대상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건전성 제고는 기관 사업들끼리도 경쟁해야 하므로 3가지 사업 모두 10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지표들이다.

4. 근로복지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2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645
	(3) 안전 및 환경	5	A^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474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53
주요 사업	1.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1)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			5	5.000
	2.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1) 산재보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 성과			7	7.000
	(2)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6	6.000
	3.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1)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4	3.923
	4. 복지연금사업				
	(1)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4	3.095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설립목적을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해노동자 사회통합 실현,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로 재해석하고 재해석된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기존 가치체계를 진단하고 비전 및 핵심가치의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가치체계 재정립의 체계성을 확보하였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12대 전략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개선하였는데 국정과제-경영목표-전략과제의 KPI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략과제 설정 시에 실행과제를 포괄하여 일관성 있게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재활공학 분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다만 동반성장 평가등급은 ‘보통’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여 동반성장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노사실무 협의체를 신설하여 실무교섭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주요 혁신의 사례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소상공인 보호 확대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능형 재활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의 재활서비스 제공, QR코드 활용을 통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처리로 국민편익 향상, 산재판례개방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대부분 고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 차원에서의 새로운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전년도 87.061점 대비 0.614점 하락한 86.447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기관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전년도에 이어 100점을 획득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지표 94.1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64.5점으로 전년보다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69.48점으로 전년도 66.84점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2.6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83.4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나,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전년도 90.1점에 비해 상승한 91.9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638%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산재보험 요양·보상사업, 재활사업,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복지연금사업의 5개 주요사업에서 2019년에는 재활사업과 산재보험 요양·보상사업을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으로 통합하여 4개의 주요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기관은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단체 일반시민의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보험가입 사업장을 증가시켰으며 산재보험 요율제도 개편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산재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산재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크게 높이는 등 동반성장·상생이라는 시대정신과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4개 주요사업에 대해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취약사업장 산재보험 가입확대 성과 지표는 최근 실적이 점점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대체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지표는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근로자 체당금 회수율 지표는 사업자에게 체당금을 회수하는 것과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와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4개 주요사업에 대해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들 계량지표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96.22%로 전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 업무 사업의 '취약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 지표와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의 '산재보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 성과'과 '산재요양종결자 직업 복귀율' 지표는 모두 100%의 목표달성을 이루었으나,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의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지표와 복지연금사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지표는 각각 98.08%와 77.38%의 달성도를 보였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지표는 가입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및 퇴직연금 시장 성장률 둔화로 저조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5. 기술보증기금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A^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6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3.000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44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776
주요 사업	1. 기술금융지원사업				
	(1) 기술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 성과			8	8.000
	(2) 혁신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기업 지원확대			6	6.000
	(3) 사회적 가치 실현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2	2.000
	(4)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1	0.880
	2. 기술평가사업				
	(1) IP 및 R&D 평가를 통한 특허사업화 촉진 성과			6	5.807
	3. 구상권관리사업				
	(1)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강화			3	3.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SWOT분석을 바탕으로 16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관의 미션, 비전과 논리적, 정합적으로 연계하였다. 다만 중장기 경영목표는 6개인 반면에 전략목표는 4개로 다소 매칭이 되지 않아 목표와 수단의 관계로서는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총 79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별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소통 노력으로 노사합의 도출 및 각 용역 업체별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단계적 전환을 완료하였다. 특히 자회사 전환자들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 수준을 보다 높이고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상황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재정건전성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경영지표 개선회의 및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용배수를 관리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통합위험관리체계 지표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계량·비계량 요소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혁신성장 종합지원, 국민참여·윤리경영 강화 등 3대 혁신목표 아래 8대 혁신과제 및 25개 실행과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으로 2025년까지 고성장기업 지원비율 10%, 일자리 창출 10만명 등 혁신목표를 구체화하고, 소통·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니즈를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신설한 노력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전년도 88.705점 대비 0.639점 상승한 89.344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에서 95.533점으로 다소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와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100점의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부채비율을 목표 수준 미만으로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68.8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70.130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5.0점으로 83.4점을 기록하였으나, 국민평가 지표는 94.2점의 높은 득점율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683%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평가사업, 구상권관리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의 산업위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기술평가사업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상황에 대해 비교적 선제적이고도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다만 소셜벤처 등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수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별 부실채권 관리 운영, 출자전환주식 매각 활성화, 공공정보 수집확대를 통한 구상권 회수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채무상환의지 고취와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재창업자의 맞춤지원 등을 통하여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3개는 목표부여(편차), 3개는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평가사업과 구상권관리사업의 성과지표들은 해당 사업의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대부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IP 및 R&D 평가기업의 매출액 성과지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가치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는 정부정책과 연계되므로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혁신관련 기업 중심의 지원 확대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3개는 목표부여(편차), 3개는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계량지표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율은 98.80%로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기술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 성과', '혁신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지표들은 100%의 목표달성률을,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지표는 88.00%의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기술평가사업의 'IP 및 R&D 평가를 통한 특허사업화 촉진 성과' 지표는 96.78%의 달성도를 보였고, 구상권관리사업의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강화' 지표는 100.00%의 달성도를 보였다.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지표는 가중치는 1점으로 낮지만 다른 지표들에 비하여 낮은 목표달성률은 사고율이 높은 창업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재무취약기업 및 실패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82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0	1	0.885
	(3) 안전 및 환경	3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D^+	3	2.871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4.436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89
주요 사업	1. 가입자관리사업				
	(1)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무결점화			4	3.711
	(2) 제도소외계층(유치원교직원) 연금수급권 확보노력			5	4.009
	(3) 부담금 과오납 해소노력			3	2.774
	2. 급여관리사업				
	(1) 연금소득심사성과			4	4.000
	(2)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4	3.299
	(3) 급여수급권 보장 성과			4	3.610
	(4)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2	1.816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7년 중장기 경영전략을 신규 수립한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매년 보완·개선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가치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에 경영목표-전략방향을 변경하는 등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인 “비전 2027”을 개편하였는데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과 반영이 다소 미흡하여 향후 미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하여 청년, 고졸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인력전망조사, 외부전문가 및 내부 설문조사, 대상자별 직무선정 등의 절차를 통해 사무행정 등의 적합직무 9개를 발굴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적합직무의 내용이 일반 직무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의 특성 및 업무적합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의 범위를 청년 고졸자에만 국한하지 말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부채위험 없는 안정적 연기금이라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전략 방향을 부채감축과 기금증식,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예산운영으로 설정하고 재무전략을 추진한 바, 이를 통해 기금운용 수익률 11.15%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임직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4차산업, 뇌과학 관련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토론방 개설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과 혁신 아이디어 과제를 발굴하여 현업에 적용하였다. 다만 다양한 혁신 네트워크 및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과제 발굴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성과에 대한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년도 93.442점 대비 0.62점 하락한 92.822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94.233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88.5점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다소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부채비율을 목표 수준 미만으로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88.720점을 기록하며 기금관리형에서 가장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3.0점으로 83.4점을, 국민평가 지표는 85.517점의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798%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8년에 이어 가입자관리사업, 급여관리사업과 복지사업을 2019년에도 추진하였다. 복지사업에 대한 계량성과지표가 아직 설정되지 않아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조정이 진행될 때는 기관의 업무추진 성과와 목표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적정급여 산정 및 폐교 체납기관관리 강화, 제도소외계층(유치원교직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노력, 연금수급자의 소득심사 및 과세정확성 제고, 연금급여 및 수급자 관리업무 개선 및 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또한 퇴직교직원 사회참여 확대, 고객 중심 복지 및 대여서비스 개선, 교직원 권익 보호, 지역사회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업(業)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였다. 다만 폐교기관 증가 대응 방안과 고액 연금수령액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사학연금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복지사업의 확대 추진,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복지사업까지)에 대하여 7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도소외계층인 유치원교직원의 연급수급권 확보노력을 신규지표로 도입한 것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개 주요사업(복지사업 포함)에 대하여 7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들 전체의 목표달성률은 89.30%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가입자관리사업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무결점화', '제도소외계층(유치원교육원) 연금수급권 확보노력', '부담금 과오납 해소 노력'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92.78%, 80.18%, 92.47%, 급여관리사업의 '연금소득심사 성과',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급여수급권 보장 성과',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100.00%, 82.48%, 90.25%, 90.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소외계층 연금수급권 확보노력 지표는 장기근무가 쉽지 않은 유치원 교직원의 직업 특성이,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지표는 일부 사립대학의 갑작스런 폐교 결정이 기관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이 낮은 목표달성률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지사업의 계량성과지표는 2020년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7. 신용보증기금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	3	2.97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438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935
주요 사업	1. 신용보증사업				
	(1)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7	7.000
	(2) 기업가치평가 활성화			5	4.587
	(3) 성장 유망 창업기업 육성			5	5.000
	(4) 리스크관리 강화			1	1.000
	(5) 사회적금융 지원 강화			2	2.000
	2. 구상권 관리사업				
	(1) 부실채권 정리 강화 및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4	4.000
	3. 신용보험사업				
	(1) 창업기업 신용보험인수 활성화			2	2.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재해석하여 비전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안전을 CEO의 경영방침에 추가하여 정부의 핵심정책과 동기화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환경변화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기능을 조정하고, 자본시장, 구조개선 및 신용보험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일자리창출 특화형 보증지원으로 17,422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긍정적이고, 사회형평적 채용기회 확대, 적극적인 여성 발탁승진 등 균등한 기회 제공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성 제고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강화로 무재해·무사고를 실현하고 지역 밀착형 환경보전 활동 등 안전강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외부적발 부패사건 Zero,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성과가 긍정적이다. 다만, 내부청렴도 향상방안 모색과 지속적인 채용전형 공정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권한다. 기관은 부채비율 축소 및 수익률 개선의 성과가 긍정적이고, 기관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및 노사협의체를 활용한 보수체계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직무급 도입 및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이 요구된다. 기관은 노사협의를 통해 업무량을 감축하고 복수노조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및 임금피크제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 성과가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90.817점으로 전년도 90.258점 대비 0.259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99.117% 득점률을 보이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와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100점의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

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부채비율을 목표 수준 미만으로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68.760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68.470점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0점으로 만점을 기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3.495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6.750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604%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사업, 구상권관리사업, 신용보험사업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부실률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채무조정사업을 통해 재기지원을 강화하였고, 악화된 회수환경을 극복하면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잠재고객 발굴 시스템과 신용등급 자동산출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킨 점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사기관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 재기지원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률을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7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4개는 목표부여(편차), 3개는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목표의 도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용보증사업과 구상권관리사업의 지표들 대부분은 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만 기업가치평가 활성화는 기업가치 개념과 평가 산식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며 신용보험사업의 성과지표는 창업기업 외의 다른 중소기업의 보험지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3개 주요사업에 7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4개는 목표부여(편차), 3개는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목표의 도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계량지표들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98.41%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보증사업의 수정된 지표인 '기업가치평가 활성화'만 목표달성률이 91.74%였고, 신용보증사업의 나머지 지표인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성장 유망 창업기업 육성', '리스크관리 강화', '사회적금융 지원 강화'와 구상권리사업의 '부실채권 정리강화 및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지표와 신용보험사업의 '창업기업 신용보험인수 활성화'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모두 1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평가 활성화 지표는 기업가치 개념과 평가 산식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기도 하지만 기업가치평가 대상 기업의 발굴이 점점 쉽지 않은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달성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8. 예금보험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56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3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959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867
주요 사업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1)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2	1.412
	(2)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6	6.000
	2.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1) 예금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8	7.820
	3.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1) 상환기금 회수 성과			2	2.000
	(2)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성과			6	5.850
	(2) 부실채권 정리 성과			2	2.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진단을 거쳐 비전의 효과적인 달성과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기금건전성 강화, 포용적 금융실현, 국민만족도 제고의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와 연계된 성과지표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시설관리 근로자 등 61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사회적 가치 계량 성과 측정모델을 통해 객관적인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남아있으나 AI시스템을 채용과정에 도입하고 감사실 직원을 채용의 전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된다.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책임부서-안전관리실로 이어지는 3중 Defense Line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일부 직원의 일탈로 외부청렴도가 하락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캄보디아의 채권회수를 위해 범국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실관련자 국내송환과 현지소송 승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조사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용재원을 감안하면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공공기관 중 부채감축의 목표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전사적 직무조사와 고도화된 직무평가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이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환류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영관리 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전년도 91.800점 대비 1.294점 하락한 90.506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에서 전년도에도 87.933점으로 낮았으나 85.500점으로 더 낮아졌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90점을 기록하고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100점을 기록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부채규모와 부채잔존비율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79.180점으로 평균 이상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0점을 받아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86.745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3.350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1.592%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사업,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사업,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예보기금의 안정적 조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성 예금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업권별 잠재 리스크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캄코시티 사업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악성자산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상당한 회수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시화하는 예보법을 개정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6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부여(편차) 방식,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의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지표와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지표는 해당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지표 역시 금융사고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기관의 노력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6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목표대실적 방식, 목표부여(편차) 방식,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들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96.47%로 지난해보다 상승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사업의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정성 제고 성과'와 '취약부도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70.60%와 100.00%,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사업의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97.75%, 자금지원 사후관리사업의 '상환기금 회수 성과',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성과'와 '부실채권 정리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100.00%, 97.50%, 100.00%를 보였다.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정성 제고 성과 지표는 대내외 금융 불안 확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여 보호예금 잔액이 증가하여 높은 운용수익률과 4년 연속 보험사고 미발생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률이 미국예금보험공사 수준보다 적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	3	2.87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	0.972
	(3) 안전 및 환경	3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4.129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692
주요 사업	1.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1) 혁신성장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도			6	6.000
	(2)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3	3.000
	(3) 일자리 성과 창출			8	8.000
	2.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1)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5	5.000
	3. 현장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1) 중소기업 인력 프로그램 지원성과			4	4.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혁신성장, 공정경제, 융합 및 디지털 플랫폼을 미래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공정경제를 비전에 반영하여 재정립하고 경영전략을 개편하였다. 기관은 2019년에 국내 최초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으며, 입사지원자 전원에게 AI를 활용한 역량분석 결과를 피드백 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기관은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통해 업종별 안전진단모듈 개발 및 안전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참여업체들의 사망사고 및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지역혁신을 위한 협업모델 사업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우수 창업기업을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형별 맞춤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4대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지역별로 특화된 현장조직 확대를 통해 기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투자채권(ESG채권)을 발행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고객 서비스(Customer 360) 혁신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영관리 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년도 86.979점 대비 5.627점 상승한 92.606점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 득점률은 95.867점으로 전년도 80.948점 대비 14.919점이 상승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득점률은

97.2점으로 전년도 80점 대비 17.2점이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100점을 기록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부채비율을 달성하며 100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전년도 73.046점 대비 9.534점 증가한 82.580점으로 평가되었다. 경영정보공시점검 벌점 6.6점, 고객만족도 점수 87.197점, 사회적가치 기여도 점수 69.430점으로 국민소통 지표의 득점률은 84.600점으로 전년도 86.411점 대비 증가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274%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8년과 동일하게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현장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혁신성장 유망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통한 정책성과 창출과 사회적 금융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일본수출규제 피해·위기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과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 지원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으로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수출활성화, 국가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해외거점 활용 수출지원 등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한 5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전체 목표달성률 100%의 높은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혁신성장 기업생태 구축 노력도 지표는 혁신성장 창업기업과 선도기업, 재창업기업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평가하므로, 정책자금 리스크관리는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평가하므로, 일자리 성과

창출은 정책자금 지원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하므로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성과지표들의 목표는 정책방향과 연계된 것들이 많아서 기관의 적극적인 수행 노력이 투입되어야 달성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한 5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계량지표들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10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사업의 '혁신성장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도',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일자리 성과 창출' 지표,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 지표와 현장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중소기업 인력 프로그램 지원 성과' 지표 모두 10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특히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지표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으며 2018년의 65.35%에서 가장 크게 목표달성률이 증가하였다.

10. 한국무역보험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83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	1	0.900
	(3) 안전 및 환경	3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2.955
	(5) 윤리경영	3	B^+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446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945
주요 사업	1.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1) 수출 확대 기여도			9	9.000
	2.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1) 총괄 해외 플젝트 금융 창출 성과			9	9.000
	3.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1) 수출기반 확대 성과			4	3.768
	(2) 국외채권 회수 성과			4	2.512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기관의 역할을 도출하여 전사 전략체계 실행과제에 반영하였고 성과측정을 위한 KPI를 설정하여 전략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다만 서로 다른 전략과제에 대한 성과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KPI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권익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1등급씩 상승하여 1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외부청렴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2018년 이후 운영 실적이 미흡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주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시나리오별로 수립하고 무역환경 악화 속에서 관련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Agile조직을 운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위험을 인수리스크, 재무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통합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였으며, Stress Test를 정교화하고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개선하는 등 미래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소조선사의 손익정산금에 따른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율이 전년대비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2019년 복수노조 체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합리적 임단협 추진을 통해 단체협약 개정 조항 확대,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무분규 임금 인상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노사소통지수, 노사협력지수, 고충처리만족도 등 노사관계 지표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의 원인분석과 제고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득점률은 89.361점으로 전년도 90.217점 대비 0.856점

하락하였다.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득점률은 98.5점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중 가장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사고율을 목표 수준 미만으로 달성하여 100점을 기록하였고,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 득점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68.923점을 기록하였으나 가장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경영정보공시는 무벌점을 달성하여 100점을,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4.5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7.25점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0.653%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0.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수출성장동력 지원사업,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의 3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수출 全단계 지원강화를 통하여 中企지원 실적을 증가시켰고, 신흥시장 개척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신산업 해외프로젝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였고 국외채권의 유형별 차별화된 회수전략을 실행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2019년 무역보험의 실질손해율은 132%에 이르고 있어 보험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4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목표부여(편차)와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출성장동력 지원사업의 신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무역보험 분야의 지원 중복 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괄 해외프로젝트 금융창출 성과는 해외수주 부진 극복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채권회수 성과는 국외채권의 정보접근성 제한 및 국가별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관의 장기간 노력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지표라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4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목표부여(편차)와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계량지표들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93.38%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수출성장동력 지원사업의 '수출확대 기여도' 지표와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의 '총괄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는 100.00%, 무역보험기반 강화사업의 '수출기반 확대 성과'와 '국외채권 회수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94.20%와 62.80%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표들은 작년보다 모두 목표달성률이 증가한 반면에 국외채권회수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외채권의 정보접근성 제한 및 국가별 특수 상황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5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986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67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1	0.834
주요 사업	1.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1)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			7	6.691
	(2) 안전사고 예방지수			7	6.384
	(3)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			8	7.884
	2.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 사업				
	(1)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4	4.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2**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저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방폐물 관리 미래기반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소통 기반 신뢰경영 추진을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의 미래상으로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리,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선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포용적 동반성장, 신뢰받는 기관 등 3대 혁신전략과 19대 과제를 추진한 결과, 혁신지수가 85.8점에서 89.9점으로 향상하였다. 기관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19년에 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미전환된 57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기관은 선제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 사전점검 실시, 재난대응 어플리케이션 자체개발, 지진에 대한 처분시설 영향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다만, 예측 및 감시시스템의 향상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윤리경영 추진조직 및 규범 정비, 윤리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하였다. 기관은 직무가치 기반의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을 위하여 연공성 완화, 직무중심 임금체계 설계 등을 추진하였으며, 임금인상 방식을 100% 정률제에서 50%~70% 정률과 50%~30% 정액 혼합인상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다만, 직무급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노력이 미진하여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규정 정비, 육아휴직제도, 자기계발 휴직제 도입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노사협력지수 및 소통활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90.569점의 득점률을 기록하며, 전년도 89.018점 대비 1.551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100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99.533점을 득점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73.430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69.777점에 비해 3.653점 상승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2점으로 83.400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395%로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8년과 동일하게 중저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사업과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은 기관운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업추진체계를 재검토하였고, 지역주민 참여·소통을 통한 인수처분 재개 환경을 조성하였고, 방폐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도입으로 국민과 현장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진 대응시간 확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생활주변 방폐물 우선 관리와 군부대 방사성 폐기물 실태조사 및 복구방안 등 방폐물 관리영역의 개선이 필요하며, 방폐물 관리사업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대국민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4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부여 방식과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통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를 인수검사 대상과 처분검사 대상으로 구분한 것과 안전사고 예방지수를 사고의 비중에 따라 측정한 기

관의 지표 적정성에 대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국민들의 기관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앞으로도 기관의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4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부여 방식과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통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계량지표들의 전체 목표달성률은 96.00%로 작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 '안전사고 예방지수',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95.59%, 91.20%, 98.55%,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사업의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100.00%로 나타났다. 특히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이 100%의 인수검사 합격률로 인하여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84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5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	3	2.965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445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643
주요 사업	1.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				
	(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5	4.087
	(2) 기업구조조정 지원 성과			6	5.309
	2.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1) 국유지 개발사업 확대 성과			4	3.512
	(2) 국유지 개발사업 안전관리 성과			2	1.600
	(3)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성과			6	5.395
	(4) 체납압류재산 정리 성과			3	3.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제주체의 재기지원 및 공공자산의 가치창출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사법 개정을 통한 제명변경, 설립목적의 고도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변화된 역할과 공사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사업 부문별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영전략과 자원배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투자예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계지원부문과 경영관리부문의 인력운영계획을 좀 더 정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부산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혁신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캠코CS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38명을 성공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관은 기관장과 경영진의 특별 안전점검과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 노력이 긍정적이다. 다만, 협력사 근로자와 기관 내 직원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재무예산 운영성과에서 사업 부문별로 변동성이 큰 투자안을 선정하여 회수가능성과 회수시기를 검토함으로써 회수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전염병 등 예외적 경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시중 금융기관 시장위험 판단지표를 벤치마킹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득점률은 88.311점으로 전년도 90.974점 대비 2.663점으로 다소 하락 폭이 크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94.76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100점,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98.833점을 기록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부채비율을 하반기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증가분을 제외하여 목표 수준 미만으로 달성하여 100점 득점을 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68.89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70.576점에 비해서 1.686점 하락하여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1.5점을 받아 83.4점을 득하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80.900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82.150점으로 기금관리형 중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1.44%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과 공공자산 가치증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은 최우선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권의 직접관리 및 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정리를 유도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포용적 신용회복지원을 도모하였고 시효완성채권, 장기소액연체자와 저신용자 등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재산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였으며 공공개발사업을 다변화하려 노력하였다. 다만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특혜시비, 신규사업 확장에 따른 조직비대화 및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유의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관은 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1개 지표는 목표대실적 나머지는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의 도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와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의 국유지 개발사업 확대 성과와 안전관리 성과, 체납압류재산 정리 성과 지표들의 대표성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지원 성과는 지원기업들의 정상 영업 등의 경영정상화 이행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1개 지표는 목표대실적 나머지는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의 도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계량지표에 대한 전체 목표달성률은 87.93%로 작년보다 조금 감소하였다.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와 '기업구조조정 지원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81.71%와 88.48%,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의 '국유지 개발사업 확대 성과', '국유지 개발사업 안전관리 성과',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성과', '체납압류재산 정리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87.80%, 78.00%, 89.92%, 100.00%를 보였다. 2019년 신설된 국유지 개발사업 안전관리 성과 지표는 신규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국유지 개발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일반재해가 10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13. 한국주택금융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7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3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486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936
주요 사업	1. 유동화사업				
	(1)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			7	7.000
	(2) 주택담보대출 취약차주 지원 노력			3	3.000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1) 무주택 서민 정책보증 지원 실적			5	5.000
	(2) 사회적약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			3	3.000
	(3) 부실채권 정리율			2	2.000
	3. 주택연금보증사업				
	(1)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6	6.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일자리 지원상품 출시, 고령층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다. 또한, 채용 공정성 제고 노력을 통해 공정한 채용·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정현원 차 비율의 지속적 개선, 일자리 창출현황과 실적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실적·녹색제품 구매실적에서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최고등급 획득,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4년 연속 준정부기관 1위 달성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점수가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시설물 개방 확대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HF 공정거래모델 수립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만, 선금지급률과 지급기간 개선을 모색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비윤리적 행위 조기차단을 위한 사전통제 및 사후신고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 전년과 동일한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1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평가되어 내부청렴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적정 인력배분을 위해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조직혁신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합리적인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임시조직과 관련하여 국민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도 87.989점 대비 2.544점 상승한 90.533점의 득점하여 전년대비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95.800점으로 전년도 79.467점보다 많이 상승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와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100점의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핵심자본비율을 목표 수준 미만으로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69.729점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0.902점 상승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0점을,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3.642점을 득하며 국민소통 지표는 96.800의 높은 득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0.916%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1.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유동화사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주택연금보증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하여 서민의 주택금융비용 절감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시장상황을 신속히 반영한 보금자리론 금리 운영 등으로 이용자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유로화 채권 발행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대 ESG채권을 공급하였으며, 리스크관리 추진 전략 수립 및 인프라 강화로 유동화 발행방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디지털 디바이드에 따른 소외계층을 배려한 오프라인 접점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MBS 발행규모 및 발행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3개 지표는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였고,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등의 방법도 활용하여 전체 목표달성률 100%의 높은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 무주택 서민 정책보증 지원 실적과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는 정부정책과 연계된 지표로, 이미 2018년부터 중장기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지표 목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주택담보대출 취약차주 지원 노력 지표는 기관 업무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6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3개 지표는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고,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등의 방법도 활용하였다. 계량지표들 전체 목표달성률은 100.00%로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의 유동화사업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의 '무주택 서민 정책보증 지원 실적', 주택연금보증사업의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지표들은 2018년에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2019년의 목표도 100% 달성하였다.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중장기 목표 세부조정이 적용될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사업의 '사회적약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 지표는 2018년과 비교하여 조금 수정되기는 했지만 68.47%의 목표달성률에서 100%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Ⅱ 위탁집행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립공원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도로교통공단
6. 사회보장정보원
7. 소상공인시장진흥원
8. 우체국물류지원단
9. 축산물품질평가원
10. 한국가스안전공사
11. 한국관광공사
12. 한국교통안전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국토정보공사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한국산업단지공단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한국산업인력공단
23. 한국석유관리원
24. 한국소비자원
2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6. 한국시설안전공단
27. 한국에너지공단
28. 한국연구재단
29. 한국인터넷진흥원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1. 한국장학재단
32. 한국전기안전공사
33. 한국전력거래소
34. 한국정보화진흥원
35. 한국철도시설공단
3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7. 한국환경공단

Ⅱ. 2019년도 위탁집행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경영관리 범주(비계량)

(1) 전략기획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종합적인 환경분석을 통하여 비전과 전략목표, 경영목표, 그리고 핵심가치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미션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자원배분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은 매년 변화하여서는 안되는 비전 및 핵심가치를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내재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기관은 SWOT분석에 있어 전년도와 많이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 달라보이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 있는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핵심가치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이 단순히 얼마나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느냐를 측정하기 보다는 기관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치를 지켜가는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측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기관은 핵심가치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를 구현하기 어려운 경영목표 및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반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내재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간에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가치 측정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일부 기관들은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의 내재화를 내부 구성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국민 또는 외부고객을 위한 홍보용 문구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관들이 있어 기관장들의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중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미래과제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새롭게 추가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존 사업은 어떻게 축소되거나 대체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상위목표를 중심으로 계량성과와 비계량성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기관들은 계량성과지표를 목표로, 비계량성과지표를 수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상위목표를 중심으로 계량/비계량 성과지표를 올바르게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기관들의 경우 18년도와 19년도에 각각 동일한 핵심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매년 다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관리의 일관성과 추세분석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일부기관들의 경우 중장기경영목표와 전략과제, 또는 추진전략, 성과지표간 연계성과 대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논리적 연결 구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하는 의사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며 다년간에 걸친 중장기적 목표의 관점에서 신규 사업 또는 미래과제의 발굴을 통하여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어느 부분에서 자원을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버리는 전략'이 보이지 않아 자원배분전략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력에 대한 양적인 확충 계획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과 자격조건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개선

○ 대부분의 기관은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업무프로세스 혁신은 전년에 추진했던 부분이 지금도 지속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실적을 언급하기 보다는 주요사업 또는 핵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거나 혁신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업적들을 나

열하고 있어 경영효율화 실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혁신활동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은 각각의 혁신으로 인한 성과를 자체지표를 설정하여 측정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인식도, 만족도 등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조사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서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과 기관 본연의 미션에 기초한 노력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JIT, BSC, MBO 등 경영효율성 내지는 효과성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그 프로그램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리더십

○ 모든 기관들은 기관장 재임기간 중 경영계약상의 3년치 성과지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그 목표치 설정의 근거와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어떤 방향을 제시했고 업무를 지시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18년도 기관장이 제시했던 추진의지 및 추진방향과 19년도 의지 및 방향들이 단순히 표현만 다르게 되었을 뿐 새로운 추가적 노력의 산물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의 이사회가 전문성중심으로 운영되고 비상임이사들이 정책제안을 활발하게 하고 제안이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일부 비상임 이사들의 참석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정례화 및 지원조직 구축 등을 통해 이사회 횟수, 이사회 참석률,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및 이사회 발언 비중 등의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4) 일자리 창출

○ 대부분의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꾸준히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자리창출 사업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에 두고 추진되어져야 하므로 18년에 발굴된 사업이 19년도에도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신규로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타당성 분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기관의 경우 18년도에 비해 19년도에 일자리 추진전략이 바뀐 경우 왜 바뀌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보고 타당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사업의 개선을 위해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일자리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해 온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 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추진전략을 두 개의 트랙으로 하여 공공일자리의 경우는 일반 인력증원과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인력증원에 집중하고, 민간 일자리는 직·간접 일자리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보다 정교화된 지표관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핵심 사업이나 조달사업 위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전년에 비해 차별화된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성과분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8년도에 나타난 성과지표(개선효과)와 19년도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지표(개선효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지표들의 추이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풀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고졸자, 장애인, 무기계약직들의 근무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근로환경 및 직장 내 접근성 강화 등에 관한 배려가 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년구직자,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률 뿐 아니라 취업유지율이 더 중요하므로 이를 추후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졸채용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제 신규로 고졸자를 선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채용 과정을 점검,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응시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채용 만족도 조사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한 환류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된 인재에 대한 업무적합성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청년, 고졸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적합업무를 추가로 발굴하고, 채용전형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아직까지 기관별로 사회형평적 채용에 있어 편차를 보이고 있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여성채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여성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여성인력 활용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안전 및 환경

○ 대부분의 기관들은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하며 훈련에 임하게 하는 등 매뉴얼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각 기관 내 공유를 넘어서 유관기관, 협력업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도 협력적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규나 규정 내에서 안전점검 이후 조치실적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안전관리전략 및 계획과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평상시 및 비상시 재난관리체계에 있어 조직별 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훈련의 횟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 내용에 보다 현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체험형 교육 및 부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산업재해 등 근로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유형 분석, 근골격계 질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기관의 특성과 기관 내 부서의 특성에 맞게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점검기간 개선, 보안교육 강화, 망분리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평가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과거의 점수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환경 보전에 있어 환경보전사업전략을 수립하고 LED 조명 교체,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시설 확충, 친환경 자동차 구매 등 에너지 절약

사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전반적으로 기관은 지역의 중소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수출을 위한 상품화에 성공하는 등 단순한 기업지원을 넘어 지원기업에 대한 제품의 품질 관리까지 컨설팅하는 등 다양한 상생과 협업노력을 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력업체, 건설, 제조업 등 현장 등과 협업할 때 이들에게도 안전과 환경, 균등한 기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태를 함께 점검하며 사회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함께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설개방,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교육 및 기술 지원, 지역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필요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협력·위탁업체와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과정의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의무사용대상이 확대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이 정착되도록 관리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불공정계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지적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노력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일부 기관을 이와 관련하여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금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윤리경영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사업과 운영의 투명성제고, 내부견제

시스템 작동성 강화, 인권경영체계 구축·운영,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점이 인정된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권침해 zero, 성희롱, 성폭력 zero, 갑질, 부당지시 zero등의 지표가 달성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성원 당사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해야 측정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신고가 발생한 뒤에 조치실적도 관리되어져야 하고 이에 함께 인권존중문화에 대한 수준진단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명문화하고 블라인드 채용,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등 투명한 채용제도를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갑질 및 성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확대되고 각종 비리 및 비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서 갑질, 비리 및 비위사실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조직문화로 뿌리를 내려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업무별 고유위험평가와 연계한 내부통제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 계획에 따른 위험평가 및 통제수단의 연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권구제체계를 강화하였는데 개선이 완료되지 못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 대부분의 기관들은 조직 규모와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간관리자 등 구성원의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다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원수와 교육비용은 늘어났지만 직무교육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수요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도모하고 일과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만 지역과의 상생의 관점에서 금요일 조기 퇴근제 등은 혁신도시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에 가족이 있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실제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인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제도 운영상의 적절한 균형 등 세심한 조치를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은 신규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저성과자에 대한 코칭과 성과 향상 지원 방안 시행,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저성과자에 대한 코칭과 성과향상지원에서 저성과자로 판단된 시점 이후가 아닌 이전시점에서 상관과 꾸준히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성과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들은 미흡하여 이를 위한 제도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부서단위의 성과관리에서도 단순히 평가점수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부서단위에서의 자체성과평가에 기초한 자체피드백이 가능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단위의 핵심성과지표(KPI)별로 핵심활동(Key Activities, Programs)들이 연계되고 이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이 연계된 프로그램의 확대 및 축소, 더 나아가 필요시 현장중심의 조직개편, 부서간 협업까지도 유도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 작동하는 고도화된 성과관리시스템을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도를 하나의 단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수용도 지표는 설문조사결과이므로 결과와 과정에 대한 수용도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개방형 및 전문 직위제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간에도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수용도를 측정할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스마트 워크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용도 또한 구분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10) 보수·복리후생

○ 대부분의 기관들이 연공급 개선을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기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무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함께 포함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은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해 근무 및 주거환경 개선, 담보방법개선 및 사내대부이율 인하, 남성 육아휴직 연수확대 등 직원의 복리후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온점이 인정된다. 다만,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 직원 의견수렴 과정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확대와 함께 외부 피드백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성과측정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은 2019년 임금피크제 운영에 있어 향후 신규채용인건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 임금 조정률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지침을 따른 점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신규직무를 개발하고, 평가·보상체계를 안정화 하는 등 임금피크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향후 임금피크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도 적용 근로자의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및 관련 전직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업과 관련한 데이터가 성과지표로 관리되는 단계로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11) 노사관계

○ 대부분의 기관은 노사간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다양한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과 직무급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장착을 위한 과정에서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간 갈등을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내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노사가 협력하여 더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기관들은 노사관계만족도나 갈등해결지수 등 노사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을 통하여 노사관리노력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기관은 단순한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넘어 노사 동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12) 혁신노력 및 성과

○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3대 기본방향과 8대 혁신과제를 기반으로 대내외 환경 분석,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기관은 혁신의 개선효과를 일반적인 고유사업의 성과와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어 혁신과제들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혁신의 효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효과를 성과로 내세운 경우도 있어서 향후 보다 직접적인 혁신프로그램이나 과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관리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발굴되고 추진된 혁신과제들을 총 개수로만 나열하기 보다는 과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되는 혁신을 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 협업 및 성과공유를 위해 공공기관 협의체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기관은 시민참여혁신단의 규모가 다소 적은 규모로 운영되어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국민들을 대상

으로 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 사업 및 공공혁신에 대한 관심도,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띤 시민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기관장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강조하며 각종 워크숍 연찬회, 토론회, 교육 등을 통하여 혁신공감대 형성 및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기관은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혁신추진인력 및 예산에 대한 지원, 혁신추진과 관련된 장애요인 극복노력 등에 있어 자체적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혁신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비공식적 조직(예컨대 CoP, 혁신주니어보드 등)들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활동과 모니터링 실적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참여혁신단의 운영도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혁신아이디어들을 수렴하고 실제 반영되는 실적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혁신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발굴 및 과제설정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해 상생에 기여하는 지역혁신을 이룩해 내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발굴된 과제들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혁신과 관련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타기관의 지역혁신과제를 벤치마킹하고 거시적 지역혁신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범주(계량)

(1) 종 합

○ 위탁집행유형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2019년도에 총 37개 기관이 평가를 받

았다. 2019년도에 위탁집행유형 경영관리계량 평가 결과 평균 득점률은 93.892점으로 2018년도 유형 평균 득점률 93.496점에서 0.396점 상승하였다.

○ 2019년도에 2018년보다 평균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18개였으며 평균 득점률이 하락한 기관은 19개였다.

- 32개의 기관이 2년 연속으로 9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 90점 대에서 2019년에 80점 대로 득점률이 하락한 기관은 없었다.

○ 2019년도 경영관리계량 최고득점은 97.975점이었고 최저득점은 61.708로 최고/최저 득점 범위는 36.267점으로 2018년도의 득점 범위 31.539점(최고 98.831점, 최저 67.292점)에 비하여 기관별 득점률 편차가 증가하였다.

- 득점률 범위별로 90점 대 기관이 35개, 80점 대 1개, 60점 대 1개이며, 95점 이상의 고득점 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이러한 평균 득점률 상승 원인으로 2019년 사회적 가치 구현지표와 혁신과 소통지표가 2018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위탁집행유형 중 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 지표별

○ 주요 지표별 특징과 평균 득점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항목의 2019년도 전체 평균 득점률은 94.611점으로 2018년도 93.573점에 비해 1.038점 상승하였다.

- 항목별 2019년도 평균 득점률은 일자리 창출 93.360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88.114점 그리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이 98.028점으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가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중장기 재무계획 이행실적은 6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2019년도 평균 득점률은 100점으로 2018년도 94.783점에 비해 5.217점 상승하였다.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도 37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득하였다. 2018년도에도 37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하였다.

○ 혁신과 소통 지표는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를 합산한 지표로 구성되며, 2019년도 평균 득점률은 85.911점으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의 2019년도 평균 득점률은 81.6점으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경영관리 계량지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득점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보다 하락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 결과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지표의 2019년도 평균 득점률은 90.2점으로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3. 주요사업 범주(비계량)

(1)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기관들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핵심 활동과 연계되는 투입·과정지표를 활용하는 가운데 산출·결과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지표구성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요사업별 계량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점과 복합지표로서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지표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기관의 경우 지표 구성의 항목이 주요사업 수행 노력과 성과의 일부만을 담고 있는 경우는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간 가중치 등의 배분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 사회적가치와 정책적 중요도 등 기관의 업무의 비중에 따른 보다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 계량지표의 목표부여 방식에 있어서는 글로벌 실적부여,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β등급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되는 일부 지표는 목표치의 설정 방법을 개선하여 도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목표대실적 혹은 중장기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되는 일부 지표는 목표의 설정이 합리적이나, 이에 따른 도전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계량지표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통계,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더불어 국민의 안전 관련 등 공공기관의 핵심 수행 사업들에 대해서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에 의한 점진적 실적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 실적이 이미 설정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의 경우 사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 수준을 도전적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들이 설립목적 및 비전, 그리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과 국정 방향, 국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적정한 수준의 성과목표를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실행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실행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조직 및 인력운영을 연계하여 적절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의 설정이 일부 수단적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확인되므로, 목표관리의 실효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주요사업의 성과관리체계에 내재화하기 위한 기관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주요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의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관리와의 연계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지표의 사업성과에 대한 대표성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관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 목표 대비 계량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한 지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기관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협업체계에 기초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주요사업의 실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및 환류 활동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관들이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중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각종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활동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한 세부사업의 원인 분석 및 성과 달성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고, 이의 결과로 성과 목

표를 달성하지 못 한 점은 적극적인 개선 및 보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환류활동에서 지적된 주요사업의 근본적 내용을 개선하기보다는 기존 관행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진 기관도 일부 존재하여, 실질적 환류 활동 및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주요사업 범주(계량)

(1) 종합

○ 위탁집행형 기관들은 2019년 주요사업별로 사업성과를 대표하는 계량지표를 최소 3개 내지 최대 7개 정도로 설정하고, 일부 지표의 경우 각각의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사업성과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목표부여와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적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대실적, 중장기목표부여 방식 등의 적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가중치는 전년도 34점에서 31점으로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감소되었다.

○ 2019년 주요사업 계량 평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2018년도와 비교하여 위탁집행형 기관의 평균 득점률이 2.23%p 상승하여 기관의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위탁집행형 기관의 득점률은 평균 95.29%로 전년도의 93.06%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00%의 득점률을 기록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한 99% 이상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5. 혁신성장 가점

(1) 혁신성장

○ 혁신성장 가점 평가는 혁신성장 수요창출,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조직의 신설과 개편 등의 자원배분을 통해 혁신성장의 수요 창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IT 융합기술 기반의 협력적 공공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 효율 개선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특히,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연계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혁신성장 추진 체계 구축과 노력, 성과에 있어서 전년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일부 기관은 혁신기술의 도입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도가 혁신성장에 있어서 기관들이 추진 체계와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면, 이에 기초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0	B^0	3	2.88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0	1	0.800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3.000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933
주요 사업	1. 진료비 심사 사업				
	(1) 적정진료율			7	6.478
	(2)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 성과			3	3.000
	2. 의료의 질 평가 사업				
	(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9	8.624
	3. 건강보험 정책지원 사업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5	5.000
	(2) 비급여 진료비 관리 성과			4	4.000
	4. 국민 안전 관리 사업				
	(1)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1	1.000
	(2) 내방인 안전사고 감축 성과			2	2.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략과제로 기존 12개의 과제를 16개의 과제로 강화 개선한 노력이 인정되나 16개 과제에 대한 개선효과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핵심가치와 경영이념의 내재화 노력과 공유지수 및 인지도 상승은 인정되지만 향후 단순히 인지하고 있는 수준의 관리를 넘어 기관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치를 지켜 가는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략과제별 인적·물적 자원 배분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전략방향성을 설정한 점은 인정되나 과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분배와 인력의 배치 간 연계성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들이 비상임이사들과 다각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성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적극 대응 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총 7,316명의 민간 일자리 창출 성과와 100%가 넘는 정·현원 비율을 유지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강화하였고 안전경영실 설치 등 조직을 개편하고, 안전대상 전 분야에 PDCA 기반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종합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가 등급이 하락하여 전반적인 준법·윤리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은 합리적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 저성과에 대한 책임을 저성과자 개인에게만 묻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부서장과 저성과자가 함께 컨설팅을 받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관은 성과나 능력에 따른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노사협력을 통해 사내카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기관은 혁신성과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국민과 쌍방향 소통 채널 구축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득점률은 96.80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6.138점에 비해 0.662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정부 권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고객센터 직접고용 전환 시기로 인해 88.3%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의료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의 인력 구조 특성 상 목표 실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6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정부 권장 기준을 충족하여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각 세부지표별 권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1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33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의 질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국민안전 관리 등 4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환자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심사를 본격 시행하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재정지출 효율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년도 의료의 질·안전 평가 사업에서 국민 안전 관리를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구분해 안전한

사회·의료환경 조성과 의약품·치료재료의 안전 사용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특히 단독 급여 의약품 수입사 공급중단에 대응해 국내 제조사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등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로 국민 건강을 보호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산출·결과지표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목표 설정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지표구성의 적정성 제고와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실적의 개선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사업의 도전적 추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목표 대 실적 지표의 경우 목표 수준이 실적의 개선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표목표의 도전성 확보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적정진료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관리 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진료비 관리 성과,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내방인 안전사고 감축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7.103%로서 전년도 92.89% 대비 비교적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 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진료비 관리 성과,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내방인 안전사고 감축 성과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적정진료율의 득점률이 92.543%로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 국립공원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0	C	3	2.71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C	1	0.979
	(3) 안전 및 환경	7.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0	3	2.959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605
주요 사업	1. 공원자원 보전·보호사업				
	(1)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9	7.231
	(2)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노력			7	6.925
	2. 탐방문화 개선사업				
	(1) 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확산 노력			5	4.675
	(2) 탐방문화 개선 정책 추진 노력			3	2.744
	3.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1)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7	6.94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8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립공원공단은 명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치체계의 점검과 함께 전략방향과 전략목표를 재수립하고, 명칭변경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안전, 사회적 가치, 적극적 업무추진 등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사업 분야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체계 고도화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목표 및 과제를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전략체계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의 설정, 전략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실행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세부실행과제별 KPI의 명확화와 도전적 목표 설정 등의 보완과 함께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생물종 선별전문가 등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긍정적이나 일자리 창출 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정현원차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 있어 서류전형 검증위원회 구성 등 채용과정 공정성에 관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NCS 기반 채용전형 확대 등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이전지역 인재, 여성 채용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안전산행가이드 양성 등 탐방객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단 3대 안전사고 도출을 통해 근로자 산업재해를 중점 관리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정보보안체계 강화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산행도시락 판매 협업 및 자원봉사 나눔 할인

가맹점 서비스로 지역사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특수드론의 개발과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윤리경영에 있어 부패위험평가 등을 통한 규범 개정, 고위험 분야에 대한 견제시스템 강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한 인권 취약분야 교육 및 구제절차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성희롱 및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등급이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보전 등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를 추진하였으며 지역본부제를 도입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산악안전)제도를 최초 도입하고 전문자격(기술사 등) 취득과정을 개설한 노력이 인정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여 유연근무 사용률이 향상되었으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체근무인력을 채용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직무급 보수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체계를 보수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직무가치 평가 과정에서 직무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이사제 제도 도입 및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 후 운영을 위한 기관은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중장기전략의 실행과제와 혁신전략의 실행과제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와 혁신과제 간의 다차원적 설계 및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립공원공단의 득점률은 93.81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6.186점에 비해 2.368점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가중치 대비 99.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가중치 대비 94.7%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중소기업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등 5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등 2개 지표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667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3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자원 보전·보호 사업, 탐방문화 개선사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공원자원 보전·보호 사업은 생태계 건강지수 1등급 및 지속가능경영지수 S등급 달성, 탐방문화 개선 사업은 국민평가 S등급 유지, 그리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안전사고 발생건수 0.4명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기관의 지표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연계성을 제고 하며 구성되어 있고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것은 바람직한 노력이라 평가되며, 주기적이고 정형화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체계를 통해 대응방안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였다. 하지만 일부 과제 및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경영목표와의 괴리가 일부 존재하고 사업성과의 다소 지엽적인 부분만을 측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어 차후에는 경영평가 결과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로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노력, 대국민 환경보전의식 확산 노력, 탐방문화 개선정책 추진노력,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등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목적 및 방향과 일치하는 산식 구성으로 대표성 및 도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립공원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노력, 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확산 노력, 탐방문화 개선 정책 추진 노력,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1.99%를 기록하였다.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이 득점률 99.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이 득점률 80.3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5	B^+	3	2.78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7.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	3	3.000
	(5) 윤리경영	3.0	B^+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781
주요 사업	1.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1)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비중 확대 성과			5	5.000
	(2) 4 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4	4.000
	2. 보험급여관리 사업				
	(1)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3	2.004
	(2)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4	2.993
	3. 건강검진·증진 사업				
	(1)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검진 사후관리 강화			5	5.000
	4. 장기요양보험 사업				
	(1) 장기요양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성과			8	6.088
	5. 대국민 접점시설 안전관리				
	(1) 안전사고 감소노력			2	2.000
	6.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7.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8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략체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단위 국민참여위원회를 확대하고 소통모니터단을 신설하는 등의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노력을 통해 전략개선 방향인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강화'와 '중장기 관점의 재정관리 확대'를 도출하는 등 중장기 경영목표와 전략체계 개선한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 세부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와 세부실행과제의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KPI의 설정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우리 동네 마을관리소 등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은 긍정적이고 정현원차 관리도 양호하나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 있어 심사위원을 100%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친인척 채용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고 여성인재 활용도 양호하나 이전 지역 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사업안전, 시설안전, 국민안전 등 보다 분명한 체계 속에서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에 관한 현장성과 실행성 높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체계강화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관의 빅데이터 및 의료지도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보험료 감면과 같은 지원책은 대상과 범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윤리규범 재정비, 리스크 중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등 부패방지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 및 실행을 지속한 점도 인정되나 성비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및 조직 혁신의 방향으로 조직평가지표를 개선하였다. 한편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으로 유아휴직 이용이 증가하고 복무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측면에서는 주요 재무지표의 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재무예산의 관리와 자구노력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구성원들의 직무중심 보수체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를 분류하여 역할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직무에 따른 역할 수행 모델로 정의함으로써 직무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노사공동 직원 인권 보호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등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중장기전략의 실행과제와 혁신전략의 실행과제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와 혁신과제의 실행과제 수준에서 시너지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득점률은 96.685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5.557점에 비해 1.128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9.347%를 달성하여 미흡하였으나,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

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그리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또한,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19년 부채비율은 64.359%로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4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고자 기존의 4개 주요사업에서 대국민 접점시설 안전관리 사업을 더 하여 5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은 설립목적, 비전, 경영목표 및 프로세스별 핵심업무를 공공성, SWOT분석 등을 기반으로 성과목표와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실행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실행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민보건확보 및 향상노력이 더욱 중요해짐을 고려할 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기관의 역할과 능력이 더욱 높게 평가된다. 기관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국익에 초석이 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목표와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소득 근로자와 외국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납부능력별 전략적 맞춤 징수, 징수기법 개발로 징수영역을 확장, 제도 및 업무개선 등 공고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한 점,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의료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 적정 관리를 추진한 점,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및 약물이용 안전관리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보장 서비스 범위와 대상자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비중 확대 성과,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검진 사후관리, 장기요양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성과, 안전사고 감소노력의 지표 선정과 산식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평가 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비중 확대 성과,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검진 사후관리 강화, 장기요양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성과, 안전사고 감소노력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87.37%를 기록하였다. 자격 및 부과 징수사업, 건강검진 증진 사업, 대국민 접점시설 안전관리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가 득점률 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B^0	3	2.7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3.00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70
주요 사업	1.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			7	6.659
	2.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1) 수출유망기업 맞춤형서비스 지원 성과			7	6.034
	(2)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			6	6.000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1) 해외투자진출지원 성과			2	2.000
	(2) 해외 취업지원 성과			2	2.000
	4.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				
	(1)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7	7.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비전 및 핵심가치를 공유 및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소통과 핵심가치의 내재화 노력이 우수하다. 국가와 기업의 미래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기관의 통상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관의 미래상 도출 등 노력이 바람직하다. 경영평가를 포함한 기관의 다양한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분석 및 경영개선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상당한 민간일자리 창출실적을 이루었으며, 정현원 차이를 축소하였다. 다만 사전에 정현원의 구체적인 사전예측을 통하여 충분히 줄일 수 있었으므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전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사적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청년채용에서 정규직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체험형 청년 인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직무역량과 조직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청년 적합 직무 발굴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졸제한경쟁채용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고졸채용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안전 및 환경에 있어서 기관은 국내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외무역관이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점도 인정된다. 다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안전업무 전담인력 교육·훈련 체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단별 수출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지역 수출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공정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의 입찰 등을 도입하였다. 다만 지

역사회의 협력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개방과 지역생산품의 구매 노력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대금지급제도를 강화와 사회적약자 기업제품 구입 실적도 적극적인 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경영 확대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소통 및 개방 확대로 투명한 사업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외부진단을 통한 주요 사업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권침해 요인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보호 대상군별 인권침해 요인을 발굴하여 기관장이 주도하여 위험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아직도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수준이 그치고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이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하고 전략목표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국내외 조직개편 실적과 보고서 간 불일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 출자회사가 역대 최고의 가동률을 달성하고, 출자회사 합계 4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바람직하다. 기관은 교육효과성 환류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해외무역관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적응배려 조치를 마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당수가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어, 개방형 직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기관이 신사업 발굴 및 외부협력사업 확대, 기존 진출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기관 최초로 매출액 4,600억 원을 넘어섰고, 목표보다 12.3%p 낮은 부채비율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수립 및 민감도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에서 직무급 도입 시 기관 업무의 특징을 통상·전문직(간부 및 일반 직원)과 무기계약직 보수 체계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연령, 업무 생산성 보수 인상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한 후 보수 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선제적 수요 조사 결과에 입각한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부문의 경우 근로자 이

사회 참관제를 실시하고 본사·해외·지방으로 분산된 조직 특성을 감안한 소통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준수를 위한 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 내 침묵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이 야기하는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 노력과 성과 부문의 경우 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였으며, 빅데이터와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보고서 제공이나 적격 바이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혁신목표와 전략 수립 방안을 고도화하고 IT 관련 인력 충원과 역량을 제고하며, 혁신추진 담당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득점률이 95.923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4.979점에 비해 0.944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채용 지속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국가 유공자 우선 채용 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게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정부의 권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연중 상시 구매비율 점검 및 MRO를 통한 우선구매 유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은 리스부채 및 추경 바우처 예수금으로 부채비율이 일부 상승하였으나 관리목표 174.6%보다 낮은 부채비율 162.3%를 기록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만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의 양과 질을 늘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다양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력과 성과가 다수 인정된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수출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기관이 설정한 목표치를 상당수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다만,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은 중장기적 성과관리가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면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지만, 추진실적을 단편적·분절적으로 제시하거나 전체적인 실적(수출액, 기업수 등)으로만 제시하는 예도 있어 이는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고 난이도 있는 방법을 통해 도전적 목표설정을 추구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지표가 중장기 목표성과의 연계를 통한 주요사업 추진상의 기여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주요사업 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4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 수출유망기업 맞춤형서비스지원성과, 성약바이어 확대실적, 해외투자지원실적, 해외취업지원성과, 외국인투자지원 실적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5.78%를 기록하였다. 성약바이어 확대실적, 해외투자지원실적, 해외취업지원성과, 외국인 투자지원실적 성과가 득점률이 100%로 나타났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이 각각 득점률 95.13%, 86.20%로 낮게 나타났다.

5. 도로교통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97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3.00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761
주요 사업	1. 도로교통 안전사업				
	(1)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실적			8	7.282
	2. 운전면허사업				
	(1) 운전면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제고도			11	10.797
	3. 교통방송사업				
	(1) 교통 · 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 공익성 향상도			7	6.864
	4. 교통안전 교육사업				
	(1)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감소 교육성과			5	5.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도로교통공단은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인정되나 핵심가치를 향후 단순히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는 수준의 관리를 넘어 기관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치를 지켜 가는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AI 안전운전능력평가시험단지 구축을 계획하는 등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효율적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교통안전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문운전면허증을 개발하여 '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행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직원의견도 71건의 건의 중 69건을 반영하는 등 상향식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목표기준 8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채용과 관련하여 전형단계별 감사관 참관 확대 및 3단계 체크리스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용비위 발생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배려정책이 요구된다. 기관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민원인이 많이 찾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였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과 관련한 내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 등의 주요지표들이 하락하여 전반적인 준법·윤리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저성과 부서의 부서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개인차원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코칭과 사전피드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직무기본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외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직무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해 참여와 협력 중심 소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혁신추진을 위해 유기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과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협업을 유도하며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도로교통공단의 득점률은 97.80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0.608점에 비해 7.192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97.541%을 달성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정부 권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의무고용 평가기준인 장애인 고용의무 충족도 부처 평점 산출 방식에 따라 10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제한경쟁채용의 지속적 시행 등의 노력을 통하여 목표 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등 7개의 세부평가항목 모두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2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 안전사업, 운전면허사업, 교통방송사업, 교통안전 교육사업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전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사망자수와 사고건수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가운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교통안전정보 확산 등의 사회적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도로환경에 대한 점검과 발생가능사고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 관점에서 주요사업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운전면허사업의 국민 편익 증진과 교통방송, 안전교육 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계량지표 구성 면에서 산출 및 결과지표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지표구성의 적정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합지표의 산식구성 문제 등 지표산식의 정합성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표도 일부 확인된다. 기관이 목표부여 또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에 의해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는 계량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 점은 실적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도로교통공단은 4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실적, 운전면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제고도, 교통·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공익성 향상도,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 감소 교육 성과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6.590%로서 전년도 95.72%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했던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감소 교육성과가 득점률 100%로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실적이 득점률 91.025%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6. 사회보장정보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3.000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547
주요 사업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1)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5	5.000
	(2)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4	4.000
	(3)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10	8.968
	2. 보건의료정보화 운영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성과			3	2.999
	3. 사회·보육 전자바우처 운영				
	(1)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			9	9.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2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사회보장정보원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기관의 핵심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설립목적 및 미션을 정립하고, 설립 10년의 기관역할을 재조명하여 역할변화 및 가치체계 추진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미래의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기관의 미래역할 재조명 및 기능조정 방향을 설정하여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관장은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명확한 운영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핵심가치 내재화와 업무혁신 노력으로 기관의 KPI 간 연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조직체계의 정비와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중심 사업체계의 대내외 조직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일자리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총 3,480명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장기 창출목표 2,917명 대비 19%나 초과 달성하였다. 다만 기관이 미래지향적인 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 능력·인성중심의 열린 채용을 실시하였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능력 검증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사회형평적 인력의 특화된 채용 확대로 정부기준에 모든 기준이 초과하여 채용하였으나, 고졸자는 1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서 채용하였으나, 청년인턴 5명, 무기직 1명으로 정규직이 2명뿐이어서 정규직의 적극적인 채용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부문에서 기관은 핵심가치와 부서 공통성과지표에 안전가치를 강화하였으며,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한 점은 바람직하다.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의 효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보보안 관리실태가 향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안전부서 간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안

전관리자별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중지요청제 등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사회와 협력사업 추진, 인쇄업체 구매확대, 제한된 지역 원격진료를 위한 가정방문간호모델,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기관은 상생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동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 수치로 보는 성과는 미미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과감한 지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윤리경영 지표에서 인권 강화를 위하여 기관은 윤리·경영체계의 정립, 전사적 윤리인권경영의 추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윤리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관련 조직의 연계·협력 및 협업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신 경영전략 이행을 위한 전략목표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직·인력분야 운영방향을 도출하여 국민안전 및 정보안전에 필요한 조직을 신설·개편한 것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내부역량 분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교육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시간제 휴가 오용방지를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며, 유연근무제 이용자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권한 위임을 보다 확대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성과관리제도의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전문직위제에 기반을 둔 직무급 체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직무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무기직 전환자 승급을 내·외부 공개 채용을 통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보수 정책의 방향을 연령, 업무 생산성, 보수 수준 간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립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와 행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부문에서 기관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소통체계 강화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채널을 강화하였으나, 노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

용이 기관 HRD 전략실행에 미흡하며, 디지털 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에도 미흡하다. 혁신 노력과 성과 부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 개방 통계데이터에 대한 활용 실태 및 사용자 의견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 다만 혁신목표와 전략 수립 방식을 고도화하고, 혁신추진 직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상하고, 기관의 IT 활용 역량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사회보장정보원은 득점률이 96.225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3.654점에 비해 2.571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도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등 7개 영역에서도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667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8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사회보장정보원은 대상사업별 정책 요구사항, 국민 니즈,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고, 성과목표를 잘 정의하고 있어 성과목표 달성수단과 달성결과 측면에서 성과지표에도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적정 수급을 사후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 지역별 선별진료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원한 것은 우수한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모니터링 활동 실적이 대상 사업별로 일부 계량지표의 점검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 추진 활동과 실적의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지만, 일부 지표는 투입·과정지표로 결과지표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2개 지표가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사회보장정보원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성과,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성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확대 성과,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6.66%를 기록하였다.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와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성과,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성과 득점률이 100.00%로 나타났고,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성과 득점률이 89.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81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800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2.975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07
주요 사업	1.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영 안정화				
	(1) 소상공인 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률 증가			3	3.000
	2. 소규모 점포의 경영역량 강화				
	(1) 나들가게 사후관리를 통한 매출액 증가			6	6.000
	3.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 온누리상품권 유효 가맹점 확대			4	3.917
	(2)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8	8.000
	(3)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4	4.000
	4.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1)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영업지속률			6	6.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여건 변화에 따른 기관 설립목적 재해석을 하고, 기관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핵심가치를 함께 성장, 지속혁신, 현장소통 및 사람중심 등으로 재설정한 노력이 바람직하다.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방향을 도출하고,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신규추진 사업을 선정하여 기존사업 기능조정과 신규 사업 발굴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기관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다만 핵심가치와 경영목표가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부 경영목표의 경우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정규직 채용여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마련을 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정규직 제로화 및 비정규직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과 비정규직 전환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및 고졸채용,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인재, 그리고 지역인재 등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채용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안전 및 환경 지표에 있어서 기관이 재난대비 매뉴얼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기능 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물리적 망 분리 구축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한 점은 바람직하다. 다만, 대내외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 안전관리규정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방안의 모색 및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현안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회의실 개방이외의 다양한 편의제공 노력 및 지역생산품 구매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의 대내·외 신뢰도 회복을 위한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윤리경영 관련 각 조직의 설계 및 윤리경영 관련 다양한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2019년 기관의 금품수수, 성희롱(추행), 욕설 등이 발생하였으나 경징계로 처리하는 규정의 무색함이 드러났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핵심인재 경력경로를 마련하고 순환보직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의 경영전략에 상응하는 중장기 조직운용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 경영전략과 조직·인력 운용방향 간 논리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하였고, 자율학습문화를 조성한 점은 바람직하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추가하고, 직무적응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자동육아휴직제를 연말에 도입하여, 향후 보다 신속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관은 전문직무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선정된 전문직위가 소수이므로,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일반직 직원 보수 체계에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하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4개 유형의 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보수 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 등 주요 사회경제적 집단 구성원에 대한 선제적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근로자 경영참여를 확대하였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하였다. 다만 기관장에 편중된 소통 채널 운영, 내부 교육 수요 반영이 미흡한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대

전환기 노사관리 역량 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혁신노력과 성과의 경우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권 분석 서비스 제공, 입지등급 및 잠재고객 정보 제공, 심사 품평회를 통한 소상공인 - 대기업 채널 연계 등의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 다만 기관은 혁신목표와 전략 수립 방식을 고도화하고, 혁신추진 내부 인력에 대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IT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득점률은 94.133점으로 2018년도의 득점률 95.169점에 비해 1.036점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경우 2018년도 득점 0.900에 비하여 2019년도 0.800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혁신과 소통 분야 2018년도 국민평가 득점은 0.767인데 2019년도 점수는 0.873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이는 추세측면에서 2016년도 이후 고객만족도 점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효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7년 81.2점, 2018년 80.4점, 2019년 91.9점을 득점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기여도 점수는 2018년 61.6점, 2019년 68.9점을 득점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 것, 기상청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동네슈퍼에 날씨경영 정보를 제공한 것, 전통시장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버스투어상품'을 개발·판매 운영한 것,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한 것 등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다른 주요사업과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추진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채널간의 매칭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모니터링 활동 실적은 추진전략별로 일부의 점검내용만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 성과지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활동과 실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제기된다. 대체로 목표부여 편차 방식 등의 난이도 있는 방법을 통해 도전적 목표설정을 추구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지표는 중장기 목표성과의 연계를 통한 주요사업 추진상의 기여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주요사업 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률 증가, 나들가게 사후관리를 통한 매출액 증가, 온누리상품권 유효 가맹점 확대,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정책자금 수혜업체 영업지속률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9.73%를 기록하였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률 증가, 나들가게 사후관리를 통한 매출액 증가,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정책자금 수혜업체 영업지속률이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온누리상품권 유효 가맹점 확대 성과가 득점률 97.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8. 우체국물류지원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D^+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5	D^+	3	2.11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D^+	1	0.900
	(3) 안전 및 환경	7.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0	3	2.950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0.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437
주요 사업	1. 우편물 운송사업				
	(1) 운송품질향상			6	5.586
	(2)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6	4.314
	(3) 운송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7	6.923
	2. 우편물 발착사업				
	(1)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			4	4.000
	3. 신성장사업				
	(1) 신성장사업 성장률			8	8.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비전 중심의 전략체계 마련과 전략목표 중심의 부서별 과제 및 목표지를 배분하는 긍정적 개선 노력을 하였다. 핵심가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가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스토리화 하여 이해도 및 공감대를 제고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룹웨어 로그인 시 전략체계도 팝업이 노출되게 하는 등의 노력과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를 통한 확산 및 공유, 전국 6개 지사 30개 사업소 직무교육 시 전략체계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비전전략 인지도를 제고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관은 미션 및 비전의 핵심가치와 전략목표에 경영목표를 포함하여 전략체계를 보완하고,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별 실행과제를 도출, 실행과제별 성과지표를 부여하여 지표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전략체계와 지표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하여 전략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 실행과제의 단계별 성과관리 체계의 점검 및 보완과 함께 실행과제별 성과지표를 부서 KPI에 연계하여 PDCA 기반하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보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스마트 워크,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어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전형별 동점자 발생 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외부위원 선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채용과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나 채용만족도 조사 실시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장애인 채용과 여성인재 활용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춘 노력은 긍정적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정보보안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택배사업자 대상 국내 최초 단체협약 체결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윤리경영에 있어 채용비리, 갑질 예방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 및 투명한 경영과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비위 및 갑질 관련 사고가 발생한바 있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행 부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도의 이용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계획과 연계성을 높여 정합성 높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사용률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직무급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조직 및 직무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 이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하여 기관의 협의 노력은 인정되나 제도의 도입, 실행 후 정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IOT에어샤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사업에 초기부터 수요처 참여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등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득점률은 61.708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67.292점에 비해

5.584점 하락하였다. 낮은 득점률의 원인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총인건비인상률 득점이 0점이며, 일자리 창출에서 낮은 득점을 달성한 데에 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가중치 1점 중 0.977점을 획득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기관의 직무특성 상 청년미취업자 채용, 청년인턴 채용 등이 어려워 가중치 1.1점 중 0.395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가중치 0.9점 중 0.746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0.5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서류전형 가점 제도 운영, 국가유공자 특별 채용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74.9%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평가항목은 모두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또한, 전년도 총인건비인상률 위반에 따른 인건비 초과분 미해소로 2019년도에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667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77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편물 운송사업, 우편물 발착사업, 신성장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기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SMART분석, SWOT분석 등을 기반으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선정하고, 전년도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응하고,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환류활동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도출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한 위탁업무 중심의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물류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성과지표 중 우정사업본부와 연계된 지표들에 대한 꾸준한 수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이 여러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안전, 신속, 정확이라는 기관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주요사업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며 혁신적인 자세로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향후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외부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3개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지표의 선정과 산식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최대 목표치에 도달된 한계 지표 등의 도전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운송품질향상,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운송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 신성장사업 성장률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2.98%를 기록하였다.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과 신성장사업 성장률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는 득점률 7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9.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64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969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76
주요 사업	1. 축산물품질평가사업				
	(1) 한우 품질향상 성과			7	7.000
	(2) 돼지 품질향상 성과			5	4.707
	2. 축산물이력사업				
	(1)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 성과			12	11.339
	3. 축산물유통사업				
	(1)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 성과			7	7.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D^+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비전에 따라 5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핵심가치와 경영목표와 핵심사업간의 연계성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주요사업별 연도별 자원 배분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20년 이후 집중해야 할 신규사업별 자원배분계획 또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이에 따른 수요·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은 주요 경영과제를 주도적으로 점검하며 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구성원들과 소통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외적인 소통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공공일자리 91명, 민간일자리 1,371명으로 총 1,462명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성과가 인정된다. 한편 5년 이내 여성 고위관리자 6% 달성을 목표로 세웠지만 중장기 비율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여성관리자 조기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ASF 발병 이후 위기대응 시스템의 즉각 대응으로 24시간 이내 이력 추적 및 노사합의로 특별 휴일 근무 등을 통해 ASF 확산을 방지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생멧돼지를 통한 일반 돼지농장의 감염 차단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발생시켜 상생·협력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록물 관리 협의회를 주관·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원문공개율 98.0%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한다. 기관은 저성과부서와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성과자와 저성과부서에 대하여 멘토링 등을 통해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저성과에 대한 책임을 저성과자 개인이외에 부서장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관은 '19년 정규직 전환자 상당수를 대상으로 직무기본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직무급을 확장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기관은 5개의 노사공동 협의체, 3개의 노사처우개선 TF를 추가적으로 운영해 노사협의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참여혁신단 등 외부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과제 Pool을 수집하고 역대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등 내외부의 의견을 조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득점률은 94.90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4.977점에 비해 0.077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정부 권장 기준 각각 68%와 99.465%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및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84.66%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평가항목은 모두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4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품질평가사업, 축산물 이력사업, 축산물 유통사업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축산물 품질평가 프로세스의 개선, 소·돼지 이력정보 품질관리 및 정보 활용 증대, 축산물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등 주요사업별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축산물 등급판정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 확보,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가격비교 참여업체의 확대 등 주요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산출지표의 구성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지표구성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지표의 정의가 불명확한 경우와 복합지표에 내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이 모든 계량지표의 목표를 목표부여(편차)방식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는 점은 실적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의 실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목표 설정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3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한우 품질향상 성과, 돼지 품질향상 성과,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 성과,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6.923%로서 전년도 득점률 83.96%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품질향상 성과,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 성과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돼지 품질향상 성과가 94.14%로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10. 한국가스안전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77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738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C	3	2.756
	(5) 윤리경영	3.0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67
주요 사업	1. 안전검사사업				
	(1)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6	5.599
	(2) 국민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성과			4	4.000
	(3) 부적합 시설 조기 개선율			5	4.987
	(4) 미검사 가스시설 감소성과			3	2.979
	2. 안전망구축사업				
	(1)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성과			4	3.765
	(2)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2	2.000
	3. 기업지원사업				
	(1) 기업지원성과			7	6.21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2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백만명당 인명피해율 감소를 포함하여 가스사고 인명피해 감소,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취약시설안전점검 등 각종 계량지표에서 성과를 보인점이 인정된다. 다만, 미래 산업을 대비한 경영과제와 세부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직의 기능을 재점검하고 사업 진척에 연도별 자원 배분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비교적 활발한 경영제언과 자문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이사회의 참석률과 비상임이사의 출석률 등이 다소 미흡하여 이사회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3,129명의 일자리 성과를 나타내 기관이 설정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 여성인재 채용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여성간부비율이 낮은 편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성 우수인재의 승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기관은 '17년 대비 '18년 가스사고 증가 유형을 분석하여 사고율 상위인 부탄캔 사고 및 보일러 사고를 우선적으로 감소시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2년 이후에는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 기능을 장착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탄캔 사고예방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전국 433개 시장 19,624개 점포 시설을 점검하여 150개 점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정책고객평가점수가 전년대비 한 단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두 단계가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저성과 부서에 대한 현장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저성과자에 대하여는 코칭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저성과자와 부서장이 함께 컨설팅을 받는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관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에 직무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 직원 직무급제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관은 노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합동워크숍을 통하여 기존 의사소통시스템을 진단하는 등 소통강화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혁신과제 제안 및 추진 활성화를 위해 팀별 구성원별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혁신동기부여 및 혁신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득점률은 91.958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4.723점에 비해 2.765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4.757%의 실적으로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만점을 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및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각각 20%와 92.759%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만점을 달성하였으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실적은 각각 37.405%와 40.623%로 미흡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33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검사사업, 안전망구축사업, 기업지원사업 등 3개 주요

사업을 수행하였다. 가스사고 감축 면에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취약시설 개선 및 점검, 복합재난 예방과 대국민 안전문화 구축, 가스산업 경쟁력 지원, 미래안전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 적절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된다. 검사 및 점검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미래안전기술에 대한 현장적용 확대 노력과 중소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지원 방안 마련, 기업 지원 수혜대상 확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핵심 결과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량지표의 사업성과에 대한 대표성 측면에서 일부 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결과지표의 목표를 중장기 목표 부여 및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은 목표의 도전성 확보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목표대실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최고목표 근처에서 실적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투입·과정지표가 확인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 성과, 국민 취급부주의사고 감소 성과, 부적합시설 조기개선율, 미검사 가스시설 감소 성과,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 성과, 취약가스시설 안전성 향상 성과, 기업지원성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5.313%로서 전년도 득점률 90.79%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 성과,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 성과가 전년도에 이어 득점률 100%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지원성과가 88.814%,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 성과가 득점률 93.317%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11. 한국관광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C	3	2.53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990
	(3) 안전 및 환경	5.0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	3	2.975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68
주요 사업	1.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⑴ 외래관광객 유치로 방한시장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8	7.130
	(2) 고부가 관광마케팅 강화				
	㉮ MICE 참가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6	6.000
	㉯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4	4.000
	2. 국내관광 활성화				
	(1)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성과			7	7.000
	(2) 관광복지 확대 성과			2	2.000
	(3) 국민안전			2	1.904
	3. 관광산업 활성화				
	(1)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2	2.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관광공사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국민 소통형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가치체계 점검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졌다. 기관장은 기관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동기부여 노력 및 구성원별 맞춤형 소통채널을 활용한 핵심가치 전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다만 기관의 중장기 역할을 고려한 경영목표의 세분화와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제고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개편하여 여러 기관과 융복합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정현원차 관리 및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추진전략과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의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했지만 지원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인재, 비수도권 인재, 장애인채용의 개선노력을 하였으며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여성의 취업약자 취업지원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확대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로의 연결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고, 근로 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 및 환경 지표에 있어 기관은 재난안전 거버넌스 재구축 노력을 기울여 ISO45001 인증을 획득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이 관광안전을 위해 합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긴급재난문자 및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보보안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노력 등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지역의 기관, 업체들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하여 지원한 성과가 미흡하다. 윤리경영 지표에서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하여 전담조직-윤리규범-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종업원의 횡령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기관 산하 기관에서 비위행위 및 재정사용의 부적정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대외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홍보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4대 전략방향에 따라 조직을 개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 운영 방향과 인력배분계획 간 정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불법·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자회사가 공공성과 설립목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내재화 교육, 개인별 맞춤교육을 추진하는 등,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다만, 내부 인적역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인력배분 및 정원계획 등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직위제와 전문직위제를 활발히 운영하였고, 성과평가 수용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유연근무제 이용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이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시스템 내 환류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안을 마련하고 직무프로파일 작성과 직무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지역 내 타 공공기관들과 복리후생제도를 공동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보수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보수 정책 방향을 연령-생산성-보수수준 간 실증 분석을 토대로 설정하고,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한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였으나, 성과급 반납분을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은 타당성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혁신 노력과 성과의 경우 기관은 디지털, 현장, 세대 간 소통이라는 3개 필요 역량을 식별하고 SNS 콘텐츠 제작 등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의 관광 홍보 요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채널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혁신

목표와 전략 설정을 고도화하고 IT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품질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관광공사의 득점률은 93.858점으로 2018년도의 득점률 96.392점에 비해 2.534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률은 가중치 대비 84.851%,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률은 가중치 대비 29.383%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가중치 대비 96.585%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중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가중치 대비 87.370%를 달성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득하였다. 국민소통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34점,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3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관광공사는 대외악재 속에서 역대 최대인 외래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하고, 글로컬 관광상품 테마 개선과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였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여행예보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DMZ 평화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평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추진계획은 대체로 적

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추진 성과의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가 계량지표 위주로 작성된 점은 비계량지표 및 정성적인 성과가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고 실적대상 데이터의 신뢰성이 대체로 확보되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일부 지표는 거시지표로 기관의 전체 성과로 연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난이도 있는 방법으로 도전적 목표설정을 추구했다고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1개 지표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의 목표달성을 이룬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관광공사는 3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외래관광객 유치로 방한 시장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MICE참가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 관광 활성화 성과, 관광복지 확대 성과, 국민안전,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6.88%를 기록하였다. MICE참가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 관광 활성화 성과, 관광복지 확대,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성과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외래관광객 유치로 방한 시장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성과가 득점률 89.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2.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3.00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56
주요 사업	1.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사업				
	(1)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6	5.933
	(2) 교통안전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4	4.000
	(3) 사업용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실적			2	2.000
	2. 자동차안전관리 사업				
	(1) 제작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6	5.565
	(2)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10	10.000
	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업				
	(1) 열차안전운행서비스 제공			3	1.68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4가지 新핵심가치를 제시하였으나 새롭게 정의된 비전과 핵심가치를 향후 변함없이 유지하며 기관 내에서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협업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은 조직문화 갈등요인 사전발굴 및 적극적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주도적으로 경영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다만, 각각의 과제가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의 경계가 모호해 향후 두 개의 트랙으로 과제를 구분관리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포함해 총 6,93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조직 내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성관리자 및 인재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성관리자의 중장기 비율 목표를 더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교통안전관리 강화 및 능동적 위기관리를 해왔지만 '18년 강릉선 KTX열차 탈선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화하고, 공정별 시험 및 사전점검 세부자료 요구절차 마련 등 내부지침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지역사회에 미래자동차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진행한 점이 인정되며,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청렴도 평가 중 내부청렴도가 한 단계 하락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저성과자에 대하여는 3단계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점이 인정되지만, 개인차원에서 저성과자와 부서장이 함께 컨설팅을 받는 프로세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직무급을 적용받고 있으나 실무직 이외에 일반 정규직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의미의 직무급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현장-실무-정기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과 본부 간

유기적 노사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 동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노력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드론 조정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신교통산업 활성화 선도 노력과 함께 규제혁신 및 지원기반 조성으로 튜닝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득점률은 97.96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3.538점에 비해 4.429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및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에도 세부평가항목 모두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2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안전관리사업, 철도교통안전관리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였다. 도심 속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확산하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업무에 집중하여 기관의 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선제적인 철도안전정책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지역 공동체 위주의 사고예방활동 거버넌스 구축과 자동차 사고 관련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계량지표의 구성 면에서 결과지표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대표성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지표에 내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이 계량지표의 목표를 정부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은 목표 설정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목표대 실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의 과거 실적치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교통안전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사업용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실적, 제작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열차안전운행서비스제공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4.132%로서 전년도 득점률 88.54%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사업용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실적, 운행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의 득점률이 100%로 나타난 가운데 열차안전운행서비스 제공이 득점률 5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3. 한국국제협력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B^0	3	2.99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	3	2.990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71
주요 사업	1. 국별프로그램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			9	9.000
	(2)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7	7.000
	2. 파트너십 프로그램				
	(1)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7	7.000
	3.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1) 글로벌 인재양성 성과			8	7.60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인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양성평등 실현 등을 반영한 정관개정을 통해 설립목적을 재설정하고, 국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新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가치체계를 사람, 평화, 상생번영, 환경의 4P로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기관은 4대 전략방향별 전략중심형 본부 및 현장중심형 해외조직을 신설 및 강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인력 예산의 효율적 배분 계획을 수립 실행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KPI 설정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PDCA기반 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사회적 가치 위원회로 격상시켜 일자리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한 노력과 정현원차 모니터링 체계 개선으로 정원 충원률을 향상시킨 점은 긍정적이나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를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채용점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여성관리자 비율 상승 등 여성인재 활용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안전센터와 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등 파견인력 안전과 대국민 안전을 강화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중장기적 시각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개발협력의 경험을 통해 보유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윤리경영에 있어 채용비리, 성비위, 갑질 예방 등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국민참여를 통한 사업평가, 예방적 통제 강화 등 부패방지 및 투명한 경영과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중심 사업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추진하였다. 교육제도 및 성과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만족도 측면에서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일·가정 양립의 측면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및 연차사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해외사무소 맞춤형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기관은 노사공동, 외부전문가참여로 구성원 제도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체계적 다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직무가치 평가가 기관의 고유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소 모호하다. 기관은 노사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의 단계적 경영참여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전략의 실행과제와 혁신전략의 실행과제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인정되나 전략과제와 혁신과제가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구조화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의 득점률은 97.975점으로 2018년도의 득점률 96.023점에 비해 1.952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99.559%를 달성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및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에 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등 세부지표별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는 95%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3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은 전년도 주요사업이었던 개발협력 프로젝트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그리고 개발협력 파트너 역량 강화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국별프로그램,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3개의 주요사업으로 재편하였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SDGs의 달성을 위하여 물적·인적 협력수단을 패키지화하여 다년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상생의 개발협력을 위해 우리의 현지 파견인력의 역량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도국 개발문제의 자체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소셜 벤처 육성

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해외 원조사업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발전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지표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연계성을 제고하여 구성되어 있고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일부 성과지표와 실행과제의 경우 주요사업 간의 중복성이 다소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과제가 추진되었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목적으로 하였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실행과제가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세부실행과제가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글로벌인재 양성 성과 등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기관의 새로운 전략 방향에 맞추어 신규 지표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평가 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성과지표의 도전성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은 3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글로벌 인재양성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8.73%를 기록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글로벌 인재양성 성과는 득점률 95.0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4. 한국국토정보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E^+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67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682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	3	2.837
	(5) 윤리경영	3.0	E^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58
주요 사업	1. 지적사업				
	(1) 측량처리기간 단축			9	8.734
	(2) 측량민원 감소			9	8.740
	2. 지적재조사사업				
	(1) 지적불부합지 해소율			5	5.000
	3. 공간정보사업				
	(1)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4	4.000
	(2) 공간정보 표준화율			4	4.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외부환경에 대한 PEST분석과 보유 인프라와 경영자원에 대한 경영여건 진단과 국민, 유관기관,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정보 혁신 플랫폼', '산업생태계 육성리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라는 LX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비전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플랫폼'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글로벌 최고', '미래혁신', '책임과 신뢰', '소통과 화합'의 핵심가치를 재수립하는 등 경영전략체계를 새로 수립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경영전략 실행을 위해 혁신성장 선도 및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전략방향별 핵심업무를 도출하고 전략적 조직개편 및 예산투자를 위해 인력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이행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PDCA에 기반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한 노력은 인정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내부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의 인력을 증원하여 일자리 창출의 추진력을 강화한 노력과 정현원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현원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인사위원회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여성인력 활용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정보보안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은 긍정적이나 국민안전을 안전관리체계에 반영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국토정보자산, 성과공유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협력업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윤리경영에 있어 채용, 인권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도 개선의 실행을 주도해야 할 기관장 등의 비위사례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윤리경영의 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전략실행과 직결되는 국토 디지털화 및 플랫폼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본부 및 지사 등 현장위주로 인력을 배치하였다. 드론조종사, 프로젝트 관리전문가 등 기관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육아휴직자의 성과평가 및 승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활성화하여 유연근무제 사용자 수가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성과평가제도의 이의제기 증가 및 여전히 낮은 연차사용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연공성 완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보수체계의 근간이 공정한 인사제도에 기반하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제도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충처리율이 전년대비 23.9% 상승한 점은 성과로 인정되지만 직무에 따른 불명확한 요구역량으로 교육 훈련 및 재배치 등의 역량기반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전략의 실행과제와 혁신전략의 실행과제 간의 관계구성을 위한 과제간의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에 대한 다차원적 체계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득점률은 91.292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1.362점에 비해 0.07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이 전년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0.06점 하락하였고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실적 저조(12.5% 달성)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년 평점 대비 1.1% 감소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에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을 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실적은 소폭 감소하여 98.8%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1.8%를 준수하여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에서 만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지적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공간정보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한 후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3개의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응하고,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환류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추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공간정보사업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선정한 5개 지표의 선정과 산식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사업 목적 및 방향과 일치하는 산식 구

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측량처리기간 단축, 측량민원 감소, 지적불부합지 해소율,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공간정보 표준화율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8.30%를 기록하였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율,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공간정보 표준화율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측량처리기간 단축은 득점률 97.0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B^0	3	2.95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658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	3	3.00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613
주요 사업	1.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1)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8	8.000
	(2) 수출시장 다변화 국가 수출성과			2	1.999
	2.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1)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4	4.000
	(2) 산지유통활성화			2	1.364
	(3) 유통시설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2	2.000
	3.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1)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11	11.000
	4. 식품산업 육성사업				
	(1)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			2	2.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설립근거법을 사업대상, 사업역할, 사업가치의 범주로 분석하여 설립목적에 따른 미션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비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핵심가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전략추진체계를 롤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를 롤링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국정과제와 연계하는 고도화를 통해 정책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과제별 수행주체 명확화, 핵심업무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 및 내부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경영목표를 사업별·부서별 목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측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되나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를 과제별·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보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인재육성처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실행과제를 신규 발굴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채용단계별 외부 평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NCS 심층 문항 개발 등 직무중심채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청년인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채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정보보안 전문인력 충원 및 해킹메일 훈련 강화 등 정보보안체계를 개선하고 aT안전신문고, 학교급식점검단 등 대국민 안전 강화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향상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과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를 적극 활용한 중소기업의과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경제질서 형성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윤리경영에 있어 종합청렴도가 개선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윤리경영의 제도적 기반 강화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성희롱 사건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조정을 통한 확보인력과 증원인력을 전략·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노사 간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성과평가제도의 수용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경력직이 전년도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였는바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예방-검진-사후관리」 All Care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 출산장려 및 정주여건 향상 등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구조변화, 노동법개정에 대비하여 노무역량을 강화하여 노-노-사 소통채널 확대로 상생협력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혁신전략을 중장기전략의 실행과제와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제 관리 체계가 다소 불명확하여 전략과제와 혁신과제의 규모와 형식이 다소 이질적인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득점률은 93.583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6.746점

에 비해 3.163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86.357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40%,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72.750%, 용역보호자 보호지침 준수는 8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에 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에서 모두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667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4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달성목표 및 사업 실행과제를 작성하고 외부 환경 및 내부 역량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중장기 달성 목표와 연계한 사업실행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실행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중장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성과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조치를 수행한 점은 인정된다. 특히 주요사업인 농산물 수급안정사업과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연결하여 과잉생산된 양파 등 작물의 해외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수급안정과 농민소득보전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해외수출 지원, 산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주요사업 평가지표로 선정한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등의 선정 및 산식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기관의 성과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4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수출시장 다변화 국가 수출성과,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산지유통활성화, 유통시설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7.78%를 기록하였다.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시설 국민 안전사고 감축노력,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는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산지유통활성화는 득점률 65.6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6. 한국농어촌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7	B^0	3	2.89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6	C	1	0.572
	(3) 안전 및 환경	7.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7	B^0	3	3.000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C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76
주요 사업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 재해대응능력 제고			6	6.000
	2. 농촌용수관리사업				
	(1)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 제고			9	9.000
	(2) 재해대비 시설안전관리 노력도			2	2.000
	3. 농지은행사업				
	(1)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9	8.999
	4. 농어촌활력증진사업				
	(1) 농어촌마을 활력 제고			5	4.752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4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 경영목표 유형별 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하여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도를 전년대비 2.6% 향상된 71.4%로 개선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4대 경영목표 유형별 전략목표 16개, 전사전략 13개 전략과제 26개로 구성된 경영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 설정을 과제별·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PDCA기반 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보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 '신성장사업 질적 성장',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의 전략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전략목표에 반영하여 경영전략을 롤링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3대 전략방향을 전략추진체계에 내재화하여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중점과제를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실측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한 점과 정규직 전환자의 복지 개선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현원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현원차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채용관리 세칙 제정 및 채용심의위원회 신설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및 보훈자 채용 및 중장기적인 시각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해킹메일 열람률 감소를 위한 교육 강화 등 정보보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산업재해 예방에 스마트 개인보호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점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주요 사업에 기반하여 성과공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공정한 경제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에 있어 기관운영 전반의 반부패 인프라를 강화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을 수행하였으나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비전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게 지사 하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수요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내부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측면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주요 지표의 실적이 개선되고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수익성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직무분석 연구는 시작하였으나 결과를 점검하고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한 결과물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단위에서 해당하는 직무의 양이나 난이도, 전략성, 중요도 등 전방위적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보수체계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관계 교육체계 정립하고 대상별 교육과정을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노사파트너십 교육 만족도를 개선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혁신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너지 계획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득점률은 94.162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3.164점에 비해 0.998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은 95.8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94.11%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60%,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54.321%로 미흡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에서 모두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19년 부채비율은 28.764%로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4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촌용수관리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P-SMART분석, SWOT분석 등을 기반으로 성과목표와 지표들을 선정하고 자원배분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목표, 세부 사업 및 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중장기 전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성과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조치를 수행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활기차고 행

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부사업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특히 계절별 기후여건 변화와 연도별 편차가 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수 및 가뭄대응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농촌용수관리사업에서 양적 성장과 함께 수질보전이라는 질적 향상에도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농지은행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농민의 소득안전망 확충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기관은 지속적인 역량 투입과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선정한 지표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평가 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설정된 4개 주요사업의 지표는 기관의 사업 목적 및 방향과 일치하는 산식 구성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높은 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4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재해대응능력 제고,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 제고, 재해대비 시설안전관리 노력도,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농어촌마을 활력 제고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9.20%를 기록하였다. 재해대응능력 제고,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 제고, 재해대비 시설안전관리 노력도는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농어촌마을 활력 제고 득점률이 95.1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6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4	B0	3	3.000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36
주요사업	1. 전파관리 강화				
	(1) 이동통신 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10	10.000
	(2)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8	8.000
	(3) 사회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관리 성과			3	3.000
	2.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활성화				
	(1) 시청자만족도 제고 노력			2	1.876
	(2)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강화 성과			3	3.000
	(3) 스마트미디어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3	3.000
	3. 기금운용관리 강화				
	(1)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2	1.58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8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국민중심 관점에서 가치체계 정립 및 미래 목표를 도출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바람직하며,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과 현장중심의 직원 공감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이룬 성과가 인정된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과 이사회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사회의 활성화 및 역할을 강화하였다. 다만 기관의 경영전략과 예산 및 인력 등 중장기 자원배분을 연계한 전략적인 경영자원배분이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일자리창출전략의 계획 수립과 함께 노조-KCA일자리 추진단-외부전문가가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을 목표기한 내 100% 완료하였다. 다만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사업들의 통합적 운영 및 연계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지역인재·비수도권 인재 채용 및 장애인, 국가보훈자, 고졸, 청년(인턴) 채용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여성인재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과 함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전방위적 개선 노력 및 여성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여성채용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임원 임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하여 여성을 위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간 통신망 두절에 대비해 전국 자체 기간 재난통신망과 자체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활동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정보보안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주민 요구 및 기관의 경영전략과 연계한 포용적 지역상생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판매 등 및 지역행사 및 지역의 국제행사에 적극참여하였으며, 지

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카페760' 및 열린 도서관 '760Books'을 개방하고 있고 사내 어린이집을 지역주민이 46%나 이용하고 있다.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청렴윤리·인권 경영을 위하여 추진체계 뿐만 아니라 규범강화와 조직강화도 병행하였으며, 고객,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의 인권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윤리비전을 추진하는 추진체계의 구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조직진단(SPRO분석)을 통해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조직 효율화로 지원부서 인력과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부서 인원과 비중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중장기-연차별 체계적인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운영 전략에 부합하도록 조직운영 전략과제와 인력운영 전략목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년 대비 1인당 평균교육비가 증가하였고, 교육비 집행률도 90% 이상으로 향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체계적인 HRD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개인 평가수용도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부서 평정 결과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관은 개방형 계약직제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19년도 개방형 직위제 확대 실적은 뚜렷하지 않아, 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제 로드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보직자 직위 평가와 비보직자 직무 평가를 시행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직무의 기관 내 가치와 시장 가치, 그리고 개인 공헌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와 행동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근로자 경영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경영권 침해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은 기여도 평가에 따라 노사 소통채널 활용을 조정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노사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 성과와 노력 분야에서 기관은 RPA SW를 활용하여 급·상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금사업 집행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조난신호 원격 자동 발사 장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혁신목표와 전략 설정 방식을 고도화하고 혁신추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며 IT 인력과 사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득점률은 96.96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9.000점에 비해 2.033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도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등 7개 영역에서도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0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관리 및 효율화 그리고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5G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크게 모호해지는 Big Blur 시대에 사업진행 방향이 5G의 방송영화 콘텐츠개발 위주로 되어 있어 콘텐츠 개발 뿐 만 아니라 5G기반의 스마트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스마트 융합 서비스로 확대 발전시키는 인식전환과 스마트 융합 서비스 개발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역량 있는 스마트미디어 융합 청년인재 pool이 매우 작아 기술과 창의력을 보유한 5G 기반의 방송통신콘텐츠 및 스마트 미디어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들의 역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금운용의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성과 평가제도 운영 관련하여 사업단계별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환류체계 강화를 추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지만, 일부 지표는 투입·과정지표로 결과지표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도전적 목표설정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3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이동통신 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사회 취약계층 시설 전자파 관리 강화, 시청자 만족도 제고 노력,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과, 스마트미디어 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8.27%를 기록하였다. 이동통신 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사회 취약계층 시설 전자파 관리 강화,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 강화성과, 스마트미디어 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가 득점률 79.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D^+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0	C	3	2.9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925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426
주요 사업	1. 보훈의료 질 향상 사업				
	(1)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11	9.208
	2.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사업				
	(1)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10	9.142
	3. 보훈복지사업				
	(1)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수혜인원 증가율			6	6.000
	4.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				
	(1)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감소율			4	4.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D^+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는 포용적 복지, 혁신성장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공단 역할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가치와 설립목적의 연계성 분석으로 가치체계를 구체화하여 가치체계 재정립 방향을 도출하였다. 기관은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영전략을 재설정하고 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경영목표와 부서별 성과지표 정렬을 실행하고 중장기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4대 경영목표 유형별 전략목표를 연계하고, 전략과제 12개로 구성된 경영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를 과제별·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PDCA기반 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보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모성정원제를 도입하여 정현원차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시간선택제 확대 및 교대근로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인재채용과를 신설하고 채용비리 근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채용과정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외부 면접위원 미참여 채용을 감소시킬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채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감염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음압격리병실 및 병동 출입통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재난대응체계와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협의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의료자원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윤리경영에 있어 적극적 감사활동을 통하여 내부견제 성과가 증대되고 간호사의 태움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존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갑질 및 비리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추진하였다. 다만, 성과평가에 대한 노조의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인사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 에 있어 모성정원제 도입하여 의료현장 모성보호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연차사용률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직무분석을 근거하고 있으나 전주기적, 전방위적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보수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관계 전략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된다. 혁신전략의 실행과제와 중장기전략의 실행과제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전략과제와 혁신과제간의 관계 구성에 대하여 기관의 접근 체계가 다소 불명확하고 과제의 생성, 이행, 소멸 등의 관리 체계가 다소 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득점률은 92.925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4.508점에 비해 1.583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66.694%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80%를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

조합 생산품 실적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은 각각 98.831%와 63.604%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500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2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향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하는 설립목적을 제시하였다. 주요사업부분에는 국가유공자 등 진료, 건강관리부분과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조사·연구부분, 복지시설운영, 복지증진 기여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보훈의료의 질 향상사업,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사업, 보훈복지사업,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실적을 제시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도출 하였으나 목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목표와 지표선정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정된 성과지표의 계량목표와 비계량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년도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응하고,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환류활동을 수행하였다.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노력한 4개 주요사업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보훈요양원 브랜드프로그램 수혜인원 증가율,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감소율 지표의 선정과 산식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나 세부지표

간의 가중치 배분이 보다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4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보훈요양원 브랜드 프로그램 수혜인원 증가율,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감소율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1.45%를 기록하였다. 보훈요양원 브랜드 프로그램 수혜인원 증가율,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감소율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가 득점률 83.7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B^+	3	2.27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9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931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65
주요사업	1. 일자리 창출형 R&D 기업지원 강화				
	(1)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9	9.000
	(2) R&D 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3	3.000
	(3)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성과			6	5.675
	2.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1)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5	5.000
	(2)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나눔 이전성과			3	3.000
	(3)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프라 활용촉진 성과			5	5.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연결과 협력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관이 되어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서 기관 내·외부 관계자 참여 기반의 경영환경 및 KIAT의 변화 방향 등을 고려한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치체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아울러 비상임이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영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 만족도 조사 등 이사회 피드백체계 구축 등의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다만 핵심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다소 미흡하며, 비전과 핵심가치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정현원차가 최소화되어 인원기준 마이너스 5명(416명/421명)으로 101%를 달성하였으며,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43명/45명)은 2018년에 104.7%를 달성하였다. 다만 조달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은 미흡하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공개채용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응시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부정채용의 차단을 도모하였으며,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하여 청년, 지역인재, 체험형 인턴, 국가보훈, 여성인력, 고졸자, 장애인 등의 채용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다만 지속적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고졸채용 등 채용 목표치가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기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여 바람직하다. 다만, EAP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관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공간지원 및 기금출연이나

지역제품 구매활동, 그리고 지역행사참여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윤리경영 추진체계의 수립 및 다양한 소통과 참여, 제도 마련을 통한 윤리경영 문화의 내부적 확산 노력을 하였으며, R&D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부패방지시책의 평가등급이 낮아지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조직을 신설, 확대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장기 조직운용 계획의 체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역량 차원의 강·약점을 인적자원 전략과제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위임전결규칙 개정을 통해 팀장 전결 비중을 확대한 것은 자율책임 경영 촉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효과평가를 강화하였으나 필요역량별 구체적 향상도를 중심으로 교육 효과성 검증 프로세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전년과 달리 본부장 직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선정하고 채용을 시도한 것과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 우수기관'을 연장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의 경우 일반직을 대상으로 직무분류를 실시하고 공무직 보수체계도 일반직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생산성-보수 수준 실증 분석에 기반을 두고 보수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와 행동 양식을 조사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부문의 경우 기관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충처리절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HRD 전략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디지털 대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혁신노력과 성과 부문의 경우 조직 내 혁신 공유 체계를 보강하고, MCT-net 등 공공데이터베이스 신뢰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소부장 사업 지원 방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부 혁신추진 직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네트워크를 혁신 기여도에 따라 관리하며, IT 인력과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득점률은 90.60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5.062점에 비해 4.462점 하락하였다. 일자리창출 실적은 3점 만점 중 2.276점을 달성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 실적에서는 1점 만점 중 0.900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전사적 관리지표를 통해 정부권장정책 각 7개 지표 중 6개 지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기술개발 생산품의 경우 신규 시범구매비율 미달성에 따라 전년(100%) 대비 38.1% 하락한 61.90% 달성하여 2.931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지표는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허위공시 1건 및 수정공시 2건으로 벌점 4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가중치 1점 중 0.93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일자리 창출형 R&D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다양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력과 성과가 다수 인정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규제혁신의 기반을 조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다만, 개별 실행과제에 있어 성과분석이 미흡한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지만, 일부 양적 투입지표는 질적 결과지표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지표의 지속 가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목표부여 편차 방식 등의 난이도 있는 방법을 통해 도전적 목표설정을 추구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 목표성과와의 연계 부족으로 현재의 목표달성이 주요사업의 도전적 추진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신규일자리 창출제고,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 성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나눔 이전성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인프라 활용촉진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8.95%를 기록하였다. 신규일자리 창출제고,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나눔 이전성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인프라 활용촉진 성과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 성과가 득점률 94.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 한국산업단지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95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2.901
	(5) 윤리경영	3.0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45
주요 사업	1. 산업단지관리운영 사업				
	(1)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 실적			10	10.000
	(2) 산업단지 안전화 기여 실적			4	4.000
	2. 기업성장지원 사업				
	(1) 클러스터 R&D 지원기업 생산액 향상 실적			6	6.000
	(2)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실적			6	6.000
	3. 산업입지조성 사업				
	(1) 산업단지 미분양률			5	2.97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상향식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내재화 지수와 소통만족도를 향상하였다.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기관장의 추진의지가 반영된 목표치 10%를 제고하고, 핵심가치 공유노력으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는 등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평가를 포함한 기관의 다양한 평가 및 컨설팅결과에 대한 기관차원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과정의 체계화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KICOX형 일자리 창출 전략 구축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경영전략과 일자리전략의 수립과 조직내의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다만, 정현원차의 하향적 추세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과거 2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시 채용비리가 제로를 달성하였고,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내전문면접관 양성, 구조화된 면접문항을 개발하였다. 다만, 고졸직원 채용과 여성채용 및 인력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 및 환경 분야에 있어 기관은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점이 인정된다. 안전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물리적 망분리 완료를 통해 정보보안 대응체계를 확립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관련 기관의 신속한 태도가 필요하며, 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전략 추진체계를 재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지역소득에 기여하였다. 다만, 지역농산물 및 지역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투명경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재정립하였으며 윤리경영시스템을 혁신하였다. 다만, 담당부서 및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재무분석 및 조직현황점검을 통해 내부역량 시사점을 도출하여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인력 운용방향과 경영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주도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직급·직무역량 교육과정을 추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전문직위제의 경우 '19년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있어 기관은 경영환경 변화 정도를 반영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투자 확대와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적극적 수입증대 노력 및 지출감축 노력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고, 7년 연속 부채를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요 재무지표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재무전략을 수립하여 그 실현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의 경우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 지표와 조사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배치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체되고 있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연령-생산성-보수수준 실증 분석에 기반을 두고 보수 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경우 근로자의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노조와 현장 소통 관련 미팅을 개최하였으나, 소통채널별 기여도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채널관리를 보완하고 디지털 대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 노력과 성과 분야의 경우 산업단지 통계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장설립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 공동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기업 간 지식·기술 공유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혁신목표와 전략 설정 방식을 고도화하고, 혁신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IT 인력 확충과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득점률이 96.146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6.136점에 비해 0.01점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에서 만점을 획득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에서 가중치 대비 96.083%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중 중소기업 생산품 등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에서는 가중치 대비 80.5%를 달성하였고, 온누리 상품권에서는 가중치 대비 80%를 달성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총인건비 인상률에서는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 소통의 경영정보공시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 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1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다양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력과 성과가 다수 인정된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합동공모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어메니티 확충을 시도하는 한편 입주기업 투자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다만, 개별 실행과제에 있어 성과분석이 미흡한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여 긍정적이나, 일부 투입지표는 결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목표부여 방식을 활용하여 목표치를 설정함에 따라 난이도는 평이한 측면이 있어 보다 도전적 목표설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되며, '19년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외한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실적, 산업단지 안전화 기여실적, 클러스터 R&D 지원기업 생산액 향상실적,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실적, 산업단지 미분양률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3.45%를 기록하였다.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득점률 59.4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	3	2.76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2.950
	(5) 윤리경영	3.0	E^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691
주요사업	1. 사고·사망재해 예방				
	(1) 사고·사망재해 감소				
	㉮중상해 사고재해 감소			6	5.365
	㉯ 사망재해 감소			9	8.426
	(2)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3	3.000
	(3)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3	3.000
	2.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1)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4	4.000
	(2)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3	2.365
	3. 안전문화 선진화사업				
	(1) 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지수 확대			3	3.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 인원이 전년대비 116명으로 줄어든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핵심가치의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핵심가치는 단순히 공유되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 기관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치를 지켜 가는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프로세스 개선에도 노력하였으며, 기관장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점검과 현장경영을 강화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전일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전환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양적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고졸채용이 이루어 진 점이 인정되고, 대형사고 발생시 국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고발생 구조적 요인 규명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참여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2배 향상되는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한편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와 관련하여 내부청렴도는 소폭 하락했으며, 정책고객평가는 상당 폭 하락했고 부패방지시책평가는 한 단계 하락했기에, 이러한 결과에 대응해 준법·윤리 경영수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마련이 요구된다. 기관은 감사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기관 내부견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향후 부족한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저성과 부서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직무급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들 외에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 의미의 직무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상황별 노사관계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재정립하고, 노사공동선언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혁신노력이 “건설현장 외국인 안전 통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혁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정교화하고, 고용정보원 등과 협업하여 안전교육통역전문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득점률은 94.21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5.600점에 비해 1.383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1.58%를 달성하여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80%를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 등 5개 분야 우선구매 실적 및 재정조기집행 실적에서 100%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은 각각 80.9%와 95.935%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5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재해 예방,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안전문화 선진화사업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실행 실적이 긍정적이며 20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법의 조기 안착과 기술보증기금 등 사회적 수요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자발적인 재해예방 활동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직업병 관련 관리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이라는 문제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이 결과 및 산출지표의 비중을 높게 구성하고 있는 점은 지표구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요사업별 성과에 대한 대표성 면에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지표가 일부 확인된다. 기관이 모든 계량지표의 목표를 목표부여 또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는 것은 목표관리의 도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특히 기관이 결과지표로서 실적 향상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사망재해 감소' 지표의 가중치를 15점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지표목표의 도전성 관점에서 우수하게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사고사망재해감소,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관리강화,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취약계층안전보건교육 지수 확대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4.052%로서 전년도 득점률 83.65%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지수 확대의 득점률이 각각 100%로 나타났고, 제조업 작업환경측정이행률의 득점률이 78.8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2.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B^0	3	2.88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C	3	3.000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68
주요 사업	1.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질 관리 성과			8	6.927
	(2) 청년 취업지원 성과			7	5.125
	2. 국가자격 운영				
	(1) 국가자격취득률			5	3.846
	(2) 국가자격취득자의 취업률			2	1.638
	3. 외국인고용 지원				
	(1)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5	4.488
	4. 글로벌 일자리지원				
	(1) 해외취업지원사업 성과			4	4.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의 운영과 인력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관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전략과제를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이사회 직무만족도 향상과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이 채용과 고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현원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과 계획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결원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필요하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공정채용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제도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청년, 지역인재, 여성, 고졸자 채용에 대한 실적은 고무적이다. 다만,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여성채용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 및 환경 부문에서 기관은 안전가치를 반영하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한 점도 바람직하다. 다만, 작업중지요청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 기본계획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3심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생산품의 판로 확대, 선급금 지급 및 상생결제시스템의 실적향상을 추진하였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개방과 편의제공 노력이 요구된다.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중장기·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 및 계약의 공정성 향상, 인사관리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였다. 다만, 금품수수 지적사항, 부당업무지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직을 개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관 인적자원의 역량분석에 기초한 핵심업무별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인력배분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필요역량 향상도를 중심으로 교육 효과성을 확인 프로세스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 적용대상을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은 전년도에 전면 개편한 성과지표 체계 및 제도를 이전 것으로 회귀하는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보다 일관되고 신중한 조정과 개편이 필요하다. 기관이 전문직위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경로를 고도화하였고,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자 노력하였고, 유연근무제 이용직원이 증가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내부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 보수 체계를 도입하고 복리후생제도 감시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연봉제와 호봉제를 혼용하고 있고 직무급 체계도 직무가치나 개인공헌도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며, 성과급 체계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고충처리와 근로시간면제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상급단체 반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디지털 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소통 방식이 CEO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혁신 노력과 성과 분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결핵관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및 국군장병 대상 취업연계 자격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NCS와 채용자격·교육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혁신목표와 전략 설정을 고도화하고, 혁신노력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IT 인력 충원과 사용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득점률은 96.233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6.392점에 비

하여 전년대비 0.159점 하락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게 만점을 획득하였다.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재정조기집행 지표 모두에서 만점을 득점하였다. 특히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은 상반기 계획 대비 집행률 103.7%를 달성하였다. 국민평가는 고객만족도와 지수(80%)와 사회적 기여도 지수(20%)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국민평가는 0.934점을 득점하였다. 이중에서 고객만족도는 실적치는 만점인데 비해,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종합적으로 67.2점이 기록되었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국가자격 운영, 외국인 고용 지원 그리고 글로벌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추진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별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채널, 점검주기, 관리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글로벌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표와 성과관리가 주로 양적 관리와 확산에 집중되어 있어 지표와 성과관리를 교육생의 역량강화 및 성장 등 질적 관리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융합인재 수요가 많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단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민·관·산·학·연 체계를 통해 지역산업 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디지털 지역혁신의 Collective Impact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지만, 일부 거시자료로 기관 전체 성과로 직접 연결이 어려운 지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대체로 성과달성이 어려운 취업률 지표를 주요사업 전반에 설정하고, 모든 지표에 목표부여 편차 방식을 활용하여 목표치 설정을 함으로써 도전적 목표설정을 추구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지원성과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점은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질 관리 성과, 청년취업지원성과, 국가자격취득률, 국가자격취득자의 취업률,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해외취업지원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83.95%를 기록하였다. 해외취업지원 성과가 득점률 100.00%로 나타났고, 청년취업지원 성과가 73.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3. 한국석유관리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83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62
주요 사업	1. 품질검사 사업				
	(1)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5	3.914
	(2) 석유제품 품질관리 고도화			9	9.000
	(3) 품질인증주유소 확대			2	2.000
	2. 유통조사 사업				
	(1)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5	5.000
	(2)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5	3.644
	3. 기술연구 사업				
	(1)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			5	5.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은 '19년도에 비전을 변경하고 핵심가치를 추가로 설정하였는데 새롭게 정의된 비전과 핵심가치를 향후 변함없이 유지하며 기관 내에서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신규 사업 발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4가지 기준(공공성, 시급성, 성장성, 중요성)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있지만 중요도를 포함한 각각의 기준들이 그 범위가 매우 넓을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기관장은 조직의 안정화와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 했으며 하향식 위주의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을 바꾸어 상향식 운영을 보완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총 8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대비 111%를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내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빅데이터와 같이 기관이 보유한 여러 혁신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팀장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로 낮아 여성관리자 육성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은 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안전 및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을 발굴하고 확대하였다. 다만,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수요파악과 함께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 추진단계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기관은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성과 부서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부서장과 저성과자가 함께 컨설팅을 받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기관은 '19년에도 직무역할급과 역할성과연봉에 일정부분 개선을 시도하는 등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 임원 이외의 근로자들의 역할성과연봉 및 성과급도 전체 임금에서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이 성과나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 이사회 참관을 제도화

하고 근로자가 총 7회 이사회에 참관한 기관의 사례는 노사가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발현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기관은 K-Petro 블루보드·지역사회 협의 등 신규 소통채널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였으나, 외부참여 채널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및 채택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의 득점률은 96.60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8.831점에 비해 2.231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은 85.620%,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실적은 81.510%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2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유통조사, 기술연구 등 3개 주요 사업을 수행하였다. 기관은 석유품질개선을 위해 공급단계를 상하위로 나누어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수행했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했으며,

발전용 바이오 중유 상용화 등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석유사업자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전산보고 석유사업자 비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지표 전체적으로 산출지표의 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지표구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적발률 지표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상향지표 또는 하향지표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기관의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목표부여 및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지표의 가중치가 높은 점은 실적 상향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목표대실적,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의 목표 설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은 3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석유제품 품질관리 고도화, 품질인증주유소 확대, 석유시장투명성제고, 석유대체연료 유통확대,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2.123%로서 전년도 득점률 98.55%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고도화, 품질인증 주유소 확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 등의 득점률이 100%로 평가된 가운데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지표와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지표의 득점률이 각각 78.28%, 72.88%로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4. 한국소비자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88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94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890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74
주요 사업	1. 실용적 소비자정보 제공				
	(1)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 성과			5	5.000
	2. 소비생활 안전 개선				
	(1) 소비자안전 시장개선 조치 성과			10	10.000
	3. 수요자 맞춤형 피해구제				
	(1) 소비자 피해구제 성과			9	8.340
	4.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1)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성과			7	7.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해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였으나 소비자의 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선제조치(예를 들어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도입)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관은 핵심가치의 내재화 노력으로 핵심가치 적정성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단순히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기관이 핵심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치를 지켜 가는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똑똑원장님'과 '열린원장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19년에 총 1,261명의 민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인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공정 채용 프로세스를 확립·운영하였으나 블라인드 채용의 범위(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응시자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KCA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PDCA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한 점이 인정되며,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와 관련하여 주요지표들이 전년대비 유지 내지는 하락하고 있어 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은 내부견제시스템과 함께 관리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보다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저성과 부서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저성과자에 대하여 인사연계 등 최소한의 조치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어 코칭과 관련한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정규직 전환자 이외의 정규직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직무급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급제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노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였다. 기관의 혁신추진체계는 대내외 의견수렴과 상·하향식 추진체계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으나, 외부참여 채널을 시민참여혁신단이외에 다양한 채널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소비자원의 득점률은 95.70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7.377점에 비해 1.677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6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80%를 달성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과 영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 생산품은 52.640%를 달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도 구매성과도 95.136%를 달성하였다. 그 외 중소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4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소비자원은 실용적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생활 안전 개선, 수요자 맞춤형 피해구제, 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중소기업 품질비교시험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제고에 기여했고,

개별 소비제품 위주의 소비생활 안전 제도 마련은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신기술·신유형에 기반한 소비시장 관련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소비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 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지표의 구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건수', '인원수', '참여자 수' 등의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된 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지표구성의 적정성 확보 관점에서 지표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이 모든 지표에 대해 목표부여 또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실적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계량지표로서의 산식의 정합성 미비, 과정지표의 한계 등에 따라 지표목표의 도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지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소비자원은 4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 성과, 소비자 안전 시장개선 조치 성과, 소비자 피해구제 성과, 정책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성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7.871%로서 전년도 득점률 99.21% 대비 근소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비자 피해구제 성과가 득점률 92.667%(전년도 97.32%)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나머지 계량지표는 모두 득점률 100%로 나타났다.

2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70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0	C	1	0.482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957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764
주요 사업	1. 안전검사사업				
	(1)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7	7.000
	(2) 승강기 안전위험요소 제거성과			6	5.828
	(3)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율			6	5.989
	2. 안전연구사업				
	(1)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6	5.886
	3. 안전교육사업				
	(1)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 유지성과			6	6.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D^+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D^+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9년에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의 감소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승강기 대수의 절대적인 급증에 따라 향후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핵심가치의 내재화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핵심가치의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인증 제도를 정착하고 검사실명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19년 이후 예산이 집중될 세계승강기허브도시 조성사업을 포함한 중점사업과 미래대비를 위한 신규 사업간에 투자 재원의 균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은 승강기 중대고장 원인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중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점이 인정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소통과 사회적 기여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확대된 직원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내외부 직간접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한편 기관은 여성관리자가 ’19년 3명에 불과하여 향후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안전예보전용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고 예방 안전정보를 발송하고 있고,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주요지표들이 하락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부서장과 저성과자가 함께 컨설팅을 받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구성원들의 성과평가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직무급을 보수체계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도 직무급 보수체계를 적용 받고 있지만, 전체 보수체계에서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

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구성원간 세대갈등 극복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혁신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체계 연계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책정보 오류표기가 있었던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득점률은 90.86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88.162점에 비해 2.705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93.750%를 달성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각각 95.158%와 48.463%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40%를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56.374%를 달성하여 미흡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등 정부권장 우선 구매 대부분 100%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의 우선 구매실적은 구매실적이 부족하여 78.727%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3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주요사업으로 안전검사사업, 안전연구사업, 안전교육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안전위험요소 제거활동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등 사업전략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의 설정이 일부 수단적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다양한 비계량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글로벌 수준과 비교한 목표 수준 설정, 자체평가시스템의 체계성 보완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량지표의 구성 면에서 전년 대비 승강기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산출·결과지표의 구성과 가중치가 축소 조정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투입·과정지표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산출·결과지표의 비중 확대를 고려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지표의 경우 산식 구성의 정합성 및 성과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이 모든 지표의 목표를 목표부여 또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는 것은 실적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목표 수준의 기준치 설정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표가 일부 확인된다. 안전성 관련 지표의 경우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목표 수준을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승강기사고 감소 성과, 승강기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 부적합승강기 조기개선율,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안전관리자 직무능력 유지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9.042%로서 전년도 득점률 98.33% 대비 소폭 상승하여 위탁집행 1유형에서 가장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승강기사고 감소 성과,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안전관리자 직무능력 유지 성과가 전년도에 이어 득점률 100%로 평가되었고, 승강기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가 97.1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6.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74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C	3	3.00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05
주요 사업	1.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1)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3	3.000
	(2)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부실예방			10	10.000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도 향상			3	3.000
	2.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 확보				
	(1)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안전 확보 성과			10	9.361
	(2) 싱크홀(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노력과 성과			5	5.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비전과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내재화 노력을 측정하고 있으나,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관이 핵심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치를 지켜 가는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향후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자체수입은 감소하면서 정부의 출연금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 창출 등으로 자체 사업을 벌여 수입 확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은 현장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하고 이사회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비상임이사의 출석률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기관은 '19년 공단 정원 증원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79%의 성장을 하였다. 기관은 채용전형 단계별 리스크 관리, 채용검증 절차 강화 및 평가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행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전형의 점수산정 내역 및 증빙자료 교차검증 등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안전보건경영 추진동력을 확보하였고, 경남혁신도시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상생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계약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측정하는 주요지표들이 하락하여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내의 저성과 부서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의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관리되어져야 한다. 기관은 직무급의 활용도입에 있어서 여전히 파견·용역 전환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직무급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급제 전환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3급 이하의 경우 호봉급 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성과나 능력에 따른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성과급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노사 구성원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소통채널을 활

성화 하고 문화 산책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별 BSC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혁신 활동에 구성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채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득점률은 94.55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5.054점에 비하여 전년대비 0.504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91.367점을 득점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의 경우 만점을 득점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만점을 득점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모두 2년 연속 평점 100으로 만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 확보라는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시설물 안전 확보 등 주요사업의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의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체계성의 보완, 다양한 비계량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글로벌 수준과 비교한 목표 수준 설정, 자체평가시스템의 고도화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주요사업의 핵심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가 계량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못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검사기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지표가 부재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 향상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투입·과정지표의 구성 비중이 높은 가운데 목표 설정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표 수준을 보완하고 산출·결과지표의 구성 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부실 예방,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활용도 향상,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안전확보 성과,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노력과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7.939%로서 전년도 득점률 96.7%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안전확보 성과가 득점률 93.6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다른 모든 지표의 득점률은 100%를 기록하였다.

27. 한국에너지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87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959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825
주요 사업	1.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1) 산업체 에너지효율기술지도 확대			5	5.000
	(2) 산업체 에너지효율향상 성과			6	6.000
	2. 에너지절약형 생활기반 강화 사업				
	(1) ICT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7	6.985
	(2)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증 확대			4	4.000
	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1)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9	9.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핵심가치체계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성과달성을 위해 핵심가치 및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한 자가점검 혁신툴(KINOTE)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관의 모습을 재설정하고 미래와 현재상황의 GAP분석을 통한 기관의 극복방향 설정 등 체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다만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과 내부 가치체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일자리전략 재수립 과정에서 기관 내·외부 일자리 창출 혁신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다.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였으며,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노력과 전환자의 처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채용비리의 차단을 위하여 외부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채용을 추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다만, 직원의 업무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여성 채용 및 여성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은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감정근로자에게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EAP)을 운영하였으며, 위험성 평가제도와 안전작업 허가제를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안전 및 근로환경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정보보안수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상생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기관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지역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을 추진하였다. 다만, 물품 구매 실적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및 협력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윤리경영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윤리·인권에 관

련된 규정, 시행지침, 업무지침을 체계화하여 제·개정을 단행하였고, 전 직원 자가진단 및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채용비리의 원천 차단노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중장기 전략 롤링 관점의 조직 개편방향을 도출하여 인력을 증원시키는 등 효율적 조직기능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다만,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도출하는데 있어 내부역량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인력 및 역량 차원의 강·약점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력개발(HRD)에 있어서 팀장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평가 및 피드백 등 교육효과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이나 유연근무제도 확대를 통해 유연근무제 참여자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직 성과평가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조직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여 부서평가 수용도가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기관은 개방형 직위 지정과 운영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개방형 계약직제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도출한 복리후생제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복리후생제도 신규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 분석에 바탕을 두어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불완전하게 도입된 역할급 및 각종 수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와 행동 방식 조사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근로자의 경영참여 폭을 확대하였으나, 승진 대상 임원 후보자들에 대한 노조의 별도 선호도 조사 및 임원 평가 반영 요구, 협약 내용 준수에 대한 확인 활동 미흡,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디지털 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는 교육 프로그램 미흡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 혁신 노력과 성과 분야의 경우 사용자들을 참여시켜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련고시 개정(안)에 반영시키고, 취약 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으뜸 효율 가전제품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혁신목표와 전략 설정을 고도화하고 혁신노력에

대해 효과적인 보상을 꾸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의 득점률은 97.11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6.369점에 비해 0.748점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만점을 획득하였다. 평가항목 중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목표와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모두 달성하여 만점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 구매 등 6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의 경우 4년 연속 동일하게 만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는 82.501을 획득하였으나, 이는 2017년 이후 매년 소폭 하락한 결과이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관리 및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별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채널, 점검주기, 관리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창업 기반의 새로운 일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Collective Impact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역량 있는 디지털 융합 신재생에너지 청년인재 pool이 작아 교육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융합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창업 기반의 새로운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산·학·연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교육기관을 활용한 PBL의 확산과 R&BD, R&SD 그리고 R&TD를 추진함으로써 청년자립을 이루어나가는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고 실적대상 데이터의 신뢰성이 대체로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지표가 중장기 목표성과의 연계를 통한 주요사업 추진상의 기여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산업체 에너지관리 기술지도 확대, 산업체 에너지 효율향상 성과, ICT고효율 제품 보급확대,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인증 확대,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9.95%를 기록하였다. ICT고효율 제품 보급확대 지표가 득점률 99.7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득점률 100%로 나타났다.

28. 한국연구재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76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6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	3	2.845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713
주요 사업	1. 연구개발지원사업				
	(1) 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8	8.000
	(2)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 수준 제고			8	7.494
	(3)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5	5.000
	(4) ICT R&D 사업화 연계성과			3	3.000
	2. 연구기반구축사업				
	(1)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3	2.715
	3. 인력양성지원사업				
	(1) 인력양성사업 성과 창출 정도			2	1.796
	(2) ICT·SW 핵심인재 성과창출			2	2.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 및 핵심 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국정과제와 정부 중점 추진정책과 중장기 전략과제와의 전략적 정합성 확보 등 기관의 노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래예측기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성 기반 신규사업 발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수요자 중심 R&D 및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사회의 활성화와 비상임이사 참석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정현원차를 관리하여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하는 노력을 하였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노력이 미흡하며,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채용 공정성 확보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차별적 요소를 배제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고, 청년 및 지역인재, 국가유공자 채용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다만 장애인 채용은 정부 정책의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재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지역상생 협력 양적·질적 고도화 추진전략(PLUS) 심화 발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다과 구입, 한울타리 물품 구입, 호텔 예약 등의 실적이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대협력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발

굴이 필요하며 지역의 농산물 및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내부견제시스템으로 감사의 미션, 비전, 방향을 수립 및 인권경영의 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인권경영을 추진하였다. 다만 연구자의 윤리와 이를 관리하는 기관내의 행정윤리를 따로 관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청렴교육 및 직원의 청렴교육을 체계화하여 교육의 양과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이 감염병 등에 긴급연구 체계를 도입한 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되며, 위험성 평가를 도입·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이 강화된 점도 인정된다. 다만, 안전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며,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탄력적 조직 운영을 목표로 통합조직을 신설하고, 정원확대와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기관의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인적자원 운용계획을 운영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중장기 경영전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직운용방안을 보완하고, 권한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을 활성화하였고, 역량 향상도 및 현업적용도를 조사하여 교육수요 발굴에 환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직평가 직원 수용도가 향상된 것은 합리적 조직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다만, 직위공모제가 전문직위제와는 차별화된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활용 확대 수준이 아직 높지 않으므로 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 연구관리 전담기관 통합 조치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아직 유기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내부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

복리후생비를 운영하고 퇴직금 및 여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상위직급이 하위직급보다 고정적·연공적 성격이 강한 기본연봉 비중이 높고,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리후생제도 설계 노력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경우 주니어보드를 중심으로 직원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나, 작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통채널 효과 분석과 환류 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혁신 노력과 성과 분야의 경우 사용자 참여 혁신의 확산에 기여하고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접근 비용을 낮추었으며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접근 비용을 낮추고, 혁신노력에 대해 효과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네트워크 관리를 혁신기여도에 따라 고도화하며, IT 인력 충원과 사용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득점률이 91.058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1.138점에 비해 0.080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769점을 득점하였다.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의 경우 평점을 만점으로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36.118점을 획득하였다. 이는 2018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0.600점을 득점하였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만점을 득점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94.833점을 획득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활용사촌 생산품의 경우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의 2개 항목에서는 각각 58.622점, 92.202점의 평점으로 0.176점과 0.369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시간강사 지원방안 도출, 산업부와 협업으로 원천기술 상용화 연계를 위한 대형사업 기획 추진, 휴대용 안저카메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적용 발광키트 등 R&D 리빙랩 기반 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연구윤리 예방가이드 제작 및 보급, “공개 채용 프로그램-링크루트(LINC+Recruit)” 시행 등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추진계획은 대체로 적절하게 집행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업 성과평가시스템을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구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자체평가·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미흡과제의 경우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환류시스템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의 업(業) 특성에 맞게 부가가치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대 전략방향 22개 추진과제를 추진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주요사업의 일부 지표 산식의 복잡함과 가중치 조정의 필요성 있는 지표가 존재하는 등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모든 계량지표에 난이도가 있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활용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도전적 목표설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이다. 다만,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물의 수준제고 등 3개 지표가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관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3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성과물의 수준 제고,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ICT R&D 사업화 연계성과,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인력양성사업 성과창출 정도, ICT·SW 핵심인재 성과창출 성과

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6.79%를 기록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제고,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ICT R&D 사업화 연계성과, ICT·SW 핵심인재 성과창출 성과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성과물의 수준 제고 성과가 득점률 9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9.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82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76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947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50
주요 사업	1. 인터넷 및 정보보호 산업육성				
	(1) 정보보호산업 육성사업 지원 성공율			11	11.000
	2.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강화				
	(1)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11	11.000
	3.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1)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도			9	8.36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4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설립목적을 구체화하여 기관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미래대응방향 도출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만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 체계와 전략목표 및 과제들 간의 관계가 체계적이고 상호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기관의 일자리창출 전략을 재정립하였고, 정현원 관리를 통해 정원 742명 대비 13명이 더 많은 현원 755명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 및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일자리 창출계획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과업 및 과제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채용과정에서 차별적인 요인을 배제한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및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공개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능의 확대와 채용관련 절차·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과 능력중심의 채용을 고려한 보완노력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차별의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기관의 다양한 보유역량(정보보호 기술, ICT)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지역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물품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국가의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

더라도 지역 중소기업에 편의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관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준법·윤리적 책임준수를 위한 추진전략의 수립과 함께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 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채용 등 조직 전 분야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관 운영의 비리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하였다. 다만 감사조직의 인원 및 예산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관의 외부협력업체 및 외부이해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인권침해 및 차별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를 갖춘 것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성과로 인정된다. 기관이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안전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작업허가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이 환경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운용방향과 인력운용계획을 설계하여 경영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내부역량분석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전사적 역량 모델링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교육 전후 역량평가와 현업적용도 측정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고 환류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장기 인력개발 체계와 단계별 교육방향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기계발에 대한 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 조직성과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전문직위의 경력개발경로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개방형 직위제 공모 방식을 외부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의 경우 비간부 일반직의 직무급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이동을 실시하였고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

사를 실시하였으나, 직무의 기관 내 가치와 시장가치를 고려한 직무급 테이블을 마련하고,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며, 복리후생 만족도 측정 지표를 고도화하고 밀레니얼 새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1년 6개월 만에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였으나, 채용·승진·교육 파견 시 노조 추천 관련 사항, 규정 변경 시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 근로시간면제 관련 조항 및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혁신 노력과 성과 분야의 경우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R&D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통해 기관 고유 사업 활성화와 대외 이해관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혁신목표와 전략 설정을 고도화하고, 혁신 노력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기관 혁신 기여도를 반영하여 혁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일반 직원들의 IT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득점률이 93.992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88.846점에 비해 5.146점 상승하였다. 일자리창출 지표의 경우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0% 충족하여 만점 획득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대비 실적 호조로 최종득점이 전년대비 0.694점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0.760점으로 전년도 0.764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2.947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지표는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허위공시 2건으로 벌점 6.5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가중치 1점 중 0.91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및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다양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력과 성과가 다수 인정된다. 특히, 인터넷 신서비스 사업화 지원의 경우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지역센터를 확대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다만, 개별 실행과제에 있어 성과분석이 미흡한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구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투입지표의 개선과 인터넷 육성산업 측면에서의 계량지표 미흡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연계성 부족 등은 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3개 지표 모두 난이도가 있는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개의 사업에서 3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정보보호산업 육성사업 지원 성공률,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도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7.94%를 기록하였다. 정보보호산업 육성사업 지원성공률과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지표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도가 득점률 9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3.000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585
주요 사업	1. 맞춤형 취업지원				
	(1)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8	8.000
	(2)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고용의무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 고용 성과			5	5.000
	2. 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원				
	(1)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의무일자리 충족률			5	5.000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			4	4.000
	3.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양성				
	(1)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비율			5	5.000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 취업성과			4	4.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6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내외 의견수렴과 적합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미션과 비전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공감, 안전, 소통, 열정, 공정, 신뢰라는 하위가치를 도출하였다. 기관은 3대 경영목표를 도출하고 4대 전략목표를 재정립하여 PDCA기반의 경영전략 실행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이 전략목표별 성과제고를 위한 조직신설/개편 및 중장기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한 노력은 인정되나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를 과제별·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보완을 통해 PDCA기반 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정현원차 원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간선택제 전환, 임금피크제 대상자 별도 정원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채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외부위원 참여기준 신설하는 등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특정업무직의 만족도 향상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정보보안 교육 및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확대하여 정보보안체계를 개선하고 직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전사적인 재난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독립적인 전략과제를 설정하는 등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장애인 교육 및 취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및 중

소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협력업체와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에 있어 채용제도를 정비하고 고위험(신규 사업 및 지원금 집행)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하고 권익위 청렴도평가가 하락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업무 수행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개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장중심의 인력배치와는 맞지 않게 현장인력비율이 전기 대비 감소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이를 고려한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 기관은 연차사용을 활성화하고 재충전 프로그램 다양화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비전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조직 및 직무분석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직무급제 도입 시행하여 직무급 비중이 2,73%에서 4.90%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의 다양한 직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한된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하다. 혁신전략의 실행과제와 중장기전략의 실행과제와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너지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득점률은 96.542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7.246점에 비해 0.704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667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1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년과 동일하게 2019년 주요사업으로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기업의 일자리 확대지원사업과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관은 기관의 설립목적, 비전, 경영목표 및 프로세스별 핵심업무를 공공성, P-SMART분석, SWOT분석 등을 기반으로 성과목표와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각 사업별 지표는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목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개 주요사업의 계량 비계량 성과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성과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 등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조치를 수행하며 환류활동도 하였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과가 점진적 개선에 해당하며, 목표달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고용의무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성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의무일자리 충족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 성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비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 취업성과 지표의 선정과 산식 구성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며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표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평가방법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은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영향이 크고 기관의 영향력에 대한 한계점이 인정되므로 지표의 도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고용의무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 고용 성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의무일자리 충족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비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 취업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100%를 기록하였다. 모든 계량지표의 득점률은 100%로 나타났다.

31. 한국장학재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63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0	1	0.8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	3	3.000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33
주요 사업	1. 학자금대출 사업				
	(1) 학자금대출 안정적 공급 노력			9	8.498
	(2) 분할상환약정 유지율			6	6.000
	2. 국가장학금 사업				
	(1) 저소득계층 국가장학 지원 확대 성과			9	7.909
	(2) 교육비 부담 경감 성과			7	5.92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장학재단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설립목적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가치체계 재정립과 내재화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경영의 지향점을 확대한 기관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관장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과제별 분과 구성 및 계획부터 점검·보완까지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경영계약상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기관장의 추진의지가 반영된 목표치 10% 제고노력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전략자원의 배분에 있어 경영전략과 인력 및 예산의 배분간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일자리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전년도 일자리 사업의 분석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정현원차를 2018년 40명에서 2019년 6.5명으로 축소하였으며,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다만 일자리 추진전략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의 노력이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기관은 적극적인 내규정비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청년 39명, 이전지역인재 16.5명 채용, 고졸자 1명 채용, 장애인 5명, 그리고 보훈대상자 5명을 채용하였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외에 신입직원들의 업무적합성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학자금대출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제품 구매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 지역기업의 제한경쟁, 그리고 지역상권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력들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제품의 구매 및 편의시설 등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대·내외 환경 및 경영여건 분석을 통하여 준법·윤리경영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임직원과 함께 실천하는 윤리경영의 생태계 조성 노력과 대외적으로 중·고, 대학생 대상 청렴 캠페인 실시 등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규정, 강령, 지침 등의 위계 및 관계가 복잡하여 향후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이 종합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기관이 대학생 멘토링 캠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고등학생 해외 유학 장학생의 안전관리를 새롭게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안전작업 허가제를 안전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내부 강·약점과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 추진과제와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여전히 기관장 결재권 비중이 높으므로, 권한위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력개발(HRD) 부분에 있어 팀별 필요역량을 재정립하여 핵심직무역량 교육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다. 부서·개인성과와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공통성과지표 중 사회적 가치지표 비중을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관은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및 운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직위제 운영 및 실적도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있어 기관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학자금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이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지역사회 공헌 및 육체·감정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사용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주요 재무지표별 민감도 분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므로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지체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축소하고, 연령-생산성-보수수준 실증 분석을 기반으로 보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하며, 임금피크제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비정상적 근태 방지와 노조의 단체협약 준수를 위한 개선을 하였다. 다만 디지털 대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혁신노력과 성과 분야의 경우 예비대학생 대상 국가 장학금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학자금 지원 패널 조사 정보를 개방하였으며, 소셜벤처허브를 개관하였으나, 혁신목표와 전략 설정을 고도화하고 혁신추진 직원들에 대한 효과적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기관의 IT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장학재단은 득점률이 93.57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1.443점에 비해 2.134점 상승하였다. 일자리창출 지표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부지표에서 실적이 개선되어 2.632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2.259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만점을 달성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목표치에 미달하여 0.3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중소기업 생산품 등 7개 모두 100%를 달성하여 3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인건비관리지표도 인건비 인상률 1.8% 목표치를 준수하여 만점인 3점을 획득하였다.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19년 부채비율은 1,354%로 목표치인 1,400%를 하향 달성하여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벌점 0.5점이 발생하여 0.834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0.899점으로 전년도 0.816점 대비 상승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사업의 대상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다양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력과 성과가 다수 인정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취업-후학습 기반 강화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채권 발행으로 대출금리의 추가적 인하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 발생한 대출 상환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다만, 일부 초기 단계에 있거나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주요사업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한계지표가 존재하고 주요사업 목적 확대에 따른 지표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관의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대체로 목표부여 편차 방식 등의 난이도 있는 방법을 통해 도전적 목표설정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장학재단은 2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저소득층 국가 장학 지원확대 성과, 교육비 부담경감 성과, 학자금대출 안정적 자금공급, 분할상환약정 유지율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1.11%를 기록하였다. 분할상환약정유지율이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교육비 부담경감 성과가 득점률 84.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 한국전기안전공사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59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585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2.979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851
주요 사업	1.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				
	(1) 전기설비화재 감소			3	2.903
	(2) 현장시설개선율			5	5.000
	(3) 부적합시설 조기 개선율			3	2.835
	2. 전기안전진단사업				
	(1)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9	9.000
	(2) 전기설비 사고발생 감소율			2	1.963
	3. 전기안전지원·진흥사업				
	(1) 전기재해 인명피해율 감소			5	5.000
	(2) 광역정전 예방노력도			4	3.80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가치체계이해도를 측정하여 재정립된 핵심가치에 대한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공유되거나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관이 핵심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치를 지켜 가는지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조직-예산체계 등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메가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기관과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관장은 직원 중심의 소통의 확산, 혁신지향의 조직 문화 조성 등으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내부 직접일자리, 민간 직간접일자리 등 양적목표치를 초과하여 총 1,142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에 있어 '18년의 실적을 반영해 목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지역밀착형 취업 지원 활동 및 채용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사회형평적 인력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채용 실적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개선이 요망된다. 기관은 핵심 KPI 와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부문에 전기화재 감소 노력도,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 노력도를 선정하고 있는데, KPI의 내용이 모호하므로 명확히 정의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검전기 국산화를 위해 기술전담반을 운영·지원하여 검전기 3개 제품의 국산화 및 국내 최초 국제안전인증을 취득하는데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측정하는 주요지표들이 하락하여 전반적인 준법·윤리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저성과 부서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저성과자에 대한 별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은 '21년 KESCO형 직무급제를 전면 시행예정이지만 '20년에는 정규직 전환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 의미에서의 직무급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기

관은 노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CEO주재 브레인스토밍 회의 해커톤 간담회 등 계층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시민참여혁신단, 전북혁신네트워크 등의 의견이 반영된 혁신과제의 성과가 인정되나 혁신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활동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비공식 조직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득점률은 91.717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4.038점에 비해 2.321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각각 96.053%와 95.443%를 달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495%를 달성하여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0.585점을 득점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은 93%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1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5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검사·점검, 전기안전 진단, 전기안전 지원·진흥 사업이라는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 주요

사업의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체계성의 보완, 다양한 비계량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글로벌 수준과 비교한 목표 수준 설정, 자체평가시스템의 고도화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결과지표를 활용하여 지표구성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핵심 결과지표의 가중치를 다소 낮게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주요 계량지표에 대해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실적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2017년 이후 실적이 중장기 최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지표에 대해서는 중장기 목표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개의 사업에서 7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전기설비화재감소, 현장시설개선율, 부적합시설 조기개선율,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전기설비 사고발생율 감소,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 광역정전 예방노력도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8.4%로서 전년도 득점률 86.37% 대비 큰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시설개선율,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광역정전 예방노력도와 부적합시설 조기개선율의 득점률이 각각 95.065%와 94.5%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3. 한국전력거래소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0	C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2.989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690
주요 사업	1. 단기 전력계통 운영 사업				
	(1)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8	8.000
	(2)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6	6.000
	2.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				
	(1)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			8	6.687
	3.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1)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6	5.872
	4. 근로자 안전				
	(1) 근로자 안전			3	3.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비전을 재해석하고 핵심가치를 재정립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유지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과제를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 경영목표 및 측정요소의 주기적 관리를 추진하여 측정요소 전 항목의 목표 초과달성 실적을 도출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중장기 경영전략의 기존 12대 전략과제는 유지하고 3개 과제를 추가하고 1개 과제를 통합하여 39개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하고 경영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세부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의 설정을 과제별·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PDCA 기반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보완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정현원차 감소와 유연근무제 사용 증가 등의 노력은 바람직하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일자리 창출 전략과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채용정보 공개 확대 등 채용과정의 제도적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채용 및 중장기적인 시각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및 정보보안 교육 강화 등 정보보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나 산업안전과 시설안전 위주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산업, 시설, 근로자, 국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에 있어 다문화 브리지 인재양성 사업 등 지역현안 해

결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윤리경영에 있어 노사가 참여하여 인사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구제제도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내부견제시스템인 사후감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인권영형평가 개선과제에 대한 추가적 이행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추진하였으며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였다. 다만 성과평가에 대한 내부 만족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 출산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가족돌봄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기관은 KPX 직무체계 재정립 통한 직무중심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3직급 이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평가하고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과제를 실행한 노력은 인정된다. 전략에 기반하고 노사공동 노사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이루어지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교육훈련 및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의 제공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별 과제가 성과지표 레벨에서 연계되어 관리되는 점은 적절하지만 기관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을 체계적인 시너지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득점률이 97.325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5.392점에 비해 1.933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

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기술개발 생산품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반면,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56점을 획득하여 국민소통의 가중치 2점 중 1.69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기 전력계통 운영사업,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 그리고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도출을 위하여 P-SMART, Pay-Off Matrix, SWOT 분석 등을 활용하여 경영목표와 연계성을 제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지표목표 및 실행과제가 해당 경영목표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표체계 내에서 상호간 연계성이 높고 성과지표가 경영목표에 부합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추구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사업의 실행과제의 수혜대상이 일반적인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차후에는 경영평가 결과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로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근로자 안전 등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구성에 외부 요인의 영향이 많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는 지속적인 실적치 감소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4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근로자 안전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5.35%를 기록하였다.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근로자 안전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는 득점률 83.5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4. 한국정보화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77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716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534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77
주요사업	1.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1)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 성과			3	2.945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4	4.000
	2. 지능화 인프라 구축				
	(1) 지능형 인프라 활용 확산 성과			5	5.000
	3.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1)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7	6.589
	(2)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7	7.000
	4. 지능화에 따른 역기능 대응				
	(1)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을 통한 수혜자 체감성과			5	5.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0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에서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비전 및 의미를 재정립하여 지능화를 통한 국가·사회 혁신 선도를 위해 사업기능을 조정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지능화, 포용에 집중하고, ICT 기반 국정과제 현안해결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특히 비전달성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국가 3대 아젠다를 제시하는 등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평가 세계 1위와 범정부 TF 출범 등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장은 경영계약서 주요과제의 지속적 성과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치 설정 및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능형 정부 구현 및 지능화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각 과제별 목표치설정과 모니터링 과정 등의 기관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다만 일부 한계치에 도달한 지표의 경우 새로운 도전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창출의 지표에서 기관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으며, 내부 일자리의 질 개선 및 사회적 약자 취업연계 강화, 데이터·AI등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정현원차 관리를 통해 무기직 결원율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 및 유관기관, 유관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지표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정착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차별 없는 인재채용으로 지역인재, 여성, 고졸 채용성과의 확대 등으로 정부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다만 장애인 채용의 노력이 요구되며 고졸자의 채용인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관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상생협력 자금집행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으며, 협력기업과의 안정적인 사업 지원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추진체계와 사업들 간 정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편의제공으로 시설개방,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도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 지표에서 기관은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렴도 취약분야도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기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 및 인사제도의 개선 그리고 내부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만 기관의 외부 협력업체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이 기관장과 부서장 업적계약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여 현장업무의 안전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취약근로자 보호 지침 제정 시기가 지체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시설물 전체로 위험성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보안 관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있어 기관은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조직의 강·약점을 조직·인력 운용 전략과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권한위임과 위임대상자 명확화를 통해 단장·팀장 결재비율을 95% 수준으로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력배분계획에 인적자원의 역량분석에 기초한 인력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핵심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직군에 대한 직무역량 개발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조직 리더십 역량교육을 수행한 점도 바람직하다. 기관이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보, 평가절차의 합리성 확보,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직원만족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남녀직원 모두에게 보장하는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8년 직무명세서·직무기술서를 준비한 이후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체되어 있으며, 보수 결정 방식의 고정성·연공성이 강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직원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근로자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고, 노사관계 소통채널별 효과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소통채널을 재구성하였다. 다만 디지털 전환기 노사관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혁신노력과 성과 분야의 경우 기관은 채용 시 IT 역량 시험 전형을 활용하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의 IT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민간 기업의 활용도를 반영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혁신 목표와 전략 수립을 고도화하고, 혁신수행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혁신 기여도에 따라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득점률은 89.992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89.638점에 비해 0.354점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은 가중치 대비 92.7%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가중치 대비 90.7%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중소기업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등 4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등 3개 지표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국민소통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43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지능형 인프라 구축,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그리고 지능화 역기능 대응 사업을 위해 추진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별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채널, 점검주기, 관리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데이터 및 AI 융합 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과 창의력을 보유한 지역혁신 중심의 협력과 연합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청년과 일반 국민들로 부터 역량 있는 인재를 개발 양성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에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할 수 있는 고급 인재와 이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급인재를 발굴하는 디지털 지역혁신가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고급인재 양성 및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성과와 전자정부를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계량지표의 목표달성을 이루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목표치 설정방식이 대체로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도전적 목표설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4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성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지원, 지능형 인프라 활용확산 성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생산적 정보문화조성을 통한 수혜자 체감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019년 득점률은

98.49%를 기록하였다. ICT융합 사업화 성공률이 득점률 94.1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지능형 인프라 활용확산 성과, ICT융합 사업화 성공률, 생산적 정보문화조성을 통한 수혜자 체감성과가 득점률 100.00%로 나타났다.

35. 한국철도시설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0	B^+	3	2.94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7.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	3	2.867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778
주요 사업	1. 철도망 구축사업				
	(1)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대			11	9.845
	(2)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 노력			7	3.754
	2.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1)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10	9.633
	3. 신성장 사업				
	(1)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3	1.75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A^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6**		**44**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외부의견 수렴을 추진하여 '한반도 철도연결 추진'과 '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비전을 조정하여 경영목표 중 '북한철도 현대화'를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으로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보완하여 12개 전략과제, 65개 실행과제와 이에 따른 실행 KPI 147개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개선하고 전사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략의 구체성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의 설정을 과제별·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PDCA에 기반 한 전사전략과 사업전략의 상호연계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보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역세권 개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등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유연근무 신청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채용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고, 채용과정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응시자의 수용성을 제고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체험형 인턴제도와 이전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안전관리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코레일과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고 VR 체험 콘텐츠 개발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 노력은 바람직하나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수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정보보안 체계 개선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보유한 자원의 단순한 공유를 넘어 창업플랫폼,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형태로 지원하는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에 있어 채용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그룹 면담,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시행하였으며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가 1등급 상승하는 등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중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비전과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핵심사업 및 현장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였다. 직무교육 운영제도 등 교육제도 개선과 성과평가군 조정 및 평판조회(다면평가) 도입 등 성과평가제도의 개선으로 교육 및 성과평가 만족도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 유연근무 활용률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자 100% 대체 채용한 점은 긍정적이나 인당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경우 핵심위험인자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당기순이익 달성하고 주요 재무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기관은 적합직무를 난이도와 자격 등을 반영하여 21개 직무, 58개 단위업무로 축소하는 등 보수체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지만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모델 및 경력관리모델을 기관 고유의 업무체계에 비추어 구축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중심의 노무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혁신과제 발굴과 이행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 축과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 축이 상호 배타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과제 포트폴리오가 다소 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득점률은 96.869점으로 2018년도의 득점률 90.414점에 비해 6.455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94.8%를 달성하였으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각각 57%와 88.3%를 달성하였다. 또한,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19년 부채비율은 110.3%로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4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망 구축사업, 철도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신성장 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세 가지 사업은 전반적으로 연계성을 제고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추진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세부실행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주요사업의 범위 자체가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여러 이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특히 철도망 구축사업과 철도시설 현대화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성과달성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차후에는 글로벌 지표 반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 청년 창업자, 워킹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것은 바람직한 노력이라 평가되며, 주기적이고 정형화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체계를 통해 대응방안 및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로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대,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 노력,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선정하였으며, 지표의 산식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지표의 도전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증대,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 노력,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80.61%를 기록하였다.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 사고 방지의 득점률은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 노력의 득점률은 53.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88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2.958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66
주요 사업	1. 선박검사사업				
	(1) 선박검사 품질향상도			19	19.000
	2. 여객선 운항관리사업				
	(1)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4	4.000
	3.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				
	(1)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			3	2.615
	(2) 기술연구·개발 성과창출			3	3.000
	(3)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성과			2	2.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D^+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D^+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비전공유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핵심가치에 대한 공유도는 측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핵심가치가 올바르게 내재화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측정하기 위해 기관이 핵심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해당 핵심가치를 지켜 가는지를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고유사업의 내실화와 신규 사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전략과 연계된 과제선정과 자원 배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관장은 해양사고지수 저감 등 주요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관 출범을 주도하면서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기관 내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 505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기관이 설정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전 직원 중 3급 이상 여직원 비율은 1.3%에 불과하여 채용목표제를 통해 점진적 여성 직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신공단 출범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상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해양사고로 구분하였으나 아직 기존의 선박중심의 재난과 해양사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개선이 요망된다. 기관은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확인된다. 기관은 '19년 인사관리규정 등 총 3건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업무관리지침,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지침 총 2건의 관련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찾아가는 청렴·준법교육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준법·윤리경영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기관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만들고 '20년부터 적용 예정이나 부서장과 저성과자가 함께 컨설팅을 받는 프로세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직무급제를 활용하고 있다. 기관은 직무 중심 보수체계의 확장 도입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정규직 전환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직무급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경영위원회를 신

규회의체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이 인정되나, 노사협의체계에서 노사비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체계의 정교화·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의 혁신세부실행과제 26개는 혁신업무라기보다는 기관의 고유 상위목표달성을 위한 핵심활동들이 대부분이어서 혁신추진내용과 추진성과가 별도로 정리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득점률은 96.700점으로 2018년도 득점률 92.662점에 비해 4.038점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기술개발 생산품 지표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지표를 제외한 6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3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이라는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선박검사 실행력 강화 및 취약선반 안전관리 확대 등 주요사업의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자체평가시스

템을 통하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체계성의 보완, 다양한 비계량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글로벌 수준과 비교한 목표 수준 설정, 자체평가시스템의 고도화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계량지표 가운데 산출·결과지표의 비중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지표 구성의 적정성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지표 설계 및 산식 구성에 내재한 문제로 인해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지표도 확인된다. 기관이 대부분의 계량지표의 목표를 목표부여 또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는 것은 실적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실적 향상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투입·과정지표의 비중이 높아 목표 달성의 난이도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투입·과정지표의 실적이 대폭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산출·결과지표의 보완을 통해 성과 지향의 목표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선박검사 품질향상도,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 성과, 해양교통안전 확보 성과, 기술연구개발 성과 창출, 해운부문 온실가스 저감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도 득점률은 98.758%로서 전년도 득점률 97.04%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검사 품질향상도,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 성과, 기술연구개발 성과 창출, 해운부문 온실가스 저감 성과가 득점률 10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가 득점률 87.167%로서 유일하게 100%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7. 한국환경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0	B^+	3	2.78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0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7.0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	3	2.938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744
주요 사업	1.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1)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			6	6.000
	(2) 온실가스 감축성과			5	3.842
	2. 물환경관리사업				
	(1)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성과			8	7.398
	3. 자원순환관리사업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			5	4.813
	(2) EPR 포장재 품목 재활용성과			4	3.934
	4. 안전관리사업				
	(1)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감축성과			3	0.6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1.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환경공단은 PDCA 관점에서 경영목표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전사 KPI 성과달성률을 전년 대비 9.8%p 증가한 84.8%를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략방향, 실행과제의 단계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의 설정을 실행과제별,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PDCA기반 하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관의 보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경영목표 3개를 신설하고 2개를 개선하였으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의 KPI 등을 연계하여 단계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내부평가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지표관리전략을 보완하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 기관은 가치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주요사업을 검토하여 공단의 역할을 도출하고, 대내외 경영환경과 노사합의와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 내부역량 진단을 통해 핵심가치에 안전을 추가하고 경영방침을 '안전경영', '원칙경영', '열린경영', '가치경영'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핵심가치의 재정립에 부합하는 전략방향, 전략과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의 재수립과 실행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신입직원 정기채용 및 경력직 수시채용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패턴 분석을 통해 정현원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노력은 바람직하나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채용과정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채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응시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점은 긍정적이나 여성

인력 활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개선을 상시로 전환하는 등 정보보안체계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나 재난안전관리전략과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상시 및 비상시 재난대응체계에 부차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하수슬러지 고효율 원심농축 및 탈수기 공동개발 등 성과공유제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활발히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윤리경영에 있어 윤리경영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채용, 계약 등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일상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조사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계속 5등급이며 성비위, 갑질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은 비전과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분야 인력을 증원하고 현장중심으로 배치하였으나, 중장기 인력확대 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예산상의 제약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를 확대하고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조건 완화, 초과근무 총량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직무역할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는 등 직무급제 도입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지만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모델 및 경력관리모델을 기관 고유의 업무체계에 비추어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사 공동 선언문 채택하고 5대 실천사항을 결의하는 등 노사 상호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실행과제에 당해년도 혁신 실행과제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전략 관리 주체와 혁신전략 주체간의 일체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환경공단의 득점률은 95.542점으로 2018년도의 득점률 89.523점에 비해 6.019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각각 94.951%와 44.469%를 달성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84.470%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91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고자 기존의 3개 주요사업에 안전관리 사업을 더 하여 4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각 사업별 지표는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목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각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인 개선 수치와 성과를 제시하고, 환류활동을 수행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사업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연계하고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하였다.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기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성남시 악취제거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와 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한 우수한 사례로 판단되며 동시에 확산활동을 전사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 온실가스감축성과,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성과, 폐전기·전자 제품재활용 성과, EPR 포장재 품목 재활용성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감축성과 지표 선정과 산식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평가 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다. 기관의 4개 주요사업의 지표는 사업 목적 및 방향과 일치하는 산식 구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도전성을 유지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환경공단은 4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계량지표는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 온실가스 감축성과,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성과,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성과, EPR 포장재 품목 재활용성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감축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85.76%를 기록하였다.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는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감축성과는 득점률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Ⅲ 강소형

1. 국립생태원
2. 국제방송교류재단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8. 독립기념관
9. 시청자미디어재단
10. 아시아문화원
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 우체국금융개발원
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 창업진흥원
1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 한국고용정보원
18. 한국과학창의재단
19. 한국광해관리공단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3. 한국디자인진흥원
2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6. 한국보육진흥원
2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0. 한국수산자원공단
3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2. 한국언론진흥재단
3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5. 한국임업진흥원
36. 한국재정정보원
3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9. 한국콘텐츠진흥원
4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Ⅲ. 2019년도 강소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경영관리 범주(비계량)

(1) 전략기획

○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가치체계를 재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조하던 전년도에 비하여 특별히 사회적 가치를 더 적극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기관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가치체계에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고, 사회적 가치를 별도의 지표로 인식한 나머지 기존의 가치체계에 기관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한계를 보였다.

○ 가치체계의 내재화는 결국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에 대한 측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려 노력했다. 다만, 내재화 수준의 측정방식이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수준에 대한 측정에 그치고 있어서 사회적 가치 내재화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향후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의 측정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다수의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했다.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주로 활용했으며, 소기의 성과도 확인되었다. 다만, 교육내용이 사회적 가치의 본질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표별

사례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개념 이해와 확산, 실천 위주로 진행하여 사회적 가치의 이해 및 내재화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노력을 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전략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년도에 비하면 더 확대했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논의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경영목표의 효과적인 실행 및 달성을 위하여 경영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의 성과점검과 모니터링 과정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 사항이다. 특히 성과점검과 경영목표 실행 간의 연계성 문제는 환류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과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개선

○ 경영개선 지표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지속적인 기능조정과 신규 사업의 발굴을 통한 기관의 역동성 확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은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기존의 기능을 폐지하거나 이관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여전히 적절한 기준에 따라 기능조정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정부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경영진의 독립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가 있다. 일정한 기준을 따르되 정부정책과 기관 재량과의 균형을 통한 지속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경영개선 노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및 컨설팅에 기초할 필요가 있는데, 다수의 기관들은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의 경우, 합리적 논의 및 외부 컨설팅에 근거하지 않고 경영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방향성과 목표가 모호하다.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 경영개선 노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확인된다. 절차의 간소화는 기관 내부적 관점에서 단순히 업무효율성만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객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광의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부 우수사례도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프로세스 혁신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개념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절차의 간소화 노력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리더십

○ 전년도에 비하여 기관장의 경영계약 과제에 사회적 가치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사회적 가치를 경영계약 과제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가치를 한두 개 선정하여 경영계약 과제에 병렬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도 모든 경영계약 과제에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 경영성과 달성을 위하여 기관장이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은 기관의 가치체계를 내재화시키는 일이다.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내재화하여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동기부여, 사기진작 등은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사회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비상임 이사진의 역할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증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이사회의 활용 측면에서 구조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향후 각종

소위원회의 설치와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일자리 창출

○ 대다수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전략과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PDCA기반 일자리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민간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전략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부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다수 기관들이 중기일자리계획을 토대로 기술혁신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체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전략을 고도화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실질적인 민간일자리 창출 성과 향상을 위해 인력양성 이후에 채용연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이행과제에 대한 성과점검과 사업혁신을 통해 혁신적 일자리, 지역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들은 적극적인 정·현원차 관리를 통한 결원율 축소, 증원 및 수시채용 등 적극적 채용정책을 통한 내부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였고, 정년 후 재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내부일자리 나누기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결원율·이직율 감소를 위한 예비합격자 자격유지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청년, 지역인재,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일자리 창출전략을 확대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탄력정원제 기반 마련 등 내부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사업혁신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추가적 증원 등을 통한 정·현원차 최소화,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내부일자리 창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현가능한 일자리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가적인 내부일자리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인건비 재원 확보를 통한 정규직 전환의 실행력 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전환자 대상 직무·보수·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전 협의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전환인력들에 대한 직무등급 설정 등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보수·처우 개선을 통한 정규직 전환의 실행력 제고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전환자 대상 처우 개선, 전환인력에 대한 직무·보수체계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를 위해 사전심사제 운영을 내실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다수 기관들에 있어 전환 예외 직종으로 결정된 전산·상담직 용역인력의 고용형태에 대한 노사간 협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들은 일자리 추진전략과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R&D 직접고용, R&D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연관산업 고용유발 등 혁신기술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또한 핵심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목표를 설정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고도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사업혁신 및 신규 사업 확대 등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매칭 확대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혁신적 민간일자리 창출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창업지원 다변화, 판로 확대,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일자리의 고용 질 향상과 산업분야별 혁신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대다수 기관들은 채용업무지침 제·개정, 채용비리 근절 제도 강화 등 채용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전형단계별 평가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채용제도 개선과제를 시행함에 있어 응시자들 대상 환류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은 2단계 면접체계와 AI면접 등 직무맞춤형 채용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업준비생 면접 참관 및 관계기관 추천접수 등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채용비리 신고 홈페이지 안내 강화 등 공정채용 기반을 강화하고, 직무역량중심 채용방식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용 등 인사관리상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채용위탁업체에 대한 잠재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들은 증원, 결원 보충 등을 통해 청년의무고용비율 이상의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한 청년 취업역량 지원사업을 확대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대정책 및 제한경쟁채용, 직무체계 재분류를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단녀, 신중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취약계층 적합직무 발굴을 통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가 요구된다. 인턴제 다양화 등 포용적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인재 조기이직 축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청년인턴 확대, 고졸 적합직무 재설계 등 청년과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들은 여성 채용 확대를 통해 여성 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달성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 면접위원 의무화, 여성 채용비율 향상, 육아휴직기 재임기간 인정 등 승진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관리자 확대, 여성 핵심보직 부여 등 여성 인력 활용 확대에 노력하였다.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여성 참여 의무화와 함께 여성 임원 비율을 정부 지침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채용과 관리자 승진 등에 있어 여성 인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인사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여성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임원 비중을 확대하고, 여성임원에 대한 직무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들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직무체계 설계, 일반직과의 차별 없는 보수·처우 개선, 전환자의 명칭 변경, 경력재산정을 통한 하후상박형 임금체계 설계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고졸자·기간제·공무직 인력에 대한 차별 개선 과정에서 인사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체계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환자·기간제·고졸자 등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 향상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공무직·기간제 직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전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적용을 내실화하고 전환인력과 기간제 직원 등에 대한 직무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등에 따라 재취업 교육 이외에 적합직무 개선 및 인사관리상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6) 안전 및 환경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환경 보전 사업과 활동을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에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과 성과를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의 구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 목표가 보다 체계적, 세부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보전 사업 수행을 책임지는 부서 내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경 보전 사업의 추진 과정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 많은 기관들이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책임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많은 기관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시스템이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되었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연도별 실천 과제와 방법, 성과 목표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안전 업무가 일부 부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 타 부서와의 업무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통해 업무 부담 감소와 상호 교차 모니터링의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와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많은 기관에서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직원 및 업무 담당자의 재난 및 안전 대응능력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가 및 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 지점이 제도 및 환경 개선으로

보다 빠르게 연계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교육을 넘어 교육성과가 지속적, 단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 많은 기관들이 기관 청사, 시설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많은 기관들이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한 응급 조치 및 구명 설비를 확충하거나 장애인, 임신 중 여성 등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을 확충하였다. 다만,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 이에 기초한 대책 마련은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재해 또는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한 기관 폐쇄를 대비한 위기 관리 플랜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 많은 기관들이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및 지침 마련,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사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관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하청업체, 발주 현장 등 간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다만, 사무직 직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였고,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관리 실태 평가에서 비교적 양호한 관리 실적을 달성했음이 확인된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공 정보 보안이라는 공적 의무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또한 법령, 지침 등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공공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대다수 기관들은 전사적 차원의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사회혁신플랫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전지역 신시장 확대,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내실화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들은 고유사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지역현안과제 해소를 위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다자간 공익거래모델을 구축·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의 협력적 모델을 운영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소재 지역 혹은 이전지역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책임활동에 대한 국내·외 인증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들은 용역·위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범거래모델 적용,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개선, 수의계약 기준 강화, 자금 적기결제 및 선금지급율 상향, 공동도급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업체 대상 의견수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계약대상업체 다양화 및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위탁·구매계약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청·하청업체 간 공정거래질서 강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노력이 핵심지원사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확산과 유인체계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들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금융·판로 등 패키지형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 고도화에 노력하고, 혁신성장 투자전략을 보완하는 등 R&D 사업화 지원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육성에 노력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기술사업화 등 지원사업의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R&D 지원기업 혁신성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대상 규제 샌드박스 적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들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전지역 기관들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들의 경우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핵심지원산업분야에 있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전략과 연계한 권역별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윤리경영

○ 대부분의 기관들이 준법·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윤리경영 전담조직 체계 확립 및 관련 규정과 지침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 있어서는 기관별 편차가 존재하였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윤리경영의 노력을 기반으로 등급이 상승하였음에 반해 적지 않은 기관에서 등급 하락 및 점수상에서의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윤리경영 교육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관이 교육 실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많은 기관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환류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많은 기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인사채용을 위한 지침 제·개정을 비롯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 과정에 대한 전

면적인 검토와 함께 몇몇 기관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 pool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갑질 근절을 위한 기관별 노력이 추진된 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에 대한 인식과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록물 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담자를 두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 전담자가 부재하거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감사 부서 운영을 통해 내부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와 평가의 독립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감사전문자격증 취득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기관이 사후 감사 및 그에 따른 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에서 일상감사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사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에서는 자율 정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체적인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게 하여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인권 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있어서는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설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구성원에 대한 인권경영 교육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어 인권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단계에 있는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로드맵 부재와 함께 기반을 다지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노력이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내재화를 위한 다각화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인권 취약 분야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 대부분의 기관들이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불어 핵심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많은 기관에서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기준과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인력배분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략적 방향성을 고려하여 변화를 지향하는 측면으로 단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 과정에서 역할 및 책임 규정이 명확치 못하여 비효율이 야기될 수도 있으며 빈번한 조직개편은 구성원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임시조직의 활용에 있어 일부 기관에서는 과다한 운영이 일부 기관에서는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의 검토가 요구된다.

○ 많은 기관에서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교육 설계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수의 기관에서 교육 관련한 예산이 축소되는가 하면 구성원들의 교육에 대한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운영이므로 이에 대한 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교육의 환류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는데 교육의 시행 못지않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 정비를 위해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합리적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영전략과 연계한 성과지표 구축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를 연계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다면평가 시행 및

운영에 있어서의 미흡함이 확인되었는데,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피드백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체계 연계에 있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동기부여 촉진이 미흡한 성과급 체계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기관들의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인력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시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순환보직에 있어서 많은 기관에서 제도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미비하거나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활용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역량 모델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제도 구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나 활용률이 저조한 곳도 있었으며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및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도 존재하였다. 이에 기관에서는 제도 자체의 구비보다는 실질적인 활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환류 제도 정비를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의 복직 과정에서의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대상자 포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요구되며 더불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보수·복리후생

○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자문, 컨설팅, TFT 등을 추진하여 개선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원 설명회, 간담회, 노사협의 등을 진행한 실적도 확인된다. 그러나 보수 체계 개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협의 내용이 실질적인 보수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수 체계는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경직적 태도로 인해 변화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어서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 및 로드맵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그 실행 방법, 성과 목표 등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 많은 기관들이 연공성 완화를 위해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을 추진하였다. 물론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이 연공성 완화의 효과를 일부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연공성 완화를 위한 보수 체계, 항목 등의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경영 목표, 사업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보수 체계 운영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보수 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를 제도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많은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보수 체계 개편,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였고 정부 정책 방향 및 지침에 근거해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였다. 또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의 적정 편성과 집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 내부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하였다. 다만, 기관들은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합된 직원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리후생제도 개선 과정에서 신입 직원이나 시니어 세대와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적합 직무를 추가 개발하거나 근로시간을 임금삭감액에 대응해 조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이 확인된다. 특히,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타 기관에 파견해 타 기관의 인력 수요와 대상자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는 기관도 확인되었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11) 노사관계

○ 노사관계는 단기간의 사업과 활동을 통해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목표 및 비전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로드맵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노사 양 당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 진단,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 단계별 추진 전략, 실천과제, 성과 지표 등을 세부적,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않았다. 또한 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구, 프로세스 등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않았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우 다양한 의사소통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다만, 많은 기관의 인사위원회, 이사회 운영 등에서 직원들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의사소통제도를 통해 발굴, 취합된 직원들의 아이디어, 고충 등 의견이 실제 제도, 규정 개선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프로세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의사소통제도가 중첩적으로 운영되어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기관의 일부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분산되어 있는 직원들과 의사 소통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노사관계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였다. 많은 기관들이 교육 내용에 최근 법 제도 변화를 반영하거나 교육 대상자별 역량에 맞춘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보다 차별화, 다양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고 경영진이 교육에 참여하여 노사관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복수노조로 인해 타 기관에 비해 갈등 요소 및 노사 이슈가 많은 기관의 경우에는 이 같은 기관의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정기 노사협의회의 개최 횟수, 참석률, 협의 안건, 협의 결과 등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운영 실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을 통해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노사협의회와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다른 협의 기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상호 관계를 재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충실한 논의를 위해 사전 논의 및 준비 프로세스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논의 및 결정 사항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노사협의회가 수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12) 혁신노력 및 성과

○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 경영 전략과 연계한 혁신전략 체계 수립 및 혁신과제 도출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정합성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전략과의 연계성 관리 및 운영에 아쉬움이 남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혁

신전략 체계 수립 및 과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있어서는 기관별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주도하에 강력하고 체계적인 혁신 조직 운영이 이루어진 반면에 일부 기관에서는 특이할만한 활동이나 성과가 없이 기존 관행의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혁신 경영이 이루어진 곳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혁신에 있어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기관장의 혁신 경영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많은 기관에서 혁신 추진 조직 구축을 위한 혁신전담조직 신설 및 지정이 이루어졌으며, 기타 혁신 추진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등 혁신을 위한 조직 정립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대부분의 기관에서 혁신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혁신 마일리지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과 포상 등이 이루어져 혁신활동을 뒷받침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구성원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기관들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기관의 혁신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교육 운영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교육 시기의 분산 및 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금전적인 보상을 통한 혁신 촉진을 넘어서서 자율적인 혁신 제안 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 다양한 대내외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내적으로는 TF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운영과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이 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다한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것이 적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구성원의 혁신 피로도 증대 우려는 기관이 장기적인 혁신 운영을 위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일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혁신네트워크의 정비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실질 성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업무 경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대내외 혁신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적지 않은 기관에서 이해관계자 대상별 적합한 소통채널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힘을 쏟았으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대국민 대상 소통에 있어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더불어 각 소통채널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은 기관에서 기관 혁신 운영에 있어서 대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시민참여혁신단을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국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통을 통한 기관의 실질적인 혁신 경영에의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시민참여혁신단의 형식적인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국민 대상 환류 체계의 미비로 이에 대한 기관의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더욱이 몇몇 기관의 경우 지방이전 등의 이슈로 기관의 지역주민 및 국민에 의한 인지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 및 소통채널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대국민 정보 공개 확대에 있어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공개율 증가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원문공개율 성과에 있어 현재까지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다.

○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의 성과에 있어서는 대체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중점 추진과제에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중점 추진과제 선정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대체로 많은 기관들이 중점 추진과제 성과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이 미비하였으며 우수한 성과의 대외적 확산 노력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성과 점검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및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범주(계량)

(1) 종 합

○ 당기 강소형에 포함된 기관은 총 43개로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 4곳이 강소형 유형으로 편입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위탁집행형 유형에서 이전되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집행형 유형으로 이전되었다. 전체 지표(43개 기관)의 평균 득점률은 90.818점으로 전년도(43개 기관)의 91.527점보다 0.709점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개별 기관별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97.617점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6.575점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전년도 대비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그 중 아시아문화원이 가장 높은 상승률(13.195%)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도 득점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나머지 17개 기관은 전년도 대비 득점률이 하락하였는데 그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장 높은 하락률(△24.816%)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 지표별

○ 강소형 유형의 경영관리 성과를 사회적 가치 구현, 경영정보공시점검 및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가치 구현의 평균 득점률은 90.432점으로 가중치 7점에서 6.33점이 득점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득점률 99.07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64.014점으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고객만족도의 평균 득점률은 94.3점으로 전년도 89.5점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득점률 100점으로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국립생태원이 득점률 82.4점으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경영정보공시 점검의 평균 득점률은 78.3점으로 전년도 83.8점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100점으로 만점을 기록하였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50점을 득점하여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2019년 경영관리 계량 평가분야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가중치 5점) 지표가 존재한다.

- 해당 지표 평점은 72.22점으로 전년도 71.5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의 경우, 강소형 43개 기관 중 건강증진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제외한 41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사업 범주(비계량)

(1)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기관들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별 목표를 고려하여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설립목적과 비전, 주요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기관은 주요사업에 부합하는 지표를 구성하였고, 주요사업 지표가 주요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는 양적 성과 위주이고 실적 산정의 적정성이 미흡하여 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기관의 사업 노력과는 관련성이 낮아 지표구성의 적정성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따른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일부 기관의 경우 지표 구성의 항목이 주요사업 수행 노력과 성과의 일부만을 담고 있는 경우는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간 가중치 등의 배분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 사회적가치와 정책적 중요도 등 기관의 업무의 비중에 따른 보다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기관이 계량지표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여건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표관리의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과지표의 성격을 갖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유사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려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지표의 목표부여 방식에 있어서는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목표대실적, 중장기목표부여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다만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의한 목표대실적 혹은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되는 일부 지표는 비록 합리적으로 목표가 설정은 되었으나 목표의 도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되는 지표 중 임계치에 도달한 지표는 이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지표 계산을 위한 데이터에 있어서는 국가통계,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고자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 기관의 경우 성과 데이터 누락, 데이터의 중복 계상 등 계량지표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기관들의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들은 설립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였고, 주요사업별로 성과목표의 도출 및 지표 Pool에서의 SMART 및 정책적 중요도, 사회적 가치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성과지표의 선정 과정이 대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선정에 있어서도 중장기경영목표, 과거 추세,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외 우수기관 비교 등을 고려하였으며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중장기목표부여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도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기관들은 주요사업들 간에 사업내용이 다소 중복되어 있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성과지표 선정과 실행과제 도출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요소가 주요사업 내용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들은 주요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긍정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의 기관이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주요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DCA 절차에 따라 각 주요사업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집행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의 주요사업 집행 노력은 인정되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노력과 성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수의 기관들은 비계량 성과지표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과지표에서 달성한 실적은 기관의 당해연도 및 중장기 경영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요사업 계량지표와 동일한 지표를 비계량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비계량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계량적 성과 위주로 성과가 제시되어 질적 성과 측면에서 당해연도 기관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류활동 측면에서 다수의 기관들은 사업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국회, 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는 바, 전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환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적사항이 기관의 주요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환류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주요사업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활동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류 노력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기제 및 주기 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기관의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한 세부사업의 원인 분석 및 성과 달성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고, 이의 결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점은 적극적인 개선 및 보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주요사업 실행의 모니터링 및 환류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주요사업 범주(계량)

(1) 종 합

○ 강소형 기관들은 2019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로 최소 3개 내지 최대 7개 정도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평가방법으로는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중장기목표부여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주요사업별 계량 가중치는 모든 강소형 기관에서 31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 2019년 주요사업 계량 평가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기지술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

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2018년도와 비교하여 강소형 기관의 평균 득점률이 3.73%p 상승하여 기관의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계량지표의 도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강소형 기관의 득점률은 평균로 95.19%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이 100%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90%이하의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고 창업진흥원이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5. 혁신성장 가점

(1) 혁신성장

○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기관의 비전과 미션, 전략에 기초하여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 수립과 중점사업의 선정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고, 8대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분야의 혁신성장 수요 창출 성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의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성과가 두드러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인정된다.

○ 다만, 일부 기관은 공공서비스 측면에서의 혁신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과 성

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혁신기술과 연계하여 기관의 주요사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보유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공유 개발을 통해 민간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혁신성장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모든 기관들이 향후 이러한 혁신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립생태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65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5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944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491
주요 사업	1. 생태가치전달 확대				
	(1) 생태가치전달 확대 성과			9	6.612
	(2) 생태가치전달 안전성 확보 성과			2	1.960
	2. 생태교육 참여 활성화				
	(1) 생태교육 참여 활성화 성과			7	6.887
	3. 생태 연구활동 활성화				
	(1) 생태 연구활동 평가 및 관리 성과			10	10.000
	(2) 생태 연구실적 활용 성과			3	3.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립생태원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조직운용 방향으로 생태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도출하고 연구업무 조정, 전시교육 및 안전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 및 인력 보강을 실시하였고, 국가정책 추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립습지센터 이관, 안전경영부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이 다양한 목소리를 혁신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들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노력은 인정된다. 생태교육과 관련된 각종 문의를 24시간 안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인 '챗봇 안내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생태해설 서비스로서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해설사의 음성해설을 문자로 변환·제공하는 앱서비스인 '쉐어톡' 활용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고유사업인 습지센터 및 외래생물연구, 생태조사 및 평가·연구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채용형·체험형 청년인턴 89명, 고용 및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서의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사업 방향성과 자원투입에 대한 비중 등 사업과 자원 배분에 대한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며,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별 니즈 반영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내부견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노력, 성과코칭, 직무역량 향상 교육, 저성과자의 체계적인 관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립생태원은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96.489%,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100%,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38.241%를 기록하여, 목표대비

88.533%를 달성하여 2.656점(만점 3.000)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에서 모두 100%를 달성하여, 1.000점(만점 1.000)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100%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목표에 미달된 71.890점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전년 3.000점에서 소폭 하락한 2.944점을 획득하였다. 2019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1.394%로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인 1.8% 이내로 집행하여 평점 100점, 최종 3점을 득점하였다. 경영공시 항목 대상 일제점검 결과 부여된 벌점 17.5점으로 경영정보공시는 0.667점을 득점하였다.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1.607점으로 평점 82.400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립생태원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여건, 정부정책, 국민의견 등 대내외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생태가치 전달 확대 사업', '생태교육 활성화 사업', '생태연구 활동 활성화 사업' 등이며, 각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연계, 사회적 가치 및 SMART 평가 등의 적합성 분석을 수행하여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다만 대상사업 비계량지표의 목표수준을 전년도 추진성과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수준의 차년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평가대상사업의 전년도 주요 성과를 활용하여 차년도에 반영할 환류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자체평가 분석결과를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성과의 확산 및 개선을 도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효율적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지표 발굴을 위한

환류 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벤치마킹 대상기관과의 GAP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추가로 catch-up 전략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의 총 5개 계량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관의 주요사업과 계량지표가 전반적으로 적정한 연계성과 대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지표의 성격을 갖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한 인정되며, 유사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려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대표성이 미흡하므로 주요사업을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 평가방식을 바꾸어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립생태원은 2019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생태전시사업의 '생태가치전달 확대 성과' 지표와 '생태가치전달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73.47%, 98.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생태교육사업의 '생태교육 참여 활성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98.39%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생태연구사업의 '생태연구활동 평가 및 관리' 지표, '생태연구실적 활용 성과'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1.80%인 28.459점으로 평가하였다.

2. 국제방송교류재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D^+	3	2.49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8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D^+	3	2.956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1	0.834
주요 사업	1.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				
	(1) 해외 시청자평가지수 달성도			11	11.000
	(2) 한국뉴스 글로벌 영향력 강화 성과			5	4.126
	2. 미디어 국제교류 사업				
	(1) 아리랑 TV 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13	13.000
	(2)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2	2.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2**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영어 재난방송 100% 수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난방송 부문 3년 연속 무결점을 받았고, 재난예방 주무부처와 TV안전 콘텐츠 협력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인력구조 특성과 수요분석을 통한 정현원차 최소화 노력으로 2019년 정현원차를 0.7명으로 줄인 기관의 노력, 온 에어 콘텐츠 제작 강화, 중화권 중심의 미디어 사업 강화 등을 통해 21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 방송제작 프리랜서 19명의 정규직 전환 채용으로 프리랜서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원 및 자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협업공공기관, 국회, 언론, 대국민 등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소통목표와 소통체계를 정립하고 제도화된 채널을 운영한 기관이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소통채널을 더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재난안전, 지역사회, 인권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감사인력의 맞춤형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실의 역량 또한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기관은 스마트 워크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근 등 보다 다양한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구축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총인건비 관리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평점 100점, 득점 3점을 획득하고 경영정보공시도 평점 83.4점, 득점 0.834점을 획득했으나, 나머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득점률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평점 83.2점, 득점 2.496점을 획득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서는 평점 80점으로 득점 0.8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평점 98.533점으로 득점 2.956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 제외 기관으로, 결측 처리되었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주요사업으로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 해외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선정하고, 전략적 중요도, SMART 분석 등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의 주요 업무와 사회적 가치 구현 간 연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해외미디어 플랫폼 사업의 성과목표로 '청취자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확대'를 제시하면서 성과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를 달성을 위한 5개 의제 전문 기자부 구성 및 운영과 #Korea4.0, Peace & Prosperity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해외 시청자평가지수'를 신설한 점은 긍정적이며, 또한 스마트폰 취재 시스템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을 완료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자체개발한 영어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확보된 개발소스(S/W)를 방송사에 무상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기관의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2개 주요사업의 총 4개 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목표를 고려하여 계량지표를 설정하였고, 기관의 주요사업과 계량지표가 전반적으로 적정한 연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대표성이 미흡하고 산식의 구성이 주요사업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실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산식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평가방식을 바꾸어 목표 수준의 도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2019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의 '해외 시청자평가지수 달성도' 지표와 '한국뉴스 글로벌 영향력 강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100%, 82.5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해외 미디어 플랫폼 사업의 '아리랑TV 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지표와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7.18%인 30.126점으로 평가하였다.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	3	2.78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	1	0.855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3.00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72
주요 사업	1. 국토교통산업·기술 기획·관리 역량 강화				
	(1) 국토교통분야 기획 기능 강화			11	10.028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2. 국토교통산업·기술 성과 창출 및 확산				
	(1)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노력			12	12.000
	3. 국토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				
	(1) 국토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창출 노력			5	5.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D^+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자는 취지에서 기관 설립목적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재설정했다. 그 결과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을 고려하되 국민편의라는 추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영목표와 실행과제 위주로 가치체계를 재구성하여 기관 경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기관장이 주도하는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일자리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양성과 채용연계사업을 강화함은 물론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향후 이행과제에 대한 성과점검과 사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와 여성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 한 점도 인정된다. 또한 AI전형시스템을 활용한 직무맞춤형 채용시스템을 강화하고, 채용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나 향후 정규직 전환자,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사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CEO 점검, 사업장 위험성 평가, 민방위 훈련 및 안전 교육, 임직원 심리상담 등을 집중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 의식 및 역량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6개 혁신도시와 연계된 권역별 지역현안 연계 R&D를 추진하고, 용역사업의 공정성 향상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도 긍정적이다. 향후 소재 지역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R&D 사업화 지원성과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투자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 획득 및 권익위 청렴도 2년 연속 우수의 성과 등 긍정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윤리경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연구비 관리에 대한 기관의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기관은 핵심사업 인력강화와 경영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과 평가체계 전면에 있어서 개선을 추진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면평가 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저성과자 관리 및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의 세부적인 실행 방법, 성과 목표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 협의와 소통, 근로자 경영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다양한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의 빈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혁신수준 진단의 환류체계 강화 및 내실있는 혁신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득점률은 95.092점으로 2018년 득점률 93.369점 대비 소폭 향상되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6.639점(7점 만점)으로, 세부지표인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0.855점(1점 만점)으로 전년도 0.660점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200% 고용하여 0.5점 만점을 획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각각 2.784점(3점 만점), 3점(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보수와 복리후생비 지표의 총인건비 관리도 전년과 동일하게 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는 1.772점(2점 만점)으로, 경영정보공시의 경우 벌점 1.5점으로 전년도 6.5점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점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0.834점(1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 지수는 0.938점(1점 만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0.932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국토교통산업·기술기획·관리 역량 강화', '국토교통산업·기술성과 창출 및 확산', '국토 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P-SMART, 전략연계, 통제가능, 그리고 사회적 가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창출 지원 세부사업을 통해 미래 국토교통산업을 이끌어갈 청년과학자 양성과 연구자 재취업 프로그램 등에서 취업률과 청년과학자 채용이 증가하였고, 국토교통 R&D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점은 우수 사례로 판단된다. 다만,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 정부 정책, 경영환경, 사업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부사업별로 정책요구와 고객니즈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 내재화 관점에서 기관의 성과목표와 사회적 가치 간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도출 과정이 누락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사업 전략 및 실행계획'에서 중장기 추진 계획(또는 로드맵) 도출이 누락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요인 도출'과 '긴급현안 대응'에서는 각 세부사업별로 대응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기관의 사업 노력과는 관련성이 낮은 지표로 구성되어 지표 구성의 적정성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3개 주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계량지표 개발을 통해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실적 산정시 실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타당한 수준의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2.67%p 하락한 96.86%를 기록하였다. 국토교통산업·기술 기획·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국토교통분야 기획 기능 강화' 지표와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1.16%와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토교통산업·기술 성과 창출 및 확산사업의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노력' 지표와 국토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의 '국토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창출 노력'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728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627
주요 사업	1.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				
	(1) 도농교류 확대 및 소비 활성화 성과			6	4.754
	(2) 귀농귀촌활성화 성과			7	6.148
	2.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1)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10	8.600
	3.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				
	(1)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성과			3	3.000
	(2) 농식품 IT 융합모델 확산실적			5	4.651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핵심사업 인력 증원, 교육개선을 통한 직원 전문성 및 현장성을 강화하고 핵심농정과제 지원기반 강화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동물보호 복지 상담센터 운영, 농업경영체 ICT 도입, 스마트팜 빅데이터 운영 등 농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직접적인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경영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직·기능분석, 의견수렴 등을 기초로 미래대응 조직 정비, 현장 중심의 조직 강화, 기관 공공성 강화를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탄력적 조직 및 인력 운용을 병행한 조직 및 인적자원 재정비를 추진한 노력도 인정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것, 노사현안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가저축제 도입, 공무직 직무분석 및 보수체계 개선 성과를 도출한 것,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독려한 것, 농산업창업정보포털시스템 및 현장·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의견을 반영한 것 등도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성과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다 도전적이고, 단계적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아이디어 공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민간의 혁신 및 포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율 96.114점(만점 100점), 득점 6.728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3.000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1.0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중치 3점 중 2.728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지표는 평점 88.000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지표는 평점 45.152점, 장애인생산품 지표는 79.260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지표에서 1.627점(만점 2.0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0.071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미션, 비전과 사회적 가치에 근거하여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사업', '창의적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 그리고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 사업'을 3개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 성과목표는 경영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도출하였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지표 풀을 구성하고 EPIS-SMART 기준에 따라 핵심성과 지표를 도출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였다. 기관은 PDCA 절차에 따라 각 주요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성과목표 도출, 지표선정 자원배분 등 사업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사업은 전역예정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소자 등에게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으로 재취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고, '창의적 농업 전문 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농산업분야 취업 및 영농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해소 및 농산업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에 기여하였다. 다만, 사회적 가치가 고도로 반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대비 효과성과 목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개 주요사업에 총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사업'의 '도농교류 확대 및 소비 활성화 성과소비확산' 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관의 실적을 측정하고자 한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사업의 지표들을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도전성이 인정된다.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경우 농고생의 대학 진학 선호로 인한 농산업 취·창업률 감소로 사업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도전성이 인정되나, 산출위주로 구성된 각 지표들을 결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지표의 농업인 소득 증가 기여율과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 사업'의 공공·빅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개선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19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행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의 '도농교류 확대 및 소비 활성화 성과' 지표와 '귀농귀촌 활성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각각 79.23%, 87.83%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86.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스마트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의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성과'와 '농식품 IT융합모델 확산실적'에 대해서는 각각 100%, 93.0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 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87.59%인 27.153점으로 평가하였다.

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31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894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562
주요 사업	1. R&D 관리체계 고도화				
	(1) 농식품 R&D 지원 효과			8	8.000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2.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				
	(1) R&D 사업화 성과(기술이전실적)			9	6.530
	(2) 농식품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반 조성			5	5.000
	(3) R&D 사업화 성과(지식재산권 실적)			6	4.6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회적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가치 위원회의 설치 등 추진체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 결과 4개의 신규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병렬적으로 추가한 결과 효율성과 공공성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도 추가로 필요하며, 이러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실행에 옮길 성과관리 시스템의 합리적 구축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조직발전을 위한 합리적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업무프로세스 혁신 노력도 간소화 절차 관점에서 요구된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전략을 보완하고, 전사적 차원의 일자리 추진체계 정립에 노력하였지만, 향후 핵심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 증원 등 정·현원차 최소화 및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내부일자리 확대가 요구된다. 채용비리 신고 홈페이지 안내 강화 등 공정채용 강화에 노력하고, 고졸자·기간제·공무직 인력에 대한 차별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여성인력 활용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안전을 중시하여 임신 중 여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해 별도의 장소에 데이터 금고 센터를 구축하고 청사 및 전산 장비 파손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 점은 우수 사례로 판단된다. 상생협력 관점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정한 협력·위탁계약을 위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전략에 대한 보완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전 직원 인권교육 시행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제고에 대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영향평가 환류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경영전략과 HRD 시스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직무역량 교육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훈련에서의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과 동시에 직무에 대한 역량모델링 및 성과급 체계의 정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경영 목표, 기관 사업의 특수성 및 공공성, 업무 및 조직 구성 등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체계 및 항목을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 직원근무환경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직원 복지, 근무 환경과 관련해 노사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기관장의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연구 행정 간소화의 시스템적 구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혁신 협의체의 성과 점검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함께 교육 체계 환류에 있어서의 기관의 검토가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평균 득점률 88.743점으로 6.212점(7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미흡하여 득점률 77.267점으로 2.318점(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및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및 여성기업생산품 구매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그 외 구매실적은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1.8%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1점으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하여 0.667점(1점 만점)을 득점하였고, 고객만족도 결과지수는 0.895점(1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0.041점 상승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R&D관리체계 고도화',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의 2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동력 R&D 사업을 기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식품 R&D 성과를 발굴하는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R&D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에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 중심 R&D 기획의 성과가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 사업으로 연계되어 주요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PDCA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을 포함한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및 개선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환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평가대상사업별로 현안사항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한 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세부지표 도출시 해외 선진기관을 벤치마킹하고 Gap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세부사업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적 산정시 기관의 당해연도 노력과 관련이 낮은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타기관 유사지표의 실적 산정 방식과 같이 최근 일정기간내 지원했던 과제의 성과에 한정하여 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7.21%p 하락한 87.52%를 기록하였다. R&D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의 '농식품 R&D 지원 효과' 지표,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사업의 'R&D 사업화 성과(기술이전실적)' 지표, '농식품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반 조성' 지표, 'R&D 사업화 성과(지식재산권 실적)'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각각 72.56%, 100%, 87.52%를 달성하였다.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	3	2.75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953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834
주요 사업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6	6.000
	(2)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성과			5	4.227
	2. 농산업체 성장 지원				
	(1)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10	10.000
	3. 고품질 분석·검정 서비스				
	(1) 농자재·농업기계 소비자불만 지수			1	1.000
	(2)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실적			4	4.000
	4. 신품종 종자·종묘 증식 및 보급				
	(1) 쌀 대체작물 종자 보급률			5	4.047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대외적인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농업소득 증대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국민의 요구, 내부의 의견, 정부정책 방향의 변화, 신기술이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였고,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확보되고, 국정과제 추진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新가치체계의 대내·외적 공유와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대부분의 핵심성과지표에서 목표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었지만, 쌀 대체작물 종자 보급률(%) 지표는 기관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축소와 쌀값 상승에 연동되어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부진지표 관리체계와 대체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관은 일자리 추진 로드맵을 전년에 수립한 일자리 창출의 전략체계를 평가·환류와 사회적 가치 전략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기관이 추진전략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성과측정과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일자리 창출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채용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인재채용과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속적으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리매뉴얼을 반영한 모니터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기존의 기관장 주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전보건에 있어서 주요 조직으로 운영하였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하였으나, 전년도에 있었던 업무상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검정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중심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실제 책임감있게 주도할 수 있도록 기관내 조직과 인력의 조정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해 '2019년 준법윤리 新체계' 추진전략을 구축하여 실행과제 및 실천조직을 체계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환류체계를 강화하였다. 인권경영 차원의 기관내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전 구성원의 공감대와 소통을 통해 체화될 수 있도록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조직·인사와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를 창출하는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가치와 경영목표 및 환경분석을 실시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방형계약제의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용절차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직능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고, 직책급 수준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다. 단계적 점진적 직무가치,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의 개편을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중장기 전략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다각적 소통·협의체계 신설과 인권, 사회적 가치, 안전, 근로조건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의체 운영으로 노·사간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고 기관의 인력구조와 사업장 산재(散在)의 현황을 반영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혁신의 비전 및 목표 체계와 혁신 사업체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고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 기관은 외부의 시민참여혁신단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공동학습그룹, 참여형 전문가단을 운영하였다. 이들을 통한 과제발굴과 참여를 통한 혁신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내외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산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정책협의체"를 비롯하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마련한 성과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득점률은 96.158점으로 2018년 득점률 92.469점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목표 달성 등에

따라 득점률 91.733점을 획득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지표는 모든 세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생산품 구매실적 이외의 모든 세부지표에서 만점을 달성하여 평점 98.433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1.8%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고,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2.0점으로 전년 벌점 9.5점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득점구간이 동일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0.834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13개 사업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9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설정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1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농산업체 성장지원, 고품질 분석·검정 서비스, 신품종 종자·종묘 증식 및 보급 등 4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 성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업 추진은 주로 현안과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실행과제가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시된 추진내용과 개선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사업 성과지표 총 39개(계량 28개, 비계량 11개)개 중 계량지표 26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큼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제시된 목표 외 목표 산정 근거, 사업여건, 전년 대비 개선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는바, 전반적인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비용절감 등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증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3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 3개, 목표부여(편차)방식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지표 및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성과,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농자재·농업기계 소비자불만 지수 및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실적, 쌀 대체작물 종자 보급률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4.43%를 기록하였다. 총 4개의 성과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지표,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농자재·농업기계 소비자불만 지수 및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실적이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쌀대체작물 득점률 80.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C	3	2.53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D^{+}	1	0.59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C	3	1.361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1**	0.667
주요 사업	1. 건설기계검사				
	(1) 건설기계검사실적			12	9.926
	(2) 건설기계검사 미수검률 저감			7	7.000
	2. 건설기계 형식신고				
	(1) 건설기계형식신고 실적			3	1.210
	3.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1)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실적			5	3.141
	(2) 기관 내 무사고 달성 노력			4	4.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2**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설립목적에 기반하여 국정운영방향,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 가치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였다. 그에 따라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였고 가치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기관은 新경영목표를 달성을 위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핵심성과지표(KPI)와 연도별 목표수준을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이 설정한 계량 성과지표는 달성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도 기관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관비전에 따른 일자리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고, 성과 점검체계와 모니터링 체계도 적절하게 구축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기관의 인력구조, 재정상황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정현원차 결원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공정한 채용과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속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중심으로 세부 인프라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광투과식 배출가스 측정기를 개발하여 건설기계의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과는 기관의 업무 분야에 있어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이다. 타워크레인 사고에 의한 사망자의 발생 급증 등에 대하여 타워크레인안전실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성과이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의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기반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상생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공정한 경영 강조’하는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취약분야 개선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재도약 전략을 구축하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Clean KCESI 구현을

위해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였고, 규정강화, 부패예방시스템 강화, 윤리의식 내재화, 민간확산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하고자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사관리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내용부터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한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기관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공공행정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조직쇄신(윤리경영, 안전, 사회적 가치, 기획예산, 노무복지 등)및 기관현안인 재정안정화, 법적지위 확보, 건설기계 사고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맞춰 미래 산업을 대비한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구성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계될 필요가 있다. 기관이 도입을 추진 중인 직무급은 직무급이라기보다는 직책급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직무분류, 직무등급평가 등 직무급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준정부기관 대비 낮은 수준의 급여와 금전적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노사상생 실천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에 노사관계 갈등지수 KPI를 설정하여 노사상호 간 이해관계 충돌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노사공동위원회, 주니어보드, 권역별 현장대화, 등 양방향, 상향식 소통 채널의 운영으로 미래발전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공감과 소통을 추진하였다. 기관의 혁신과제 발굴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 및 외부의 위원회 및 참여 주체들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기관은 검사 점검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19년도 신규 준정부기관으로 당년도 처음으로 경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4.481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고 평균득점률 기준으로 64.014점이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지표(경영정보공시)에서 0.667점 (만점 1.0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 연구 및 기술지원, 건설기계 관리효율화 및 안전도 유지, 양질의 기술서비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관은 '건설기계검사 사업', '건설기계 형식신고 사업',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 사업' 등 3개 주요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도 제시하고 있다. 기관은 주요 사업추진에서 고위험 타워크레인 중점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합동 안전지원체계 수립, 안전보건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안전점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신 장비 도입 등에서 성과를 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성과목표 전에 선정되는 데 있어 선정 이유와 근거 설명 등이 미흡하며 SWOT 분석을 통해서도 실행과제 도출의 상위개념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과정과 추진체계는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주요 사업과 계량 지표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주요 사업에서 비계량 성과지표의 성과분석과 성과달성수준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활동을 하였지만, 전년도 평가단에서 지적한 기관선정 주요 사업 선정기준과 선정 경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요구에 대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 사업의 PDCA 관점에 의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문이 생략되어 있어 이의 구체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이 3개, 목표부여 1개, 목표대실적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건설기계검사 실적, 건설기계검사 미수검률 저감, 건설기계형식신고 실적,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실적, 기관 내 무사고 달성노력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81.54%를 기록하였다. 건설 기계검사 미수검률 저감성과 득점률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설기계형식신고 실적 성과가 득점률 40.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8. 독립기념관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69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0	B^0	3	2.713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85
주요사업	1.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 전시				
	(1) 독립정신 확산 전시콘텐츠 활용 성과			10	9.400
	2.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1) 나라사랑 가치 전달 확대 성과			8	8.000
	3.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1)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7	7.000
	4.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1) 여가문화 활성화 성과			4	4.000
	(2) 관람객 안전사고 감축 노력			2	2.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독립기념관이 사회적가치 실현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국민 의견수렴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고려해 사회적가치를 업의 특성에 맞게 재정의 하고 과제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지역청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의견수렴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TF 운영 등의 이해관계자 니즈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실행력을 제고한 것,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존 영상관을 4DX 상영관, MR 체험관, VR 체험관 등 프리미엄 입체 영상관을 조성하여 혁신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 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전시 관람객, 교육 참여자, 야외 관람객 대상별로 위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다양한 안전관리를 시행한 것,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진행과정에 평가위원의 위촉규정 개정, 채용결과 이의신청제 신설, 채용만족도 조사 등을 운영한 것, 국내독립운동사 지역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유럽, CIS 재외동포재단 교육활동, 독립유공자 후손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증액한 것등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의 노사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하여 근로자 경영참여를 강화한 것, 노사공동 참여형 협의체계 운영을 통해 직급체계 개선, 공무직 처우개선, 고객접점 근로자 보호, 고졸 적합직무 개발 성과를 낸 것도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정보보안관리 실태조사 결과 지표가 하락하고 있어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새롭게 도출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채용 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기관의 보유자원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 수요 분석을 반영한 중장기적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독립기념관의 득점률은 92.458점으로 2018년 득점률 92.377점 대비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89.900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평점 99.669점,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격년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에 따라 올해는 득점하지 못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전년에 이어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4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중소기업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보다 하락하여 평점 90.43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1.007%로 1.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4.5점을 부과받아 평점 83.400점 득점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하락한 87.325점으로 평점 85.1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독립기념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전략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였으며, 고유 핵심기능, 전략과제,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발굴한 현안 과제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전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여가문화서비스 제공’ 등이며, 각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연계, 사회적 가치 반영 및 SMART 분석을 통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세부 개선항목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환류 활동 강화에 의해 다양한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사업범위 별 각각 1개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였으나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측면에서는 성과지표 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표 설정 환류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성과 목표를 산출지표로 설정한 경우 실질적인 기관의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4개 주요사업에 총 5개의 계량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략연계성, 사회적가치, 미래성장성에 따른 중요도를 산정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배분하였다. 특히 주요사업 중 교육, 전시, 연구 사업은 서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세부지표의 경우 세부사업 요소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지표의 적정성이 미흡한 동시에 목표치 산출에 있어서 도전성 또한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표 개선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독립기념관은 2019년도의 경우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전시 사업의 '독립정신 확산 전시콘텐츠 활용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94.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의 '나라사랑 가치전달 확대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독립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사업의 '독립운동사 연구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사업의 '여가문화 활성화 성과' 지표와 '관람객 안전사고 감축 노력'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도를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점수는 총 31점 중 30.400점으로, 총 달성도 98.06%로 평가하였다.

9. 시청자미디어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7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0}	1	0.962
	(3) 안전 및 환경	5	E^{+}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974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67
주요사업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10	9.280
	2. 시청자미디어교육 확대				
	(1)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8	8.000
	(2) 국민안전			2	2.000
	3.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개선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제고			8	7.474
	4.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3	2.541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국민 안전,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공동체 복원, 공정·상생이란 핵심 추진가치를 수립하여 시민적 권리로서 참여의 실현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을 위하여 장애니 방송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사회적가치 혁신팀을 조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단 내 사회적가치 실현 강화를 위해 대내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가치의 성과 확산과 상생협력을 강화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재단의 조직 구조 특성상 여러 지역에 산재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갈등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 소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행하였고, 시청자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지역시청자미디어 센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노력도 인정된다. 그리고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ICT 분야 청각장애인 자막·수어 시스템 개발, ICT 기반 방송시장 조사분석 시스템 개발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 노력과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부패행위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전담조직을 구성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은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정보보안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최하위 수준으로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새롭게 도출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전년도의 조사결과에 비해서 직무 및 배치, 보상, 근무제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노사가치관, 비정규직 고용관계, 청년근로자 고용관계, 직장만족 전반 등 대다수의 점수가 하락하는 등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관은 노사관계 역량 중장기 육성체계를 재정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노사관계 역량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득점률은 94.192점으로 2018년 득점률 89.515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90.000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실적 미달성으로 득점하지 못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전년보다 개선되어 만점을 획득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평점 92.222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 100% 달성하여 평점 99.13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2.524%로 1.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13.4점을 부과받아 평점 66.700점 득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86.648점으로 만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9년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시청자 미디어 교육확대',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개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등 4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선진기관 벤치마크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기관은 시청자들에게 미디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 사회적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기관은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방송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비계량 지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누적보급률의 '19년도 목표치 80%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보다 명확한 근거 하에서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니터링 채널의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조사표본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탐색활동, 사업자 민원 대비 적은 수의 인력자원이 배정된 점 등은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문적 권익보호 체계 마련을 위하여 설립한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가 기관 내부 조직인지 별도의 독립된 조직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주요사업에 총 5개의 계량지표를 선정하였고, 각 지표는 목표부여 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지표는 교육투입 비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교육 질의 하락을 견제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지표는 주요사업 및 지표 정의의 취지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9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지표는 목표대비 92.8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시청자미디어교육 확대 사업의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지표와 '국민안전' 지표는 각각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개선 사업의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제고' 지표는 목표 대비 93.43%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사업의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지표는 목표 대비 84.7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4.50%인 29.295점으로 평가하였다.

10. 아시아문화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83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760
	(3) 안전 및 환경	3.0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938
	(5) 윤리경영	3.0	E^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485
주요사업	1. 아시아 문화 연구 및 자원활용 활성화				
	(1) 아시아 문화 연구 성과			3	**2.520**
	(2) 아카이브 활성화 성과			4	4.000
	2.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운영				
	(1) 콘텐츠 활성화 성과			13	12.556
	(2) 콘텐츠 이용 만족도			3	2.630
	3. 문화예술 콘텐츠 국내외 교류·유통				
	(1) 콘텐츠 교류협력 성과			4	4.000
	(2) 창제작 콘텐츠 유통 성과			4	4.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SWOT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원배분과 점검체계를 통한 경영 리스크 관리를 도출하여 경영실적 창출과 조직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과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혁신은행제도 및 모범거래모델 도입, 위임전결규칙 개정 및 적극행정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내·외부 환경분석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준법·윤리경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한 노력과 직원의 비전 이해도 개선, 아시아문화전당 인지도 상승을 위해 미션 비전데이, 혁신 집중주간, 혁신경진대회, 사회적 가치 비전선포 등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내외 환경, 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과 일자리 창출,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소년·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등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VR 안전체험관 제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인정된다. 또한 기관이 제안한 중점추진과제들의 수행에서 소통과 환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기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점도 인정된다. 다만 경영개선에 있어서 3년간 경영개선과제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건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으므로 양적 지표에 대한 노력과 함께 질적 지표의 도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초과근무 한도시간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스마트워크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근, 탄력근무 등의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정보보안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평균대비 하위 수준으로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새롭게 도출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2 경영관리 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점 93.257점을 달성하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94.333점, 가중치 3점 중 2.830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76.000점, 가중치 1점 중 0.760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97.933점, 가중치 3점 중 2.938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800%로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의 연도별 벌점은 2017년도 17.5점, 2018년도 28점, 2019년 27.5점으로 3년간 벌점이 높은 수준으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객만족도 지수도 2017년 85.651점, 2018년 82.035점, 2019년 87.544점으로 전년 대비 5.509점 상승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문화 연구 및 문화자원 아카이브 활성화,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운영, 문화예술 콘텐츠 국내외 교류·유통을 위하여 로드맵을 마련하고 SWOT분석을 통해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배분하여 주요사업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성과지표 선정과 실행과제 도출 과정에서 반영한 사회적 가치 요소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의 아시아성 강화를 위한 도전성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아시아 문화 연구

및 자원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분석과 학술활동 지원지침 제정, 콘텐츠원캠퍼스 지원사업 선정, 동남아시아 문화 연구 추진, 해외 저명학자부터 시청각장애인까지 연구성과 공유 등을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시아 문화 자원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자원 전자이관 도입, 소장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포맷과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학술활동지침은 국내외 다른 정부 출연 기관들 및 일반 대학교 등의 수준에 맞게 연구성과 관리 방법과 지표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별 열람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성과에 대해서도 향후 체계적으로 성과를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별 목표를 고려하여 3개 주요사업에 총 6개의 계량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였다. 아시아 문화 성과, 아카이브 활성화 성과, 콘텐츠 활성화 성과, 콘텐츠 이용 만족도, 콘텐츠 교류협력 성과, 창제적 콘텐츠 유통성과 등의 지표는 주요사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논문 게재 실적,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만족도 조사(PCSI), 공연 콘텐츠 유통 실적 등을 산식으로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계량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통일성 확보와 도전성 향상이 필요하고 지표 간 중복된 실적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2019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아시아 문화 연구 및 자원활용 활성화 사업의 '아시아 문화 연구 성과' 지표와 '아카이브 활성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84.00%,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운영 사업의 '콘텐츠 활성화 성과' 지표와 '콘텐츠 이용 만족도'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96.59%, 87.67%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문화예술 콘텐츠 국내외 교류·유통 사업의 '콘텐츠 교류협력 성과' 지표, '창제작 콘텐츠 유통 성과'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5.83%인 29.706점으로 평가하였다.

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C	3	2.71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92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2.944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592
주요 사업	1. 연구성과 사업화				
	(1)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출자 및 이전 실적			10	10.000
	(2) 사업화 지원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			9	9.000
	2. 창업성장 지원				
	(1)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실적			6	6.000
	(2)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6	6.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D^+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년도에 비하여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 비전 간 연계성이 더 강화된 가치체계를 구축했고, 그 결과 안전, 환경 기반강화를 반영한 3대 전략과제가 도출되었고, 직원 참여, 제도정비, 조직 정비도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새로운 가치체계와 경영목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사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의 합리성 제고, 사회적 가치 전반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실행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도 긍정적이며, 클라우드 기반 협업 시스템 구축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적극적인 이사회 활용도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향후 보완 사항이다. 기관은 정규직 전환자 고용을 위한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5개 연구개발특구별 혁신주체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청년, 비수도권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강화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여성 인력활용 향상을 위한 중장기 인사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은 특구 안전협의회 활동 및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19소방안전센터 등 안전인프라 등을 유치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관점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전지역 협력활동을 사회공헌활동 추진에 노려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특구별 혁신주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보완하고, 강소기업에 대한 입찰기회 확대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윤리경영 지침 개정을 바탕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갑질근절신고 시스템의 익명성 보장 정비 및 자가진단의 참여 독려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기관은 핵심사업 중심의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 및 구성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확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팀의 역할 및 책임 규정의 명확화와 효율성에 대한 제고가 요구되며 부서별 자체 교육에 대한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직무 분석, 공감대 형성, 시범 평가 등의 성과를 보수 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온보딩 프로그램, 청년이사회, 이사장이 간다와 같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건 발굴·제안을 통해 상향식 소통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 도입 및 혁신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연구비 관리 서비스 간소화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 내 많은 혁신위원회 및 시민참여혁신단의 운영에 대한 기관의 검토가 요구되며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득점률은 93.125점으로 2018년 득점률 92.515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719점(만점 3점), 0.920점(만점 1점) 및 2.944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0.478%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3점을 부여받아 0.667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25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8년 추진하였던 ‘창업지원 사업’, ‘연구성과 사업화 사업’, ‘성장지원 사업’ 등의 3개 주요사업을 2019년 ‘연구성과 사업화 사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등 2개 주요사업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였다. 기관이 설립목적, 비전,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관은 성과지표의 목표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중장기 목표, 특구육성 종합계획, 특구법·시행령, 국가 R&D 성과지표, 특구육성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SWOT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관은 IS-SMART 분석을 통해 평가대상사업별로 핵심 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나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핵심성과지표의 선정과정에서 지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만 평가할 경우, 사회적 가치로서의 질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성적 특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기관은 글로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이 당해연도 목표설정에 상응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목표, 자체평가 및 환류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특구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특구 입주율, 특구내 전체 입주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등 특구 전체에 대한 육성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에 대한 당해연도 목표치를 기관의 당해연도 시행목표의 110%로 설정하였으나, 모든 지표의 당해연도 목표치가 직전년도 실적치에 근접한 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

구되며, 예산 대비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과 동일한 100%를 기록하였다. 연구성과 사업화사업의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출자 및 이전실적' 지표와 '사업화 지원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실적' 지표와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12. 우체국금융개발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C	3	2.67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700
	(3) 안전 및 환경	3.0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B^0	3	2.973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32
주요 사업	1. 금융연구·개발 사업				
	(1) 우체국보험 손해율 관리 성과			3	2.750
	2. 금융마케팅 지원 사업				
	(1) 보험사업 성장 지원 성과			10	8.231
	3. 우체국보험심사 사업				
	(1) 보험심사 신속성 향상 성과			13	11.618
	4.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사업				
	(1)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5	4.361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다변화된 금융서비스 요구와 핀테크기업에 의한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하고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비전을 '안정적 금융생활을 선도하는 금융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잡았고, 그것과 연계하여 핵심가치로 '사람중심, 전문역량, 혁신선도, 다양성 존중'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관은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신뢰금융', '미래로 향하는 스마트금융', '혁신에 기반한 공공금융'을 전략목표로 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영개선 측면에서 챗봇상담시스템과 AI 로봇텔러를 개발하여 스마트 고객상담을 활성화하였고, 보험금 자동심사율을 제고하는 등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량의 감소도 촉진하는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 주요이슈 및 전년도 성과 공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 발굴 등에 내부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고용의 질 향상과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재수립하였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통하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전반적인 일자리 전략체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인정한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대내외 환경분석을 시도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적용, 직무능력 중심의 NCS 채용기반 구축 및 채용비위를 사전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여성인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19년 11월에 강소형 공공기관 중 최초로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여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안전관리 TFT가 12월에 구성되어 안전기본계획의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계획 이행에 대해서 점검하였으나 안전관리 TFT가 실무차원의 전담조직이라는 면에서 2019년 실적을 내기에는 늦은 조직 구성과 기능 수행이었다고 평가한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사기 예방과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기관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상생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활동의 실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뉴얼, 지침, 규정의 반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강화가 필요하다.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준법문화 내재화 및 공정·청렴 경영체계 확립을 청렴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구축하는 등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실행체계를 구축하였다. 청렴활동의 내재화와 공공확산 노력을 공유하고자 전파와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영 및 인식제고 등의 확장이 필요하다. 조직. 인사와 관련하여 미래금융 준비와 안정적 위탁사업의 운영방향, 혁신기술 활용 인력운영, 현안 해결형 조직 구축 등을 중심으로 조직·인력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업무를 고려하여 단위조직 중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직무분석을 토대로 업무절차서를 명확화하였다. 기관은 고유업무 전문성 강화와 디지털금융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및 활용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조직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노력을 하였다. 향후,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기관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 로드맵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활성화를 통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라는 소통방향에 따라 기관장 직접소통 채널, 상향식 소통채널, 현장중심 소통채널 등 다양한 소통·참여 채널 가동하고 있어 이는 노·사간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예방 가능한 기관 구성원의 근로조건 개선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의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혁신비전의 재설정과 과제 발굴의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반영한 초안을 '시민참여혁신단'에게 평가하도록 하여 확정하게 한 것은 과거의 혁신목표 설정 과정에서 개선된 방법이다. '열린경영혁신위원회'가 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 VOC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등에 대한 기관 대응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경영관리 부문 계량지표 득점률은 2018년 94.977점에서 2019년 92.358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저조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영향으로 총 득점률은 89.267점에 그쳤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적 통합 지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직원 중 다수의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전년 대비 평점이 0.271점 하락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중소기업생산품 등 6개 지표가 전년도에 이어 만점으로 총 득점률은 99.100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항목의 경우 기술개발시범구매 제품 구매액 미달에 따라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 1.8%를 준수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의 경우 경영정보공시는 최근 4개년 이래 가장 낮은 벌점을 달성하였으나 득점구간이 동일하여 전년도과 동일하게 83.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전반적인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전년대비 3.3점 상승한 89.5점을 기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금융연구·개발 사업, 금융마케팅 지원 사업, 우체국보험심사 사업,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사업 추진내용과 성과를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개선효과 등 감안 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제고, 모니터링 그리고 환경변화 대응 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추진한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총 24개 중 계량지표(12개)는

모두 초과 달성하였고, 비계량 성과지표도 보험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 서비스 제공 등 일부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목표달성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절차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내용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특히 기관은 사회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4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이 2개, 목표부여 1개, 목표대실적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우체국보험 손해율 관리 성과, 보험사업 성장지원 성과, 보험심사 신속성 향상 성과,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86.97%를 기록하였다. 우체국보험 손해율 관리 성과가 득점률 91.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험사업 성장 지원 성과가 득점률 82.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	3	2.14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D^+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918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721
주요 사업	1.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				
	(1) SW·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율			13	13.000
	(2)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사업화 성공률			12	12.000
	2.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				
	(1) ICT글로벌 벤처창업 지원성과			6	5.122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6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비전, 핵심 가치를 재설정하는 노력을 통해 신 비전체계를 수립했다. 그 결과 기관 설립목적에 공공성을 더하는 신 가치체계를 도출했으며, 전문성,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려 노력했다. 다만, 핵심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개선 노력도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할 것이며, 구성원에 대한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도 경영진 주도로 더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신기술분야(AI, 공개SW, 클라우드) 인력양성 목표를 설정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고도화에 노력하고, 결원율 축소, 정년후 재고용 등 내부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다. 향후 ICT분야 일자리의 고용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여성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우대정책 및 제한경쟁채용을 통한 사회형평적 채용 실적이 일부 인정된다. 향후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화하고, 청년, 비수도권인재 채용 확대와 함께 사회형평적 채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청사 관리와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기관 내 시설물, 건축물 등의 안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이전지역 ICT/SW 신시장 확대, 지역인재 육성 및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확대에 노력하였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위탁·구매계약 등에 있어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ICT/SW기업 지원전략의 고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 대비 각각 1등급씩 향상되는 실적이 있었다. 다만 조직 내부의 관련 규정 정비 및 윤리경영의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되며 외부강의 신고에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관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단위조직의 정비

및 개방형 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운영에 있어서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과 순환보직의 실질 운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체 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수 체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이를 위한 실천 전략 및 성과 목표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Good NIPA'캠페인 추진 및 대내외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 채널 확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구성원의 혁신 피로도에 대한 기관의 고려와 함께 지역사회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영관리 부문 계량지표 득점률은 2018년 94.177점에서 2019년 89.900점으로 하락하였다. 주요 하락 원인은 일자리 창출지표가 2018년 86.133점에서 2019년 71.633점으로 감소한 것 때문이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 1.8%를 준수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의 경우 경영정보공시는 전년도과 동일하게 83.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전반적인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전년대비 6.2점 상승한 88.7점을 기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8년 추진하였던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 'ICT 글로벌 경쟁력 강화', 'ICT 핵심인재 양성 및 R&D 경쟁력 강화' 등 3개 주요사업을 2019년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등 2개 주요사업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SW융합 조선해양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AI를 활용한 범죄예방, 디지털헬스 3대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SW융합 지역특화산업 연계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글로벌 선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이들 기관과의 GAP 분석 등을 통해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의 목표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정부정책, 공공성, 고객니즈,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하지만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심성과지표의 선정과정에서 지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만 평가할 경우, 사회적 가치로서의 질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성적 특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지표 산식의 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분야 사업의 예산 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의 지표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화 지표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R&D 지원기능이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되어 기관의 역할은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정보통신분야 산업 육성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의 지표는 기준치 설정의 타당성과 목표의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기준치 설정의 타당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3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1.71%p 하락한 97.17%를 기록하였다.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사업의 'SW·디지털콘텐츠 신서비스 사업화율' 지표와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사업화 성공률’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사업의 ‘ICT글로벌 벤처창업 지원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85.37%를 달성하였다.

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C	3	2.70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	3	2.952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989
주요 사업	1. 중소기업 R&D 성과 확산				
	(1)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9	8.608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			5	5.000
	(3) 중소기업의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2.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1)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7	7.000
	(2)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7	6.498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가치체계의 재설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설립 목적을 재해석한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했다. 설립 목적을 재해석하여 R&D 가치사슬 전 주기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있는 성과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설립목적과 미션 간 구분이 모호하여 향후 설립목적, 미션, 비전, 핵심가치 등 가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가치체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향후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다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혁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기관장 주도의 구성원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사회의 효과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기관은 PDCA기반 일자리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전략을 개선하고, 혁신기술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향후 일자리전략 실행계획의 구체화와 내부일자리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전산·상담직 용역인력의 고용형태에 대한 협의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원, 결원 보충 등을 통해 청년, 비수도권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형평적 채용 성과를 달성하였다. 향후 직무역량중심 채용방식을 내실화하고, 채용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관리자 육성 등 여성 인력 활용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기관은 재난 안전 및 근로자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 전 직원 대상 재난 예방, 대비, 복구 등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시민주도 대전 사회혁신플랫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지협약(NDA) 체결 등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였다. 향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 실행기반 강화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개선, 인권경영에서의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기능 정비 및 기록물 관리와 감사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경영지원 업무 효율화 및 HRD 진단을 통한 중장기 교육과정 로드맵 수립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의 시기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다면평가 적용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4채널의 모니터링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퇴직 및 채용 추이를 반영한 1인당 복리후생비 관리 목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9년에 추진한 노사관계 발전 전략의 목표와 실행 계획이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계획과 실제 사업과의 정합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혁신 교육에 대한 니즈 파악이 필요하며 협의체 및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의 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 계량지표에서 11.643점(만점 12점)을 획득하였고, 평균득점률은 97.0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득점률 95.523점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주요 원인은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 지표 100점 달성과 고객만족도 점수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총인건비관리 관리 지표는 전년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한편, 일자리 창출 지표는 전년도 득점률 92.933점에서 90.067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도 전년도 99.067점에서 98.400점으로 득점률이 소폭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8년 추진하였던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등의 3개 주요사업을 2019년 ‘중소기업 R&D 성과 확산 사업’,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2개 주요사업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였다. 기관은 설립목적·경영목표,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성과지표와 실행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과 분석과 환류 과정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관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글로벌 선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 기관과의 GAP 분석을 통해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SMART 분석을 통해 평가 대상사업별로 핵심 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나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관은 성과지표와 목표치, 자체평가 및 환류의 연계성이 향상되도록 자체평가시스템 개선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현안의 경우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적 산정시

기관의 당해연도 노력과 관련이 낮은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타 기관 유사지표의 실적 산정 방식과 같이 최근 일정기간내 지원했던 과제의 성과에 한정하여 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0.89%p 상승한 97.12%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R&D 성과 확산 사업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지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 지표, '중소기업의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5.64%, 100%,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지표와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각각 100%와 92.83%를 달성하였다.

15. 창업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D^{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70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5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862
	(5) 윤리경영	3.0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59
주요 사업	1. 손쉬운 창업환경 구축				
	(1) 온라인 법인설립 비율			5	3.594
	(2)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생 만족도			5	5.000
	2. 유망 창업기업 육성				
	(1) 창업사업 성공률			8	5.567
	(2) 창업기업 성장 성과			8	7.184
	3. 지속성장역량				
	(1) 지속성장역량			5	3.11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창업진흥원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부정책과 대내외 여건, 수요자 니즈 등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창업생태계 혁신성 제고', '사회적가치 확산', '국민신뢰 확보'를 핵심적인 지향점으로 하여 가치체계를 재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경영전략체계를 설정하였다. 경영전략체계에서 기관은 전략방향과 전략목표를 교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하위 개념체계가 상위 개념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 지표체계관리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기관은 미래사업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의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외 프로세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서류간소화와 같은 창업기업의 편의성 제고, 온라인서비스 강화, 투명한 자금집행을 통한 지속적인 창업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2015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행)과 무기계약직 전환(2012년부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시행)을 시행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자의 '직무만족도'와 '근로조건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질 좋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도 인정된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직무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부위원 참여확대 등을 통해 채용평가의 공정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절차적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반영하였다. 여성관리자 진입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추진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춰 분석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전략을 재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업들과의 연계성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전관련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안전경영을 위한 기관의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기관은 외부업체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발생이 높은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안전

관리 지표를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은 긍정적이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확대 차원의 기부문화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취약계층 채용 및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파트너 활성화, 인프라 구축, 구매증대 등 전략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해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도입을 통한 창업지원사업 모니터링을 반영하였다. 실제 이상거레 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실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조직·인사와 관련하여 경영환경변화와 경영전략을 연계하여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비전과 미션 및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핵심사업 중심의 인력분배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시도하였다. 성과평가등 환류체계를 중심으로 조직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19년 부서별 직무현황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직무급 비중이 연봉의 10%가 되도록 보수체계 설계(안) 도출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직무가치,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의 개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기관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체계의 구축과 추진이 필요하다. 기관은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직원 증가 등 노·사 이슈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워크숍, 직원간담회를 통한 구성원간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다각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노·사접점 확대를 통한 상호 공감대 제고하는 등 노·사갈등 예방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혁신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향식 의견수렴과 과제발굴의 노력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과제들의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보인다. 아울러 각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타당한 지표 개발과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관의 혁신 사례로서 “창구프로그램”의 성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창업진흥원은 당년도에 신규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경영관리 계량 총득점율이 94.104점이었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평점 100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96.784% 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평점 18.690점으로 평균 평점이 90.033점으로 2.701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은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평점을 득점하지 아니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모두 100% 달성하였으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단순노무 용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하여, 평점 50점으로 0.500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중소기업생산품 등 우선 구매 실적 등 7개 항목에서 95.400% 이행율을 보여 평점 95.400점으로 2.862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2.6% 중 실적치 1.224%를 달성하여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벌점 1.5점으로 평점 0.834점 획득,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4.600점으로 평점 92.500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창업진흥원은 손쉬운 창업환경 구축, 유망 창업기업 육성, 지속성장역량 등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의 성과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가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어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내용 및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직·인력·예산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선정한 주요사업 3개 모두 적절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기관이 선정한 계량 성과지표 9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비계량 성과지표도 적절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2 주요사업 계량

○ 창업진흥원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 3개, 목표부여(편차)1개, 중장기 목표부여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온라인 법인설립비율,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생 만족도, 창업사업 성공률, 창업기업 성장성과, 지속성장역량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78.91%를 기록하였다.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생 만족도가 득점률 100%로 가장 높았고, 지속성장역량 성과 득점률 62.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0	B^0	3	2.85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75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776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0		
	(2) 총인건비관리			3	0.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606
주요 사업	1. 건강증진정책 제도기반 구축				
	(1) 건강증진정책 과도			7	7.000
	(2)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 증가율			6	6.000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1)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율			10	10.000
	3. 국민 건강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				
	(1) 흡연·음주폐해 예방 인지도			8	8.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D^+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D^+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형평성 제고 및 국민 생명·안전 보호 역할 강화 등 환경변화,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사회적 책무를 반영한 비전 및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기관이 사업운영, 조직·인사, 역량강화 부문 핵심가치 공유·확산 활동을 추진하여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기관의 경영목표를 기반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6명의 정규직을 확보하고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4명을 신규로 채용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2019년 1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감사업무 전담부서 신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대내외 소통전담부서 설치 및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정규부서 설치 등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조직 재설계 및 기능 조정을 실시한 노력이 확인된다. 그리고 기관은 협력·위탁업체와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입찰·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청렴계약서 활용을 높였으며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도입, 법무감사팀의 감사실로 개편, 그리고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한 노력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은 외부조사를 통한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 및 대책·계획 마련이 미비하였고, '인사운영 세부방침'을 발표하였지만 특히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상 감사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비 사용 전략 수립과 향후 윤리경영 제고 및 재발 방지와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청년고용 실적이 49명에서 25명으로, 고졸자 채용실적은 금년도 0건,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년도 31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 관한 인원 및

비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당년도 처음으로 경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6.383점(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고 평균 득점률 기준으로 91.186점이다. 세부점수 현황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 3개 항목에서 3점 만점에 2.857점을 득점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1점 만점에 0.750점을 득점,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3점 만점에 2.776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련 지표에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인 1.8%를 초과하여 0.000점(만점 3.000점)으로 득점하지 못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경영공시 점검결과 벌점 12.2점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득점 0.667점, 고객만족도는 85.820점으로 득점 0.939점으로 국민소통지표에서 총 1.606점(만점 2.000점)을 획득하여 평균득점률 80.300점을 기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설립목적인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략과제, 국정과제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건강증진정책 제도기반 구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효율화', '국민 건강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 등 총 3개 사업이다. 그러나 각 주요사업의 단위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방향 및 대내외 여건, 정부정책, 고객 니즈 등의 현안 과제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핵심사항을 도출하고,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하여 GAP 분석에 의한 catch-up 전략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사업의 핵심성과지표는 각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한 후 결과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표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류활동을 강화하여 풍부한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한 다음 전략과제,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SMART 평가에 의해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SWOT 분석을 통해 전략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세부실행 과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의 계량지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는 적정성과 도전성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기관의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여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 증가율 지표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기관의 투자 대비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강증진정책 성과도 지표와 흡연·음주폐해 예방 인지도 지표는 세부지표 각각에 대한 득점 산출을 통해 목표의 도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 증가율은 평가 방식의 개선을 통해 도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9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건강증진정책 제도기반구축 사업의 '건강증진정책 성과도' 지표,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 증가율'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국민 건강생활 실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 사업의 '흡연·음주폐해 예방 인지도' 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000점으로 평가하였다.

17. 한국고용정보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70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D^+	1	0.900
	(3) 안전 및 환경	5.0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C	3	2.922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577
주요 사업	1.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1) 워크넷 활용도			6	4.918
	(2) 보안무사고 달성 노력			2	2.000
	2. 미래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				
	(1) 진로지도 교육효율화			8	8.000
	3.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1) 고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성과			8	7.154
	4.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				
	(1)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성과			7	6.339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존중, 투명·혁신, 소통·배려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공공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고용정책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잡고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전사적 노력으로 경영전략인지도도 다소나마 상승하였다. 다만, 불확실한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약점과 위기요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제들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은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여 온라인청년센터'를 구축하고, '청년이사제'를 도입하며, '청년고용정책참여단'활동을 2배 확대하여 청년정책인지도가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또한, 산재된 고용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기관이 신규직원 대부분을 청년으로 채용하고, 초과근로수당 절감 등을 통해 정원외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질 좋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채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노력과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민간일자리 창출 사례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NCS기반의 채용프로세스 및 블라인드 채용을 반영하여 직무능력중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의 제안이 두드러지지 않아 이의 반영이 필요하며,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 지원방안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19년을 안전조직 및 체계 구축의 해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전담조직의 운영과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안정적이고 일원화된 명령 보고체계로서는 미흡하다고 본다. 2020년 4월 언론보도에 의해서 나타난 청년구직지원금 시스템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은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기관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상생환경분석을 시도하고 목

표를 설정하여 추진과제 및 협업 추진 조직의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였다. 지역과 연계하여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역사회와 나눔활동 등 기관차원의 다각적인 역할을 모색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SWOT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준법·윤리경영체계를 수립하고 2019년도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설정하였다.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임직원 역량 강화 및 반부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은 조직·인사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표의 내용을 제도화하여 성과를 제시하였다. 제도의 반영을 통한 실적과 성과 등을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차원의 조직문화 개선 등 구체적 활동의 제시와 합리적 인사평가 체계 마련 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적 접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30년 초과 근무자 기본연봉 임금인상률 인하, 간부직 기본연봉 누적식 적용 및 기본연봉 임금범위 상한액과 하한액 설정 등을 통한 보수의 연공성 완화 노력을 하였고, 개인업적평가 연봉등급 산정방법 개선과 신입직원 인사평가방식개편 등 공정한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은 청렴 아이돌, 청년이사회, CEO 소통방, 열린 경영회의 중계시스템, KEIS 혁신상시제안방 등 노사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력적 소통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경영현안의 효과적 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용정보 관련 워크넷데이터가 오픈API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제공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높으며, 피보험자 현황, 피보험자 취득상실현황, 구인구직현황, 실업급여 수급신청 등의 데이터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관의 원문공개율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되었고 정보 공개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The Work의 활용도와 일자리사업평가 고도화 노력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은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706점(만점 3점), 0.900점

(만점 1점) 및 2.922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1.646%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0.7점을 부여받아 0.667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10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미래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국가고용정보망 품질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 4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별 실행과제와 함께 이에 부합되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계층적 체계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설계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 대표계량 지표 외 계량지표의 목표치는 좀 더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기관들과의 벤치마킹 결과를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일자리 포털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일자리포털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포털 정보연계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워크넷 취업자 수가 기 설정된 성과목표를 상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년의 고용정책 인지도는 전년대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수준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이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운영으로 전년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절대적 수준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 개선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자리사업 DB 구축으로 인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에 대해 좀 더 가시화된 성과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은 4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이 3.5개, 목표부여가 0,5개, 목표대실적이 하나이다. 계량지표는 워크넷 활용도, 보안무사고 달성노력, 진로지도 교육효율화, 고용정보 수집 분석제공 성과,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1.64%를 기록하였다. 총 2개의 지표인 보안무사고 달성노력, 진로지도 교육효율화 성과 득점률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워크넷 활용도 성과가 득점률 81.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8. 한국과학창의재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0		
	(2) 경영개선	2	D^0		
	(3) 리더십	2	D^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D^0	3	2.78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D^0	1	0.9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D^+	3	2.972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834
주요 사업	1. 과학기술 문화조성				
	(1) 과학문화 사회소통 성과			6	6.000
	(2) 과학문화 격차해소 성과			4	4.000
	(3) 과학문화 소통 전문가 양성 성과			4	3.959
	2. 과학기술 인재육성				
	(1) 과학·수학·SW·STEAM 교육 진흥 성과			8	7.425
	(2)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성과			9	8.828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내외 환경문화를 고려하여 과학문화 혁신이라는 중장기 경영전략 기반하에 사회적 신뢰확보를 위해 MBO 도입을 통한 책임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연구 기능 및 국민 공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창의 정책기획팀 및 과학문화홍보실 신설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내·외부 의견수렴 및 환경분석을 통해 미래사업과 일몰사업에 대한 선제적 조직개편을 시도한 점과 인력구조변화와 제도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직자 축소, 승진인건비 절감, 보직자 자발적 임금 인상액 반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부정 및 오류를 예방·시정하고 비능률적 업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를 도입한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기관의 정현원차 관리와 부족인력 채용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2019년 정규직 7명, 무기계약직 2명 등 9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2018년 96.5%에서 2019년 94.5% 수준으로 여전히 기관의 정현원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은 아직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실적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없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중장기 채용계획과 단기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채용실적이 아직 미진하며 고졸 채용인원도 없고 비수도권 지역인재도 전년도의 14명에서 금년도 2명으로 격감하고 있어 사회형평적 채용을 더욱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경영목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의 관계가 정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표관리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득점률은 95.725점으로 2018년 득점률 89.692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92.700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각각 평점 96.296점, 96.327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평점 60.000점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평점 80.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 100% 달성하여 평점 99.067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1.653%로 1.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평점 83.400점 득점으로 벌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평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88.136점으로 만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문화조성 사업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여, 주요사업 실행과제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고, 7개의 성과지표와 11개의 비계량지표를 관리한 점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들에 사회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계획과 성과지표 도출 과정에 계층별 과학에 대한 접근 및 교육 격차해소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과학문화서비스 시민참여 접근성 향

상을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5개 광역지자체를 지역 과학문화 확산 거점으로 선정한 점, 경쟁중심의 과학탐구대회에서 벗어나게 기획한 점, 정보보호 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현장밀착형 SW·AI교육을 확대하고 학생교원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19년에는 주로 신규 수시종사직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집중하였으며, '19년 786명 중 정규직이 약 16.4%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신규직종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학문화 바우처의 발급 및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SW교육 효과성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과 향상정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사업 총 5개의 계량지표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기관의 주요사업과 적정한 수준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서벽지 학생들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 등 지표의 구성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몇몇 지표들의 성과가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큰 상관없이 간접적인 예산지원만으로 실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 데이터에서 성과 누락, 오기 등이 발견되므로, 향후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9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과학기술 문화조성 사업의 '과학문화 사회소통 성과' 지표, '과학문화 격차해소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과학문화 소통 전문가 양성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98.96%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의 '과학·수학·SW·STEAM 교육 진흥 성과' 지표와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 비 각각 92.81%, 98.1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7.46%인 30.212점으로 평가하였다.

19. 한국광해관리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59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0	C	1	0.887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3.000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 소통			2	1.763
주요 사업	1. 광해관리사업				
	(1) 수질오염 저감			6	5.623
	(2) 토양복원사업의 법정기준치 달성도			6	5.998
	(3) 광해방지사업 완료 개소수			6	6.000
	(4) 광해방지사업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2	1.904
	2. 기술개발사업				
	(1) 기술개발 성과지수			5	5.000
	3.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			6	6.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8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공성과 효율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기존의 '폐광지역 가치 증진'을 '폐광지역 투자유치'로 전환하고, 각 경영목표에 대하여 연도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계량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실행과제를 다시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와 연계시켜 고도화하고,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행과제 성과지표를 부서평가에 연계하여 관리하였다.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기관은 중장기경영전략 방향에 따라 핵심사업의 성장성 분석을 통해 기관 핵심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광해방지, 지역진흥, 석연탄산업지원 분야로 개편하였으며,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 광해방지와 지역진흥을, 조정해야 하는 분야로 석연탄산업지원을 선정하는 미래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이 반영되도록 내·외부 노동약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관의 신규채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의 개선과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채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투명성 제고 및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을 시도하였다. 균등한 인사제도 개선의 노력 및 주요 실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환경분석을 토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서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역할 수행"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안전관리 활동수준 강화 등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안전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과 성과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하며, 안전전담 직원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교육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기관의 광해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한다. 지반침하에 대하여 기관의 고도화된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인 MIRECO EYE가 활용된 것은 기관 보유 안전

기술의 공유와 활용의 성과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폐광지역 도시재생 로드맵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영월과 태백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유관학회, 공공기관, 도시재생센터 등 전문가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기관이 관장하는 폐광지역 7개 특구의 사업관리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시 여러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성하는데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실적과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기관은 자금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지원금 부정수급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규정을 정비하고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은 조직.인사 관련하여 국민안전과 광산지역 경제진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의 비전을 토대로 전략방향을 도출하고 조직·인력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중기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중기인력 배분을 마련하였다. 미래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인력과 핵심사업을 명확히 설정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MIRECO 올바른 집행센터'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관리감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올바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기관은 '노사 중장기 비전 전략수립 용역'(2019년 12월)을 통하여 참여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관계 관련 이슈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노사협력실무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논의하고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정례화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전년보다 개선된 노사공동 협력성과를 창출하였다. 혁신과제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비롯하여 성과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표의 타당성과 함께 각 목표의 낮은 도전성 등은 혁신 성과관리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기관장의 혁신의지를 공유화하고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안해결형의 도시재생포럼과 광해현장협의체는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방식이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경영관리 계량 총득점율이 전년 90.754점에서 당년 93.742점으로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전년대비 하락(100% → 97.727%)하였다. 반면,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90.247% → 91.503%)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15.229% → 22.000%)은 전년대비 상승하여 평점 86.633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599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80.000%)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100%),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86.667%)은 전년과 동일한 이행률로 평가되었으며, 평점은 88.70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887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회적기업·협동조합/여성기업/장애인/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실적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은 모두 100% 이행하여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목표치 1.8% 중 실적치 1.71%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지연공시 1건(1.5점), 수정공시 2건(1점), 공시변경 1건(0.1점)으로 총 2.6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평점 83.40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834점을 득점하였다. 기관 PCSI 점수는 91.660점으로 전년도 89.628점에서 상승하였으나, 평가방식 변경에 따라 지표 평점은 92.900점으로 하락하여, 가중치 1점 중 0.929점을 득점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와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광해관리사업, 기술개발사업,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주요사업별

단위사업과 추진과제, 성과지표 등을 설계하였다. 대부분의 단위사업들은 설정된 계량지표에 대한 절차적 노력으로 비계량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으나,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설계된 계량지표 모두 경영평가 대표지표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해복구 추경예산 확보와 함께 다양한 광해관리 활동으로 광산지역 환경위해요인을 고품질로 복원하여 지역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부분과 함께, 광해방지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활용한 사례와 전년도에 이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확보를 통한 도시재생을 가속화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자회사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에 대해 고용유지 기간, 출자회사 경상이익과 부채비율 등과 같이 질적 성과에 대한 측정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진기관 벤치마킹 대상을 다양한 단위사업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벤치마킹 결과에 대한 반영도 목표치 설정부터 실행과제 내재화과정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3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대실적방식이 3개, 목표부여가 2개, 목표부여(편차)방식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사업인 광해관리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4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총 가중치가 31점 중 20점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8.47%를 기록하였다. 총 3개의 성과지표(광해방지사업 완료 개소수, 기술개발 성과지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득점률 100%이다. 수질오염 저감 성과가 득점률 93.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72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930
	(3) 안전 및 환경	3.0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C	3	2.484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88
주요 사업	1.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1) 교육과정 맞춤형 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8	7.441
	2.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				
	(1)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5	5.000
	3.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1)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10	9.369
	4.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2)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			8	8.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0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에 국민의 체감 효용성을 제고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머신러닝 활용 맞춤형 콘텐츠 자동 추천 기능을 도입해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K-에듀파인을 적용하여 사립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한 점, 무료제공이 가능한 학술정보 콘텐츠를 38만건 수집하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플랫폼을 개편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이 정현원차 예측관리를 통해 정현원차 제로를 달성한 점, 재난안전 상시관리체계를 위해 안전재무부를 신설하여 운영한 점,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미디어 크리에이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 빅데이터, 3D프린팅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IT 사업검토위원회를 통해 IT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 점, 4대 핵심업무 중심의 전략적 인력 운영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원부서 비율이 17.4%-15.1%를 유지하고 있는 점, 전문직위제와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 관련 인사규정 명문화하고 인력충원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입사지원자 대상 블라인드 채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상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기관의 업(業)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청렴도 하락원인과 위험요소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윤리경영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원문공개율 하락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문공개율을 공공기관의 평균 수준까지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개인·조직성과평가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중을 높여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이나 업무혁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고, 고충의 공정한 해결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충처리체계 구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득점률은 91.067점으로 2018년 득점률 91.562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90.867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각각 평점 98.980점, 91.509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평점 60.000점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평점 86.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100% 달성하였으나, 기관의 지속적인 구매 노력에도 중소기업생산품 등 5개 항목의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으로 평점 82.8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1.648%로 1.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는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벌점 0점으로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2019년 벌점 1.5점이 부과되어 평점 83.400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86.165점으로 평점 95.4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및 국정과제를 연계한 전략과제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사업',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 사업',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사업',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사업' 등이며, 각 주요사업의 평가대상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SMART 평가를 토대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및 경영평가 항목 이외의 다양한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발굴을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평가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에 반영할 환류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차년도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실행과제와 핵심성과지표가 국정과제 및 경영평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지적사항인 일부 계량지표가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점수가 소폭 향상된 KOCW 이용자 만족도 점수 및 OER 기반 콘텐츠 구축 우선 분야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환류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사업 총 4개의 계량지표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관의 계량지표들은 주요 사업과 적정한 수준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관의 주요 정보서비스에서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적 평가까지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지표에서 세부지표 간 실적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 실적 별 중요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특정 지표가 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9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의 '교육과정 맞춤형 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93.01%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 사업의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93.69%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사업의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6.16%인 29.81점으로 평가하였다.

2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C	3	2.72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5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D^+	3	2.589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995
주요 사업	1.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5	4.761
	(2) 기상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9	9.000
	2.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1) 기상관측장비 검정 수행 성과			7	7.000
	3. 기상 R&D 지원 사업				
	(1) 기상 R&D 지원 성과			7	5.650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가치체계의 재설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정부정책과의 연계 틀에서 안전과 신뢰가 추가되는 새로운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가치체계에 병렬적으로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영목표, 전략 등에 사회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진은 구성원의 가치체계 내재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사회의 전문성을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일자리 4대 전략 등 일자리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기상산업 R&D사업 일자리 전략의 실행과제를 보완하고, 결원율 축소와 이직률 하향 등 내부일자리 전략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채용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고, 신규채용 등을 통해 여성 인력 활용을 확대하였다. 향후 직무중심 채용절차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적합직무 발굴을 통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적용을 강화하고 직무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안전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N-SHOP(기상 장비 자체 수리·정비 체계 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비수도권 소상공인, 어민 및 중소해상운송업체 지원에 노력하였다. 향후 지역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전략과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전략을 강화하고, 기술역량을 보유한 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 확대를 위한 위탁·구매계약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중장기 윤리경영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과 채용에서의 기준 강화와 함께 기록물 관리 체계 정비, 인권경영에서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클린신고센터의 실질적 운영과

인권경영 환류 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기관 현안 처리를 위해 조직 개편 최소화를 통해 중점사업에 집중하였으며 '희망직무체험'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정비는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내실있는 교육 추진과 저성과자 관리 체계 정비 및 순환보직 운영에서의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보수 체계 개편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각 단계별 이행 전략과 실천 방안, 성과 지표 등이 현실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논의 및 결정 사항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혁신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혁신 네트워크 운영 및 혁신 교육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통 채널 운영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국민소통 지표에서 전년도 대비 좋은 득점을 받으면서 전체 평점이 소폭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달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44.878점을 달성하여 전체 평점 90.800점, 가중치 3점 중 2.724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전체 평점 50점, 가중치 1점 중 0.5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중소기업생산품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달성하였으며, 그 외 기술개발생산품 46.600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44.044점, 여성기업생산품 84.225점, 장애인생산품 77.073점을 달성하여 전체 평점 86.300점, 가중치 3점 중 2.589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경영정보공시는 무벌점을 달성하여 우수공시기관에 지정되었으며 고객만족도는 가중치 1점 대비 0.99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상 R&D 지원'의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R&D 기획 시 소통강화 및 국민참여의 확대를 추진하고 기상재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기상 R&D 지원 사업의 성과가 다른 주요사업으로 연계되어 주요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PDCA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을 포함한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및 개선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환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지표 산식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특히 기관의 대표 계량지표인 '기상 R&D 지원성과'의 경우, 기관의 사업화·실용화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의 가중치와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3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26.78%p 상승한 94.87%를 기록하였다.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의 '기상

산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지표와 ‘기상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5.22%와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기상관측장비 검정 수행 성과’ 지표와 기상 R&D 지원 사업의 ‘기상 R&D 지원 성과’ 지표와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각각 100%, 80.71%, 100%를 달성하였다.

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D^+	3	2.935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79
주요 사업	1. 민간연계 일자리 개발 및 보급 확대				
	(1) 취업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수			5	5.000
	(2) 기업연계형사업 장기고용률			11	11.000
	2. 시장형(취업·창업) 노인일자리 활성화				
	(1) 시니어인턴 계속고용률			10	10.000
	(2) 고령자친화기업 고용 기여도			5	5.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5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토양조성', '사회적 가치 기반 확립'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세웠고, 이를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관리하였다. 기관의 주요 사업은 정부재정에 크게 의존하는바 기관은 정부재정 의존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체계를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타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비예산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민간일자리 수요에 맞는 노인인력 양성 노력의 일환으로 60+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 新노년세대 일자리 전망 분석, 그리고 新노년세대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은 2019년에는 정규직 전환자의 니즈 수렴을 기초로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전환자 호칭 변경 등) 등 양질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노인 민간일자리 수 증대의 노력과 더불어 질 좋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이 기관에게 요구된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 개편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공정한 채용 및 약자를 배려하는 인사관리 제도 혁신안을 연계하였다. 여성임원의 임용목표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부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해 볼 것을 권장한다. 기관은 노일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참여하는 노인의 생명과 안전도 주요 경영관리의 대상이다. 참여노인의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안전부를 신설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제작하고, 노인들의 안전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와 함께, 골절, 염좌, 찰과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부상은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적 지역상생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응방향 및 참여채널 소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현안의 니즈를 파악하여 지역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을 위해 청렴도 저해요인을 심층분석하여 혁신적 신윤리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청렴정책협의회를 통해 청렴정책의 수립을 적용하였다. 인권침해 신고채널 구축 시 익명성을 강조하는데 신고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남용의 우려 사항도 고려하여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선도기관 비전을 제시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토양 조성, 사회적 가치 경영기반 확립 등 전략목표 설정 및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이슈별 조직, 인력의 개선 실적을 토대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연계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 및 적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관은 공정한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직원설명회 등을 통해 내부 수용도 제고 노력을 통하여 단계적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구성원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는 구성원이 만족하는 직무급 보수체계임금체계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성원 대다수가 만족하는 급여체계개편을 위한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수평적 소통문화를 정립하고 경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희망 직원이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2019년 10월 도입하여 3회 운영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혁신네트워크 중에서 상생발전 네트워크와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는 한정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확대된 방식의 네트워크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장의 활동을 통해서 대내외에 혁신의 비전과 의지가 공유되는 노력이 있었지만, 기관장의 혁신 비전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업과 소통 노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점 추진과제의 성과와 관련하여 2019년 68만개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가 초과달성 되었지만 노일일자리의 질적 제고가 개선과제로 남는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3.000점(만점 3점), 1.000점(만점 1점) 및 2.935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0.263%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9.6점을 부여받아 0.834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45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기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연계 일자리 개발 및 보급 확대 사업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설계하였다. 민간연계 일자리 개발 및 보급확대 사업은 노인일자리 토양조성, 시장형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전략목표로 각각 설정하고 세부적인 전략과제들을 설계하였으나, 설계된 전략과제들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며 계층적 체계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과 전략과제의 재설계가 요청된다. 또한 설계된 다수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법, 상호 연관성 등에 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안전 노인일자리 창출, 세대통합형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형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 연계형 일자리 창출,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한 사회공헌 비 예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한 성과와 함께,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미인지·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주간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창출된 일자리 성과를 보다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구분·제시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이 1개, 목표부여 1개, 목표대실적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취업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수, 기업연계형사업 장기고용률, 시니어인턴 계속고용률, 고령자친화기업 고용 기여도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100%로 4개 지표 모두 득점률 100%를 기록하였다.

23. 한국디자인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D^+	3	1.24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780
	(3) 안전 및 환경	3.0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820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761
주요 사업	1. 맞춤형 디자인 지원 사업				
	(1) 디자인 일자리 창출 성과			14	13.615
	(2)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성과			6	6.000
	2. 디자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1) 디자인산업 인재육성 성과			11	11.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디자인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외부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주요 5개 분야에 관심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구성원들이 가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해결 역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경영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체계의 내재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핵심 가치의 공유 노력은 더욱 강구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PDCA기반 일자리 계획을 통해 디자인주도 민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향후 디자인 기반 혁신성장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혁신 및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내부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전환자 처우노력도 요구된다. 채용업무지침 제정 등 채용 공정성 강화와 채용계획의 실행력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였다. 향후 고졸자 채용 실현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인권기반 채용절차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직·기간제 처우 개선을 위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실행 전략 및 방법, 성과 목표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사회공헌전략을 체계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전략을 확대하였다. 또한 협력·위탁업체 지원 확대와 디자인분야 공정거래 기반 강화에 노력하였다. 향후 5개 지역디자인센터와 연계한 권역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보완하고, 디자인 주도 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기관은 인권경영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 규정 정비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록물 관리 및 갑질 근절을 위한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은 순환보직 및 전문직위제 운영과 함께 개방형 계약직제를 확대하였으며 창의조직 Cell 운영 등의 노력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면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전략 과제로 성과·직무 중심 보수 체계 구축을 상정하고 있으나 직무급 제도로의 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실적이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기존 부서 간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Cell제도와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 제도를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혁신 로드맵 수립과 함께 ERP 신규개발과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의 노력은 바람직하게 보인다. 다만 적극혁신 추진 조직의 지원제도 도입 및 소통을 위한 많은 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관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총인건비관리 및 국민소통 지표에서 높은 득점률을 달성하였으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서 득점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득점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향상되었으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평점 41.600점으로 1.248점(가중치 3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이 향상되어 평점 78.000점으로 0.780점(가중치 1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술개발 생산품 등 4개 항목의 우선구매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중소기업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 이행률을 보이며 평점 94.000점으로 2.820점(가중치 3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 이내인 1.601%로 만점을 득점하였다. 경영정보공시는 전년과 동일하게 평점 83.333점으로 0.834점(가중치 1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88.134점으로

전년도 85.362점 대비 크게 향상되어 평점 92.700점으로 0.927점(가중치 1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8년도와 유사하게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과 디자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의 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션체계도와 추진계획, 환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체계적인 점이 높이 평가된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 비전, 미션과 적절하게 연관되어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관이 추진한 2개의 주요사업은 적절하게 추진되었으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을 찾아내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 성과는 적절하게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 환류와 관련해서는 자체 환류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제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성과평가활동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환류내용 또한 적절하다. 다만 당해연도 자체평가를 차년도 계획으로 환류하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활용한 환류활동도 우수·미흡사항을 구분하여 어떻게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했는지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지표 산식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되나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되며,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3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1.24%p 하락한 98.76%를 기록하였다. 맞춤형 디자인 지원 사업의 '디자인 일자리 창출 성과' 지표와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7.25%와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디자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의 '디자인산업 인재육성 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2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49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936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871
	(5) 윤리경영	3.0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644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44
주요사업	1. 보건복지 전문인재 양성 강화사업				
	(1)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성과			6	6.000
	(2)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성과			6	6.000
	2. 보건복지 교육품질 강화 사업				
	(1) 보건복지인재양성 교육품질 제고 성과			6	5.010
	3. 미래대비 및 사회적가치 확산사업				
	(1)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성과			6	6.000
	(2)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			7	7.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D^{+}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기관장 주도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조직발전TF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통해 전문성(K), 책임(O), 협력(H), 존중(I)이라는 전략목표와 연계된 4가지의 새로운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핵김가치 고도화 노력을 한 결과 지전인식도 전년대비 17.02% 상승하였다. 기관 업무의 급격한 확대로 따른 조직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조직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구축을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발전TF, '일터혁신실무위원회' 활동으로 참여·협력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직소통지수가 전년대비 14.29%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관은'보건복지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3대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정립하였다. 이는 좋은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대내외 경영여건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 개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채용시스템 활용 고도화,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채용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칙을 제정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채용과정의 모니터링 효과 제고 및 지역인재, 고졸자, 사회적 형평 채용 관련 주요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확충, 안전 분야 교육에 있어서 계획의 충실한 수립과 이행 그리고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 인재양성 플랫폼 기관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담당자에 대한 질병교육, 보건소, 제약 의료기기 종사자에 대한 재난위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시행하여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수행을 하게 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인재양성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상생환경 분석을 시도하고 지역사회 협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사회 혁신네트워크를 강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파트너 활성화, 인프라 구축, 구매증대 등 전략 구축체계가 필요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청렴 생태계 강화, 부패방지체계 구축, 청렴윤리문화 확산의 전략을 도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은 경영전반의 제도점검.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전직원참여형 추진체계 구축. 조직발전 TF팀을 발족하였는데 실질적 활동의 효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국민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보건복지 인재양성 플랫폼' 비전을 제시하고 보건복지 인재경쟁력 강화, 보건복지 인재양성생태계 조성, 국민중심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공감의 경영혁신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를 도출하였다. 미래사업강화를 위해 중장기전략을 도출하여 추진과제로 연계하고 있는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혁신사업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래사업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담부서 인력 기능강화 차원에서 조직기능을 개편하였는데,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상위직(3급이상)대비 하위직(4급이하) 임금인상률을 차등적용(하후상박)을 통하여 기관의 보수 연공성 완화한 실적과 평가체계 고도화 실적이 확인되어 합리적 보수체계 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확인된다. 초임직급으로 운용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감액비율에 따른'권한'과'책임'의 조정이 필요하다. 노·사는 기관장 취임 초기 노사갈등을 치유하고, 상생노력의 협의를 통하여 '17년 84개 조항의 단체협약에서 일·가정 양립, 건강한 근무환경 등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116개 단체협약으로 확대 체결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기관은 혁신 세부과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으며, 도전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보인다. 기관장의 혁신 의지에 기반한 활동에 대해서 리더십 공감지수 및 비전인식도가 전년도보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10개 분야의 교육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형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 있으며, 사이버 교육 플랫폼의 개발 노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16개 기관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득점률은 91.242점으로 2018년 득점률 91.954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83.267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평점 86.374점,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평점 90.000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평점 56.745점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평점 87.273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으로 평점 95.7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보수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1.748%로 1.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14.1점을 부과받아 평점 66.700점 득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86.092점으로 평점 97.7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통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문인재 양성 강화사업, 보건복지 교육품질 강화사업, 미래대비 사회적가치 확산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계하였으나 일부 주요사업의 경우 전략목표와 단위

사업 사이에 계층적 체계성이 부족, 일부 전략과제의 경우 다른 주요사업의 전략과제와 범위가 중첩 등이 존재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기관은 공공보건, 질병관리, 의약품안전 등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특히 '홍역' 집단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과 같은 보건복지 긴급현안에 대응한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의 양적확대에 따른 구조화 노력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교수와 학생, 교육환경, 교육내용, 프로그램 운영과정 대상의 다차원의 질적인 성과측정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수집되는 환류과제들은 유형별로 분류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과제들은 주요사업 과제형태로 도출·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4개의 목표부여방식과 1개의 목표대 실적방식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성과,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성과, 보건복지인재양성 교육품질 제고 성과,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 성과,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6.80%를 기록하였다. 총 4개의 지표,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성과, 보건복지인재양성 교육품질 제고 성과,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확대 성과,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성과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성과가 득점률 83.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0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60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94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	3	2.986
	(5) 윤리경영	**3.0**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824
주요 사업	1.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1) 글로벌 의료기술 개발 실적			4	4.000
	(2) 보건산업 원천기술 개발 실적			5	5.000
	(3)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2.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1)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4	4.000
	(2)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비중			5	3.940
	3.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 지원				
	(1) 창업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10	10.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구성하려 시도했다. 그 결과 비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핵심가치에 안전을 포함하여 보완했다. 그러나 미션에 대한 언급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 설립목적,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로 이어지는 가치체계에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능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경영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무프로세스 혁신 관련 절차의 간소화 노력에도 더 관심을 갖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활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전문성과 활용성을 더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기관은 PDCA기반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통해 지역창업인큐베이팅, 임상의사-창업기업 상생협력체계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였다. 향후 실현가능한 일자리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적 민간일자리 창출 계획 마련과 추가적인 내부일자리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 채용비리 근절 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고, 채용과 관리자 승진 등에 있어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하였다. 향후 청년인재 조기이직 축소 및 청년인턴 확대, 고졸적합직무 재설계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무기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전문기관(한국품질재단)의 심사를 통해 안전 및 환경 항목을 포함한 국제 규격 IONet의 인증(SR10)을 획득했고,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관은 핵심사업과 연계한 이전지역 기업지원 확대, 보건의료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여러 유형의 활동들을 포괄하는 사회공헌 전략체계를 보완하고,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공정거래체계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한 익명신고채널을 신설하였으며 채용 전 과정에 대한 규정 개정 및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과 인권경

영에서의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청렴교육에 대한 참여 제고 및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각 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확대와 희망직무제를 신규 도입하여 운영한 점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성과평가의 피드백 강화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직원 게시판, 노사협의체, 임원 주재 간담회, 부서별 맞춤형 간담회 등을 통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니즈, 이슈,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장 직속으로 열정 TF팀을 구성하여 혁신 아이디어 발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을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기관장 직속 열정리더TF 운영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능형 정보처리 환경구축(RPA) 등 혁신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협의체 운영 및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되며 소통 채널의 환류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득점률은 94.633점으로 2018년 득점률 95.100점 대비 감소되었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평점을 획득하였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평점 86.867점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미달되어 평점 94.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1.8%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8.5점으로 평점 83.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88.166점으로 평점 99.02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도와 유사하게 보건의료기술 R&D지원사업,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지원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션체계도와 추진계획, 환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추진한 3개의 주요사업은 적절하게 추진되었으며, 기관이 주요사업간 경계를 허물고 매트릭스 구조로 전략을 매칭하여 사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이 국가책임 치매연구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 R&D 국내연구기반 마련 등 '보건복지'라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을 찾아내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 성과는 적절하게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치 설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주요사업 환류와 관련해서는 자체 환류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제시하고 있으며, 환류내용 또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회적가치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가 차기년도 계획으로 어떻게 환류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인 R&D 기획, 관리 및 성과확산 측면에서 기관의 당해연도 주요사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계량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되나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1.94%p 하락한 96.58%를 기록하였다. 보건의료기술 R&D 지원사업의 '글로벌 의료기술 개발 실적' 지표, '보건산업 원천기술 개발 실적' 지표,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지표,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비중' 지표,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 지원사업의 '창업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각각 100%, 78.80%, 100%를 달성하였다.

26.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59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C	1	0.457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753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598
주요 사업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1) 미인증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도			12	12.000
	2.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1)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성과			5	5.000
	(2)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역량 강화 성과			4	4.000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				
	(1)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			6	6.000
	(2)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성과			4	4.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D^+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D^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5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이 안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비전 수립, 미래상 도출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개편하고,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른 리더십(4C)을 통한 핵심가치 내재화를 도모한 노력이 인정된다. 정현원차를 2019년 8명으로 줄이고, 시간선택제 및 시차출근제 분기별 신청, 연가저축제, 임신기간 단축근무제 도입 등의 다양한 근로형태를 운영하여 일·가정양립문화 조성에 힘쓰고, 여성인재 채용과 여성관리자 성장 지원 등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한 점,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금액을 전년대비 46% 증가시킨 실적도 인정된다. 또한 기관이 2019년 1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분석을 기초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직 및 직제개편을 실시한 점, 단계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지역상생·협력 중장기 종합실행계획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역협력 사업 운영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윤리경영 종합계획의 보완과 감사팀의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준법윤리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경영, 지역사회공헌, 재난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의 점진적 확보가 필요하며,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결재율을 감소시키고 핵심업무 중심의 합리적 권한배분기준을 설정 및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절한 교육예산배분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의 근로자 경영참여방안과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에 신규로 지정된 준정부기관으로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률 86.675점(12점 만점에 10.401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평점 95.455점, 청년미취업자 고용은 평점 91.581점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평점 26.876점을 획득하여 평균 평점 86.433점으로 3점 만점 중 2.593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평점 40.000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에서 평점 51.417점으로 평가 받아 평균 평점 45.700점으로 1점 만점 중 0.457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과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목표를 하회하였으나 나머지 지표는 모두 만점을 달성하여 평점 91.767점으로 3점 만점에 2.75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에 따라 기준치인 3.3% 이내를 준수하여 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는 경영정보공시 벌점 결과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1점 만점에 0.667점, 0.931점으로 평가받아 2점 만점에 1.59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은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선정하고, SWOT분석을 통해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배분하여 주요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보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제시한 성과지표와 그 실제 내용들이 다른 주요사업의 내용들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기관의 경영관리 및 성과지표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외부 DB정보활용으로 부실운영 징후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평가인력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기반 교육을 확대하면서 평가 진행 과정의 개선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에서 교육인원 수, 경력단절여성 교육수료자 중 취업률 등 투입 관련 지표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재무회계 역량 등 교육 내용에 대한 역량 향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향후 컨설팅 매뉴얼, 컨설팅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어린이집 안전사고율의 절대 수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총 5개의 계량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각 세 가지 주요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배분하고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미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도 지표는 주요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 관련 지표 등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관련 평가지표들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관련 산식 또한 도전성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당해연도 모두 신규지표이지만 과거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의 '미인증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도' 지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의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성과' 지표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역량 강화 성과' 지표 역시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의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 지표와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성과' 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000점으로 평가하였다.

2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C	3	2.77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D^+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2.986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577
주요사업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1)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10	10.000
	(2)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8	8.000
	(3) 산림복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2	1.952
	2.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				
	(1)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8	8.000
	(2)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3	2.824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안전사고 예방, 소외계층 지원, 상생 협력 및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를 구체화하고 외부 인증 확대, 국제산림교육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의 대외수상으로 성과를 창출한 노력이 인정된다.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산림복지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유용정보의 민간 이전을 추진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중심 관리를 위한 임원 직속 안전관리실 신설하였으며,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유형별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한 점, 산림청 일자리혁신본부, 노사전협의체 등의 외부 자문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 기관의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이 산림복지분야 스타트업 컨설팅을 확대하여 765명의 일자리 창출, 95%의 스타트업 생존율을 달성한 점, 직무 중심 적합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 전형별 NCS를 고도화하고 고객 및 기관의 사이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시행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의 산림복지전문업의 맞춤형 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술개발과 판로지원 노력, 산촌마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인원(1,367명)을 확대해 산촌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킨 노력이 확인되었다. 자회사인 ㈜포이파트너스를 안정적으로 설립하여 현장직원의 교육 실시,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개인성과평가 시 다면평가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이의신청제도 활성화한 점, 개방형 계약직직위 확대, 4개의 전문직위를 선정한 점,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계층별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노사상생 및 갈등해결 교육,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한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결과가 3등급으로 기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감사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감사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감사교류회 실시, 체계적인 감사전문교육을 통한 감사역량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도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개선 및 환

류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은 고충의 공정한 해결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충처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득점률은 94.458점으로 2018년 득점률 93.2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772점(만점 3점), 1점(만점 1점) 및 2.986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1.136%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2.1점을 부여받아 0.667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10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미션, 비전과 사회적 가치에 근거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과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의 2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주요사업 선정은 적정한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국정과제와 연계성을 가지고 도출한 주요사업은 성과목표 도출, 지표선정 자원배분 등 사업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 지표를 도출 및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미래사회 대응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 산림복지 시설 조성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발굴에서 체계적 관리까지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PDCA 절차에 따라 각 주요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산림복지업 창업조건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한 창업비용 절감효과도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대체로 적절하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의 경우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고려할 때, 관련 지표의 구체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향후 구체적으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2개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지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표는 대표성과 도전성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지표, 산림복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표, 민간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지표는 기관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여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지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지표는 지표 산식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9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의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지표,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지표, ‘산림복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100%, 100%, 97.6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지표와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100%, 94.13%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9.28%인 30.776점으로 평가하였다.

2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49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916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979
주요 사업	1. R&D 기획사업				
	(1)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9	9.000
	2. R&D 평가관리사업				
	(1)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3	3.000
	(2) R&D 수행기관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			3	3.000
	3. R&D 성과확산사업				
	(1) R&D 일자리 창출성과			9	9.000
	(2) 경상기술료 납부성과			7	7.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의 비전, 핵심가치를 수립했는데, 전문성, 투명성, 혁신, 신뢰, 사람중심 등의 핵심 가치가 도출되었다. 가치체계 변경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구성하려 시도했다. 또한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했는데, 기관의 위상에 부합한 수준의 내재화 수준의 과학적 측정 방안 모색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내재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하여 환경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등 긍정적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대일 수출규제 대응 KEIT R&D 패스트 트랙 성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경영진이 주도하는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2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고용창출사업을 확대하고, 탄력정원제 기반 마련 등 내부일자리 창출과 전환인력의 직무·보수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일자리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체계화하고, 일자리 매칭사업을 강화함은 물론 내부일자리 성과지표 개선 등 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채용공정성 제고 및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 노력하고, 여성 보직자 발탁 및 여성 채용 확대 등 여성 인력 활용을 강화하였다. 향후 위탁채용의 잠재위험요소 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고졸자, 고령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조직의 구체화, 안전보건관리규칙 마련, 재난안전관리 통합 매뉴얼 구축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R&D소외지역, 산업위기지역 산업지원전략 운영, 중소기업 금융·판로 등 패키지형 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노력하였다. 향후 원청·하청업체 간 공정거래질서 강화, 입찰제도 개선 등의 추가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윤리경영 전담팀 신설 및 인권경영에서의 제도 정비와 추진으로 외부청렴도 지수 상승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청렴교육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조직개편을 통한 임시조직의 정규조직화와 함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이용 및 전문가 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리더십 역량 개발에서의 충실한 교육 운영과 다면평가 운영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등에서의 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T 운영,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임금피크제의 적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이 지향하는 노사관계의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연도별 실행 목표 및 방법, 성과 지표 등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혁신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민간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있었으며 연구비불인정 AI 모델 특허 등록 등의 노력이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 및 R&D 소외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498점(만점 3점), 0.900점(만점 1점) 및 2.916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1.325%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을 부여받아 않아 1.000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79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R&D 기획사업', 'R&D 평가관리사업', 'R&D 성과확산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인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과 비전 및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도출한 핵심 전략목표로부터 추진되었다. 주요사업의 사업정의 및 대표성을 근거로 세부사업,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사회적 가치 등을 설정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성과지표 개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달리 SMART 분석, 전략연계,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발굴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부장 R&D 전담기관으로 소부장 사업에 대한 Fast-Track을 신설하여 긴급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소부장 사업 수 및 예산이 증가한 점은 우수사례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국내외 선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글로벌 벤치마킹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과목표 설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별 주요현안을 대내외 여건, 정부정책, 고객니즈 등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성과목표 선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선도형 기술 개발을 위한 R&D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관은 초고난도 R&D 프로세스 혁신, 융합기획체계 구축 등과 같이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R&D 기획 과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지표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적 산정시 기관의 당해연도 노력과 관련이 낮은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타 기관 유사지표의 실적 산정 방식과 같이 최근 일정기간내 지원했던 과제의 성과에 한정하여 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0.68%p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다. R&D 기획사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지표와 R&D 평가관리사업의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지표와 'R&D 수행기관의 연구관리역량 강화'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R&D 성과확산사업의 'R&D 일자리 창출성과' 지표와 '경상기술료 납부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2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C	3	2.7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D^+	1	0.976
	(3) 안전 및 환경	5.0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D^+	3	2.986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533
주요 사업	1. 화재예방 안전관리사업				
	(1) 소방용품 신뢰성 향상 성과			13	12.382
	(2) 위험물시설 안전성 확대 성과			6	5.366
	2. 소방 R&D 지원사업				
	(1) 소방 R&D 성과			8	8.000
	(2) 소방산업체 특허지원 성과			4	3.943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컨설팅 결과와 직원들의 전사적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경영가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비전은 '국민과 한발 더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기술 전문기관'으로 그대로 설정하면서, 핵심가치로는 '소방기술 Leader(도전성)', '소방산업 Partner(신뢰성)', '소방인재 Supporter(책임성)'을 설정하였고, 미션-비전-핵심가치로 이어지는 가치체계를 수립하였다. 기관은 전년도 감점요인이었던 윤리경영 개선을 위해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였고,'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인증(ISO 37001)'을 받았고, 계량 성과지표 가운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관은 2019년 맞춤형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유사업 확대 등 실행과제와 주·월간 회의,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평가·혁신리더 점검회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간일자리 창출관련 예산 확대, 특허지원사업 활성화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채용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 개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별요소 검토 및 부패방지 제도 개선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채용공정성 강화, 외부위원 선정, 채용비위 처벌, 비위신고 과정 등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반영하였다. 초미세캡슐 자동식 소화기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서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0년 이상의 노후 소화기에 따른 소화기의 재활용 판정, 국민의 애로사항인 폐소화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기관이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국민 재난 안전 체험을 위한 VR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민참여 소방용품 시험 검사 또한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체감 공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구축, 니즈 파악, 성과관리 모니터링 활동 등을 반영하여 주요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상생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높이고자 추진전략,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연계하였다. 체계적 모니터링을 실사하여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시책 평가, 자체 청렴도 평가, 내부윤리인식지수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토대로 고강도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지속적으로 구성원들과의 소통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등도 고려가 요구된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전략실행과 연계한 조직·인력 운영방향을 도출하고자 전략목표와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제와 환경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조직·인력 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사업, 기술연구와 진흥, 안전·경영혁신을 중심으로 중장기 조직·인력 운영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구성원의 교육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품질 개선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 대상자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 처리방안이 노·사간 갈등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관은 사전에 인지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충당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사실은 임금피크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기관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 노사 실무위원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인권영향평가단 등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 수시적 협의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성과 등을 거두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수평적 소통문화를 정립하고 경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관의 혁신 노력 체감에 대한 직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혁신 체감을 위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내외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험물시설에 대한 대국민 공개검사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검사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소방 R&D 연구과제와 소방용 그루브 조인트 및 무반동 피스톨 관창의 상용화 성공은 기관 중점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전년 94.315점에서 당년도 93.292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만점을 획득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00점을 기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 평점 59.646점에서 당년도 평점 0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평점 100점,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평점 93.636점을 획득하였으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실적은 결측처리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술개발생산품을 제외하고는 만점을 득점하였고, 기술개발생산품은 0.186점을 기록하여 총 2.986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1.8%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0.667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평점 86.700점으로 0.86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전년과 다르게 '화재예방 안전관리 사업'과 '소방 R/D / 지원 사업'으로 나누고 재차 이를 '소방용품 및 장비 검인증 사업',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사업', '소방 R&D 사업', '소방산업 진흥 사업' 등 4개 주요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실질적으로 4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도 제시하고 있어 처음부터 4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데 차별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 사업에서 성과목표 전에 세부사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 대신 '대상사업'이라 부르고 제목명도 변경한다면 이후 과정에서 재차 등장하는 세부과제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추진성과를 제시한 기관의 노력에 더욱 설득력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관은 첫 번째 주요 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한 소방용품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적극적 규제 개혁으로 소방산업체 부담을 해소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세부사업의 첫 번째 실행과제의 추진성과로 제조업체 비용 부담 절감액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실행과제의 추진성과는 건 위주의 추진성과를 나열하고 있어 성과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주요사업 일부 지표는 해당 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측면도 있으므로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실행과제에서 제시한 추진성과에 대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모든 지표가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소방용품 신뢰성 향상 성과, 위험물시설 안전성 확대 성과, 소방 R&D 성과, 소방산업체 특허지원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5.78%를 기록하였다. 소방 R&D 성과 실적이 득점률 100%로 가장 높았고, 위험물시설 안전성 확대 성과가 득점률 89.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0. 한국수산자원공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0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C	1	0.900
	(3) 안전 및 환경	7.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0	3	2.683
	(5) 윤리경영	3.0	E^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567
주요 사업	1. 바다숲 조성사업				
	(1)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7	7.000
	(2) 갯녹음 해소율			7	7.000
	2. 바다목장사업				
	(1)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6	6.000
	(2) 유용생물량 증가실적			4	4.000
	3.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				
	⑴ 전략품종 종자방류 및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			5	4.753
	4.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 노력				
	(1)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 노력			2	1.96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8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현 가치체계 적정성 점검하여, 미션과 핵심가치는 유지하고, 비전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FIRA'로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연근해 자원량 회복(503만톤 달성)', '어가소득 증대(80백만 원/년 달성)'를 포함한 도전적인 경영목표를 담은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다.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은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FIRIS)'를 구축하여 자원조성관리사업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는 인공어초 지역별 통합발주제 도입으로 품질확보 및 경비를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다만, 업무프로세스 혁신에 이해관계자 의견의 반영이 미비한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정규직 성과연봉제와 정규직 전환자 호봉제로 이원화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정규직 전환자의 보수는 정규직 대비 67% 수준이다. 이를 줄이기 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2023년까지 정규직 전환자의 보수를 정규직 대비 80%로 맞추는 계획)하여 운영 중이어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기관장 주도의 무결점 채용시스템 정착을 시도하였고, 채용단계별 개선 방향의 설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운영, 직무수행 중심의 적합인재 선발, 채용비리 근원적 차단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채용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채용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채용계획의 수립, 대행업체의 선정, 심사위원의 위촉, 채용전형으로 구분하여 개선내용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고졸인재 및 장애인채용의 확대적용을 위해 여러 형태의 활동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장한다. 생분해성 모조주머니, 친환경 로프와 부이의 활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바다숲 조성사업 확대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강화,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적극 수행, 비파괴적

방법에 따른 사업 조사 등을 시행하였다. 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직체계의 정비, 제도의 마련, 규칙의 제정, 인력의 배치, 예산 증액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해양에서의 건설 및 잠수 용역 등은 위험도가 높기에 위험요소의 사전 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나눔행사와 시설개방을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업인 니즈를 반영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보존 효과와 잠재소득의 창출 효과를 제고하였다. 지역상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적관련 기관의 주요 핵심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을 위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관의 혁신적 조직쇄신의 필요성을 토대로 전직원 의식개혁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기관장의 의지표명과 '강도 높은 경영쇄신으로 수산자원관리 전문 공공기관 위상 정립 및 국민 신뢰회복추진목표'를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윤리경영의 쇄신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미래성장 역량집중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新사업육성을 위해 사업의 전담조직 신설 등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지속성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구체화하여 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사 합동으로 보수 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호봉제인 정규직 전환자의 연공성 완화를 위한 직무기반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정규직의 직무급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하다. 하지만,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니즈 기반의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하여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한 고도화 성과도 확인되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기관은 인적구성(전환인력, 신규직 등 다양)과 사업장 산재(散在, 전국 10개소, 121개 위판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간 소통채널 확대(상향식, 하향식, 수평식), 현장소통 채널 등 다각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기관장의 혁신 비전과 의지를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공유하는지 그리고 직원의 경우 내재화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수산자원관리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들이 중점 추진과제의 성과로 의미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득점률은 92.917점으로 2018년 득점률 96.108점 대비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세부평가항목 모두 100% 실적 달성으로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여 평점 80.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으로 평점 89.43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2.745%로 1.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11.1점을 부과받아 평점 66.700점 득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87.224점으로 평점 90.0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년도와 같이 '바다숲 조성 사업', '바다목장 사업', '수산종자 자원관리 사업' 등 3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설립목적·미션·비전,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의 도출 및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자체 및 외부평가시스템을 통해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역시 인정된다. 다만,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전에 이미 세부사업이 설정되어 적용된 후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

되고 SWOT 분석을 통해 세부사업별 실행과제가 도출되는 데 있어 세부사업 설정에 대한 설정 논거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 사업 추진을 통하여 비계량 성과지표도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비계량 지표를 개발하여 그 성과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첫 번째, 두 번째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들었던 지수들에 대하여 글로벌 수준 대비 성과분석을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는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목표치 설정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4개의 사업에서 6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이 4.5개, 중장기 목표부여 0.5개, 목표대실적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연안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갯녹음 해소율,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유용생물량 증가실적, 전략품종 종자방류 및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노력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9.20%를 기록하였다. 총 4개지표(연안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갯녹음 해소율,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유용생물량 증가실적)의 득점률이 100%로 나타났고, 전략품종 종자방류 및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이 득점률 95.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83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C	3	2.97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534
주요 사업	1.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1) 식품안전위생 향상 성과			11	11.000
	(2) 영세 소규모업체 HACCP인증 활성화 성과			7	6.992
	2.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				
	(1)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7	7.000
	(2)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6	5.864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이 변환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다각화와 HACCP인증의 고도화를 목표로, 새로운 비전 2030 및 설립목적에 따라 중장기전략체계를 고도화하였다. 전략목표는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혁신중점과제를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였고, 'HACCP 내실화 지속 강화'와 'Smart HACCP 중점 추진'을 전략과제로 포함하였으며, 전략과제들을 국정과제와 연결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다만, 중장기전략체계에서 경영목표-전략목표-전략과제 간 좀 더 정교한 개념적 정렬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식품·축산 HACCP 업무프로세스의 일원화와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심사 현황 공유와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고, 국민이 직접 기관에 민원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신문고 조기 답변과 답변의 정확성이 제고되는 성과를 만들었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직원 아이디어 제안(82건), 국민의견(249명), 유관기관(20기관 10회) 의견, 사회적 약자(19개 기관 14회) 의견을 청취·수렴을 하고 이를 기초로 비전, 중장기 로드맵(2018년~2023년), 전략, 추진과제, 점검체계 등을 정립하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관련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형절차의 개선, 여성 면접위원의 의무참여, 블라인드 채용의 적용 확대등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채용절차의 개선과 채용비리의 처벌과 구제를 반영하여 채용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은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보인다. 연도 말에서야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전담인력이 채용된 한계가 있다. 안전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실 등 지속적으로 안전환경

조성과 안전 조치들이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향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적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의 경영전략, 지역사회요구, 기관의 여건을 중심으로 추진목표와 방향, 과제 등을 도출하여 지역상생과 연계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민·관 협업 플랫폼' 참여, '상생·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맞춤형 나눔활동'을 추진하였다. 윤리경영을 위해 기관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신고체계, 전담조직과 규범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환류체계를 통해 성과와 연계하였다. 다만 외부의 객관성 확보, 내부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소통공감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내부,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조직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내부직무전문가(SME) TF를 구축하여 직무기반의 체계수립, 적정인력 산정, 외부전문가 검증, 중장기 인력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제시하였다. 기관은 개방형계약직 직무에 외부전문가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통합에 따른 양 기관 보수차이 조정을 위해 기관은 역량을 결집하고 있어, 기관 특성에 적합한 직무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력과 노력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외부전문가(유관기관 임직원)을 통한 복리후생비 적정지급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확대간부회의 및 경영혁신회의에 노조집행부(2명)가 배석하고 있고, 성과평가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 등 주요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노조위원 또는 노조추천 위원 참여)하게 하여 열린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관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 혁신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 내부 혁신위원회를 확대 운영한 바가 있다. 혁신위원회는 57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이는 전사적 차원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위원회 참석실적을 보면 전사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해야 한다. HACCP 협의회, Smart HACCP 설명회 등의 소통채널의 운영으로 HACCP 만족도 제고로 이어졌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전년 92.700점에서 당년도 94.475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 평점 49.240점에서 당년도 평점 100점으로 2.833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평점을 100점을 획득하여 1.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 이행율을 보였으며, 기술개발생산품은 전년 평점 24.500점에서 당해 평점 84.800점으로 상승하여 2.970점을 획득 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1.8% 중 1.059%를 달성하여 3.000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벌점 16.6점을 부여받아 0.667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2019년도 고객만족도 결과지수 84.604점을 획득하여 평점 86.700점으로 0.86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관련 종합적인 지원사업 및 필요한 사업의 전문적 체계적 수행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사업'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 사업' 등 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영세 소규모 업체의 운영 및 재정의 어려움과 HACCP 전문지식 부족을 인식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기술 지원한 노력이 인정

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영세 소규모 업체들에 식품안전관리인증 지원 사업을 우선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증업체에 직접적인 지원방안보다는 일반 소비자가 식품 안전의식에 공감하여 HACCP를 찾는 선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HACCP 인증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가 요구되며 여타 유사 국가인증제도와의 중복 및 상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HACCP의 고유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기관은 추진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각종 사업비와 비용을 참작하여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인증확산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지표는 성과목표를 상회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정성적 평가도 시행하여 객관화된 성과측정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4개 모든 계량지표가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식품안전위생 향상 성과, 영세 소규모업체 HACCP인증 활성화 성과,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99.54%를 기록하였다. 식품안전위생 향상 성과와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득점률이 100%로 나타났고, 인증업체 기술지원효과 성과가 득점률 97.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 한국언론진흥재단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C	3	2.19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D^{0}	3	2.677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61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0}		
	(2) 국민 소통			2	1.786
주요 사업	1. 읽기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 사업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확대 글로벌 경쟁력			10	9.190
	2. 언론인 역량 강화 사업				
	(1)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8	7.796
	3.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				
	(1) 언론사 뉴스저작권사업 성장 성과			8	6.67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0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민참여형 기획취재, 공론장 마련을 통한 저널리즘 혁신 방안 등 시민참여를 통한 저널리즘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이 한계지역 및 소외계층 지원, 국민에게 유용한 언론정보·통계 제공 등 사각지대 없는 언론정보복지 향상이란 목표를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기관이 민간 중소 광고협력사 교육 지원 및 협업 확대 등 정부광고 협력사 동반성장 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성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기관이 환경변화에 따라 개편한 전사 전략을 반영하는 사업구조 개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센터 설립' 신규 사업에서 예산 25억원을 확보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알고 싶은 주제 228개를 모으고 '주제를 제안한 국민'과 '취재한 기자' 간의 정담회를 최초로 개최해 국민이 원하는 뉴스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연구무기직 자격경력 추가 인정, 정규직과 완전 동일한 수당, 과급, 승진가급 지급 체계 마련 등 동일한 보수복리 제도를 운영토록 설계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승진체계 적용을 통해 공식 직위 부여 및 초임직위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을 최초로 적용했으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무기직도 동료평가를 도입한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은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관련 성과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윤리경영의 관점에서 예산지출 결정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실적은 미비하며, 갑질지원센터 등의 실적도 아직 없어 향후 실적 창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 비상임이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 비상임이사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학력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고졸자 취업기회 개방을 통해 고졸 채용을 확대했다고 하나 실질 채용인원은

이미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56세 중졸 운전직으로 고졸 청년 채용 실적은 아직 없어 개선된 실적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197점(만점 3점), 1.000점(만점 1점) 및 2.677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기금운영관리 및 성과지표는 평점 72.213점을 달성하여 3.611점(만점 5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1.594%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6점을 부여받아 0.834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52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읽기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 사업, 언론 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의미있는 비계량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저널리즘과 미디어교육을 융합한 종합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센터 설립 추진,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통한 언론 신뢰성 회복, 국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익적 보도 확산 등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다만 언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인의 윤리적 가치함양이 기본적 전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의 선정,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도출,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나, 차세대 CMS 활용성 강화와 뉴스빅데이터 사회적 활용도 제고의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별 목표를 고려하여 3개의 주요사업에 총 3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확대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경우 기관 자체 업무 시스템과 외국 공식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관의 실적을 측정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글로벌 실적 비교 지표의 대상 기관 선정 과정에 개선이 요구된다.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지표에서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 교육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목표의 도전성을 적절히 평가했지만,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단순 언론 교육 등록인원과 교육 활용지수를 활용해서는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효과를 평가하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언론사 뉴스저작권 사업 성장 성과'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도전성이 인정되나, 벤치마킹 분석 대상 기관들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9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3개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읽기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 사업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용학교 확대 글로벌 경쟁력'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91.9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언론인 역량 강화 사업의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97.45%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의 '언론사 뉴스저작권사업 성장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83.41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 지표 달성도는 총 26점 중 91.00%인 23.659점으로 평가하였다.

3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40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3.000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832
주요 사업	1.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				
	(1) 실증형 R&D 지원 비중 확대			5	5.000
	(2)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7	**7.000**
	(3) 신재생에너지기술 시장진출 실적			5	5.000
	(4)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2.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				
	(1)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 연구성과 개선도			6	6.000
	(2) 인력양성사업 산학 연계성과 창출실적			5	5.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D^+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D^+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관장 주도로 신 가치체계를 정립했는데, 정부정책을 고려하고 대내외 여건변화, 내·외부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에너지 산업의 기술-시장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과 혁신, 포용, 안전, 신뢰,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 다만, 도출된 가치체계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경영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업무 프로세스 혁신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기관장이 주도하는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사회의 적극적 활용 등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에너지융복합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전략을 고도화하고, 인건비 재원 확보를 통한 정규직 전환의 실행력 제고에 노력하였다. 향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혁신 및 신규사업 확대, 혁신적 산업생태계 구축, 일자리 매칭 확대를 통해 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취업준비생 면접 참관, 관계기관 추천접수 등을 통해 채용공정성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 비중 확대에 노력하였다. 향후 관리자 등 여성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가점부여 대상 축소 재검토 등을 통해 사회형평적 채용을 강화하며, 공무직·기간제 등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환경 보전,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실천 목표와 실천 전략, 성과 목표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점과 이에 기반해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배치, 전개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보완하고,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협력·위탁업체와의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구축 및 온라인 메타평가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채용 및 기록물 관리 등에 있어

서의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외부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쌍교형 인사관리제도와 연계한 에너지학교 중심의 HRD 체계가 정비되었고 전문직위제 및 개방형 계약직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다만 성과평가 제도의 정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 로드맵 상 보수체계 개편의 목표 달성 여부, 추진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쌍교형 인사체계 수립에 따른 보수 체계 개편 방안과 추진 계획, 노사 간 합의 일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실제 규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노사협의회, 주니어보드 등 협의 및 소통 기구에서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프로세스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혁신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대내외 혁신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혁신을 위한 많은 회의 및 위원회 운영과 많은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403점(만점 3점), 1.000점(만점 1점) 및 3.000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1.334%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6.5점을 부여받아 0.834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98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의 중장기 목표(2025년까지 에너지 기술 경쟁력 2배 이상 강화)와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주요사업 및 정의를 도출하였다. 성과지표 개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달리 PSMART 분석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발굴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년도에 시범적용했던 ‘온라인 메타평가’ 제도를 601개 과제에 확대 적용하여 이의신청률 50% 감소, 5억원 비용절감, 그리고 타 기관 적용 사례 확산 등의 성과는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이 세부실행계획 수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상생협력, 안전환경 관리 등) 창출을 위한 효율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선도형 기술개발을 위한 R&D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해당분야 기술개발 사업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R&D 기획과정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분야와 기관이 지원하는 분야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거나 연구개발사업간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적 산정시 기관의 당해연도 노력과 관련이 낮은 실적이 일부 포함

되어 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타 기관 유사지표의 실적 산정 방식과 같이 최근 일정기간내 지원했던 과제의 성과에 한정하여 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4.19%p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다.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의 '실증형 R&D 지원 비중 확대' 지표,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지표, '신재생에너지기술 시장진출 실적',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 사업의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연구성과 개선도' 지표와 '인력양성사업 산학 연계성과 창출실적'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3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0.908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0	3	2.912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834
주요 사업	1. 우체국쇼핑 운영 사업				
	(1)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8	**8.000**
	(2) 우체국쇼핑 우체국콜센터 동반성장 노력			5	3.195
	2. 우체국콜센터 운영 사업				
	(1) 상담 운영 성과 증대			4	3.907
	3. 우정문화 보급 및 홍보				
	(1) 중소상인 홍보활동 지원			6	4.512
	(2)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확산 노력			8	8.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국민중심의 우편서비스 제공’과 ‘신뢰경영체계 구축’이라는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대국민 공익활동 강화’, ‘우편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회적가치 경영 선도’,‘미래 혁신방향 기반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기관은 경영여건에 관한 SWOT분석 결과와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전략적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다만, 전략과제들과 기관의 가치체계와 부합되게 명확성, 정합성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업무프로세스 혁신 차원에서 직원들의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업무혁신이 내재화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관은 사내벤처 도입, 우체국기술혁신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노력을 하였고, 사회적 기업, 농식품 창업농가, 고용위기지역 등과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관련하여 능력중심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공정채용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공정·투명 채용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프로세스 강화 및 채용 전문업체를 활용한 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인재 로드맵을 구성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은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자로서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고객참여형 품질지킴이를 2019년 하반기부터 활용하였으며, 전문기관과의 협업, HACCP 인증 상품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12월에 완료되고, 수급기관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활동을 통한 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상생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실현을 위해 POSA준법·윤리경영체계 재정립구축을 시행하였다. CEO의 의지를 반영하여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여 체계 재정비 및 청렴·윤리문화 확산, 윤리경영선도를 중심으로 윤리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시하였다. 구성원들과 소통의 기제를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활동이 적용되도록 권장한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비전과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4대 전략목표와 14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장기조직운영 방향과 인력운영 방향을 1단계, 2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미래혁신, 연구센터,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인력배분안을 마련하였다. 미래경쟁력 향상 및 핵심사업 추진동력을 위해 정원을 확보하여 제시하였다. 미래혁신성장 및 사업발굴을 추진하면서 민간일자리 창출을 주요 추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관의 실질적 역할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주니어보드 직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예산 비수반 복리후생제도('30분 단위 연차제도', '10년 적치 가능한 연차저축제도'등)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관과 구성원 간 소통채널이 기관의 특성(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조직의 상시 취약계층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통하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형 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은 기관의 조직내 취약계층 이해관계자의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실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미래혁신연구센터를 기관의 미래혁신역량과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의 주도 조직으로 설정하였고, 업무의 혁신, 사내벤처제도의 도입, 우편물류 빅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서 공헌하였다. 우체국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총 226업체의 32.15억원의 매출 달성에 기여하였다. 시민참여혁신단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참여형 품질지킴이와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전년 97.385점에서 당년도 97.117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동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평점을 각각 100점, 81.579점을 획득하여 0.908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 이행율을 보였으며, 기술개발생산품은 전년 평점 100.000점에서 당해 평점 55.800점으로 하락하여 2.912점을 획득 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1.8% 중 1.797%를 달성하여 3.000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벌점 4.5점을 부여받아 0.83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1.0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체국쇼핑 운영사업, 우체국콜센터운영 사업, 우정 문화 보급 및 홍보 등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사업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업추진활동에 대한 효율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주요사업 성과지표 중 계량지표 12개 절반인 6개만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는바, 부진 원인분석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계량지표 6개는 목표의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설정된 목표 외 목표산정 근거, 사업여건, 전년 대비 개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

였는데, 대부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은 3개의 사업에서 5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 방식이 4개, 목표대 실적 방식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우체국쇼핑 협력업체 동반성장 노력, 상담운영 성과 증대, 중소상인 홍보활동 지원,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확산 노력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89.08%를 기록하였다.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확산 노력 성과가 득점률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체국쇼핑 협력업체 동반성장 노력 성과가 득점률 63.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5. 한국임업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배점	등급	배점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62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B^+	3	2.976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792
주요 사업	1. 임업소득 증대				
	(1) 산양삼 생산율			5	5.000
	(2) 임업소득 증가성과			4	3.350
	2.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1) 산림과학기술 성과확산			3	3.000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2	2.000
	(3) 우수 목재제품 유통률			8	7.648
	3. 산림자원 보호·육성				
	(1) 소나무재선충병 감소 성과			6	6.000
	(2) 지속가능 산림자원 확대 성과			3	3.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관련법령, 핵심 업무,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미션의 적절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전 직원 워크숍, 이사회 소위원회, 국민참여혁신단, 임업후계자협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설정했다. 기존 3대 경영방침에 안전과 책임경영을 추가했는데, 사회적 가치 위주의 경영방침으로 재편되었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및 내재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기능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장 주도의 사회적 가치체계의 내재화 노력과 이사회 활용의 적극성이 더 필요하다. 기관은 일자리지원본부를 중심으로 4대 전략과제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정·현원차 관리를 통해 내부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향후 산림창업기업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일자리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산림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매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채용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와 채용·승진 등에 있어 인권감수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향후 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역량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및 보직자 확대를 위한 계획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개인 상담 프로그램과 집단 프로그램을 이원화해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힐링 마인드 프로그램인 오피스요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산촌경영체 발굴·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화하고, 중소업체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용역·위탁사업의 계약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향후 사회책임활동에 대한 국내·외 인증 노력을 강화하고, 산림산업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확산과 유인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 제·개정을 바탕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기록물 관리 체계 고도화 및 내부

견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활동을 위해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고도화 및 전 직원 환류체계(인사데이)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 제도의 운영 및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일·가정 양립 활동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전 직원 직무 조사, 직무 분석, 직무 선정 및 분류, 직무 체계 TF 운영 등의 실적이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 연계되도록 구체적 계획과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익명 카톡방 등 소통 채널을 통해 전체 직원과 직접 소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혁신전담 부서 신설 및 혁신 면책 제도와 WIKI 업무매뉴얼 도입 등의 노력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혁신인프라 시스템의 환류 체계 정비 및 혁신 역량 강화 집합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전년 94.500점에서 당년도 94.967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당년도 소폭 상승하여 당년도 2.628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동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평점을 100점을 획득하여 1.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 이행율을 보였으며, 기술개발생산품은 전년 평점 86.500점에서 당해 평점 88.000점으로 상승하여 2.976점을 획득 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1.8% 중 1.576%를 달성하여 3.000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벌점 6.6점을 부여받아 0.83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0.95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임업소득 증대',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 보호·육성'의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평가대상 사업별로 정부정책, 사업고객 및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제시된 사업집행내용이 대체적으로 주요사업 및 성과목표와 연관되고 경영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R&D 지원체계의 변화를 통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산림인증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PDCA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한 차기연도 환류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환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지표 산식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지표는 실적 산정시 산림청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기관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되나,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표지표인 '산림과학기술 성과확산' 지표는 예정실시료와 기술료를 세부지표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1.64%p 하락한 96.77%를 기록하였다. 임업소득 증대사업의 '산양삼 생산율' 지표와 '임업소득 증가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100%와 83.75%를 기록하였으며,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산림과학기술 성과확산' 지표,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 '우수 목재제품 유통률'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100%, 100%, 96.77%를 기록하였다. 또한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소 성과' 지표와 '지속가능 산림자원 확대 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36. 한국재정정보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D^+	3	2.86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600
	(3) 안전 및 환경	5.0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D^+	3	2.916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42
주요 사업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 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9	9.000
	(2) 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노력			7	7.000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1) 안정적 시스템 운영			7	7.000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1)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무사고 달성 노력			8	8.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은 정책환경 변화와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전략체계 진단 후 중장기 경영목표와 경영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다. 그리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로 도전적인 성과목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정정보활용도 증가율'과 같이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할 여지가 보인다.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를 추가 신설한 것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의 전략과제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재설정하려고 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되나, 12대 전략과제와 국정과제가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기관은'편리함'의 개선 위주로 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추진하였고, 많은 경영효율화 혁신이 달성된 것은 고무적이나, 이해관계자의 상이하고도 다양한 요구를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기관은 전년도 높은 정현원차 개선을 위하여 채용여력 상시 예측분석, 채용 횟수 확대를 통한 결원 즉시 채용 및 예비합격자제 운영 등으로 기관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50명을 채용하여 정현원차를 ZERO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기관은 차별요인의 원천적 차단을 통한 공정채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전형별 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응시자 중심의 채용정보·처리결과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이다. 경력단절여성 신규임용시 제한된 직무에 한정하기 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여 적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 여성리더십 강화프로그램 반영시 교육프로그램의 단계별 접근, 기관의 다양한 보직경로 등을 거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각에서 의견 수렴 및 제도적 반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18년 있었던 정보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재정분석시스템을 주요 정보통신기

반시설로 지정하였고 취약점 진단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최신 해킹 기법 등에 대한 진단 등으로 SSO(통합로그인)의 취약점 개선, 중복로그인 방지 등의 보안을 강화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dBrain 및 e나라도움 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였으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140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의 역량과 지역사회 요구를 매칭한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의 고유역량을 사업분야 역량과 기술 및 인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였다. 다만 추진성과 도출시 기관의 주도적 역할의 비중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을 위해 내규관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지침, 인사·감사규정 등 규범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윤리경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한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천을 통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미션을 토대로 정보보안 강화, 시스템 고도화, 고객맞춤 지원, 맞춤형 통계, 공공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내·외부 진단을 통해 중장기 인력배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기관은 전략목표상의 핵심업무 기능진단과 역할·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합, 개선, 조정을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사회수요에 맞춰 중장기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인력 증원 안을 현실성있게 반영 및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직무급 보수체계 도입을 구성원 합의하고 2019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에 물꼬 역할을 하고 있어, 2019년 부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안정적으로 직무급 보수체계를 운영한다면, 기관은 다른 기관의 직무급 보수체계의 개편에 시금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직무급 보수체계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한 고도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기관의 고충처리제도의 대부분은 거버넌스체계 형식이 아닌 개인상담원 체계로 되어 있다. '고충처리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점과 개인상담원 체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도의 활성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기관은 기관혁신에 있어서 기관장 주도의 혁신 TF 구성과 54개 혁신과제의 도출과 추진 노력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기관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추진단' 경영혁신팀의 직제규정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장 결재건에 '사회적가치 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혁신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였다. 기관은 국가 세출예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확대 공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소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의 득점률은 92.667점으로 2018년 득점률 86.700점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 일자리 창출 지표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에서 만점을 득점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여 총 평점 95.400점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인재개발원 등과 업무협조 강화를 통해 총 7명의 신규채용이 있었으나, 임용포기자 및 휴직자 발생으로 의무고용률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여 총 평점이 전년대비 43.2%가 향상되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 6개의 항목이 목표를 달성하여 97.2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직무급을 전면 도입하고, 보수 연공성을 완화하여 누적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으로 1.8%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자체 수정공시 1건(벌점 0.5점)으로 0.834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대비 상승하여 0.90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한 운영과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안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사업별 평가대상 사업들을 설계하고, 이에 부합되는 핵심성과지표를 설계하였으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의 재설계가 요청된다. 또한 평가대상 사업별로 부합되는 성과지표들의 목표설정에 있어도 객관화된 근거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치 설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의 안전적 관리와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수급 방지체계 개선과 사용편의성 제고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본부를 신설하고 내부 조직을 확대하면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한 부분은 기관의 고유 업무와 부합되는 보안관리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사업 수준의 안정적인 보안서비스 운영을 감안한다면, 정보보호 통제항목과 개인정보보호 통제항목 사이에 연관성분석 작업을 통해 연계·차별화된 보호활동 추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경영전략과 정보보안전략 사이에 단계별 부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은 3개의 사업에서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이 1개, 목표대실적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노력, 안정적 시스템 운영,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무사고 달성노력 성과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의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100%로 5개 지표 모두 득점률 100%를 기록하였다.

3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50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D^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C	3	2.964
	(5) 윤리경영	3.0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969
주요 사업	1.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1) CYS-Net 서비스 위기수준 변화도			9	7.609
	(2)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3	3.000
	(3) 스마트폰 중독 개선율			5	5.000
	(4)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3	3.000
	2.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1) 청소년상담사 양성률			5	3.349
	(2)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			6	6.00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0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브릿지토크, 중장기전략개발 TF, BT회의체 등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전 과정의 구성원 참여 채널 확대로 구성원 가치체계 내재화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이 브릿지토크, 중장기전략개발TF, BT회의체 등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전 과정의 구성원 참여 채널 확대로 구성원 가치체계 내재화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도서·산간지역 등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상담 서비스 '잇는 채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정보 시스템 '알쓸신JOB' 개편, 매3년에서 매년으로 취업률 조사 확대, 컨설팅 제공 등 청소년상담사 취업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야간 생활지도 근무 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제도를 활성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차량 공공2부제 시행, 전 임직원 대상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실시와 같은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18세 투표권 부여 등 청소년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청소년 참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이고 있어 환경 변화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청소년 자살율이 상승하고 청소년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행복과 삶의 가치에 대한 목표 재정립과 기관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요 전략과제 중장기 로드맵으로 아카이브 데이터 공공개방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지표는 하락 중이므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재 채용 및 이전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전년대비 실적이 각각 16.6%p, 16.7%p 감소하고 특히 비수도권 인재의 경우 실적보고서 상의 수치 오류가 발견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다고는 하나 실적으로 기술한

직제와 직무는 거의 같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연말에 이루어져 금년도 실적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대졸 이상 사원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득점률은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507점(만점 3점), 1.000점(만점 1점) 및 2.964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2.8%)이내인 1.878%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을 부여받지 않아 1.000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969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설립목적 및 환경분석을 통해 미션 및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3대 전략목표와 10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활성화,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의 2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청소년안전망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 미디어과의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선정하였고,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청소년상담사 양성, 청소년폭력 예방환경 조성을 선정하였다. 각 세부사업별로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기관이 추진한 2개의 주요사업은 적

절하게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과거 CYS-Net을 청소년 안전망으로 개편하여 위기청소년 안전환경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취업지원활동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인정된다. 아울러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사업별 환류 노력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소년 안전망에서 잠재적 고위기 청소년일 수도 있는 중·저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프로그램 보급 후의 현장 활용성과 지속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상담사가 자신의 역량 개선정도를 자가로 측정하기보다는 청소년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개선정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2개 주요사업에 총 6개의 계량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관의 주요사업과 계량지표가 적정한 연계성과 대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의 신뢰성은 일정 수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모든 지표의 목표치를 목표부여(편차)방식을 적용하여 평가방식의 도전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등의 지표가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19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사업의 'CYS-Net 서비스 위기수준 변화도' 지표는 목표대비 84.55%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지표, '스마트폰중독 개선율' 지표,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사업의 '청소년상담사 양성률' 지표와 '학교폭력 예방환경 조성'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66.98%,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0.19%인 27.958점으로 평가하였다.

3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B^0	3	2.88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D^+	1	0.920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C	3	2.986
	(5) 윤리경영	3.0	E^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 소통			2	1.667
주요사업	1. 사회적가치구현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1) 청소년수련활동 효과성 제고 성과			9	**8.316**
	(2)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			2	2.000
	2.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4	4.000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3	3.000
	(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4	4.000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6	6.000
	(2)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3	**2.919**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0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84개의 세부실행과제별 성과지표 및 수행주체를 설정하였다. 기관은 국립청소년시설 책임경영체계 구축하고 비효율·저성과 사업을 폐지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정보 가치 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안전관리체계 개선, 국민 참여수준 강화, 상생협력체계 구축, 공정·투명 업무수행,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사회적가치 성과창출을 위한 5대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국민·이해관계자가 활용하는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사회배려대상 사업 전국 단위 70개 기관과 협업하는 등 내부 R&D 강화 및 유관기관 발굴·협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된다. 기관장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 운영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활동 시설 안전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인권경영 조직 정비 및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체험형 청년 인턴 19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자회사로 전환된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523백만원을 확보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구매확대를 위한 과제를 수립하여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조직 성과평가에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 구매율을 전년대비 72.3% 증가시킨 노력도 확인된다. 다만 기관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시간절감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신규 프로그램 실용신안 출원으로 인한 창출효과에 대해서 기관의 노력과 현실을 다소 과다하게 기술하고, 방과후아카데미의 효율화 성과도 결국은 만족도로 모니터링 하는 등 경영효율화 성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점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우대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도 전년도에 비해서도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인원과 비율은 격감하고 있어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진단에

서는 전년대비 17.6점 상승한 46.5점을 받았으나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므로 취약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개선 노력과 대외기관 평가점수를 직접적으로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계량성과 지표와 연계하는 등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소관 부처 평가결과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 각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채용실적이 부족하여 다소 낮은 평점 60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일자리 창출지표에서는 평점 96.000점으로 2.880점을 획득하였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을 제외한 항목에서 평점 100점을 획득하여,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서는 평점 92.000점, 득점 0.920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항목은 평점 93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을 제외한 6가지 구매 실적은 모두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 각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평점 99.533점, 득점 2.986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2019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607%로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 2.8%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2019년 벌점이 13점으로 0.667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평점 100점, 득점 1.0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주요사업으로 2018년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을 삭제하고, 2019년에는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사업,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을 3개 주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였다. 주요사업 선정은 4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도출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설립목적, 경영전략과 연동된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 과제와 연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요사업별 대상사업 목표, 실행과제, 성과지표가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계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를 적절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지표의 목표설정 근거는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나 반면 비계량지표의 목표설정 근거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지표 도출을 위한 지표 pool은 더욱 다양하고 추가된 내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사업 성과는 대체로 적절하게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환류활동도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총 3개 주요사업에 7개의 계량지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효과성 제고,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지표,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지표 등은 일정수준 지표의 적정성과 도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지표는 취약계층 지원 외에 공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추가 세부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인증수련활동 확산 지표는 참여청소년 연령대와 실제 청소년 연령대의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지표는 과거 5개년 실적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아 목표수준이 도전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지표는 방문자 수 감소에도 평점이 증가하는 왜곡이 발생하여 도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사업의 '청소년수련활동 효과성 제고 성과' 지표와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2.40%

와 100%를 기록하였다. 한편,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의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지표,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지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는 모두 득점률 100%을 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의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지표와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 대비 각각 100%와 97.3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7.53%인 30.235점으로 평가하였다.

39.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44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C	1	0.987
	(3) 안전 및 환경	5.0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D^+	3	2.506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 소통			2	1.803
주요 사업	1. 중소콘텐츠 기업 혁신성장 기반조성				
	(1) 문화기술 상용화 지원 성과			10	10.000
	(2)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성과			8	8.000
	2.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1)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 성과			4	4.000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콘텐츠 지원율			3	3.000
	(3)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콘텐츠 산업 재해 감축 노력			3	3.000
	3.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1)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성과			3	2.781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설립목적의 재해석을 통하여 기관의 업 특성에 기초한 콘텐츠 기업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다는 미래상을 도출했다. 문화, 게임, 영상 등 3대 콘텐츠 산업별 혁신전략에 따라 가치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내재화 수준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영개선 관점에서 기능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관장 주도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이사회의 활용도 증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콘텐츠 분야 혁신적 일자리, 지역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전환자 대상 처우 개선, 별도 직군 신설 등 직무·보수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콘텐츠산업계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보완하여 일자리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내부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채용제도 개선과제 9개를 시행하고, 환류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여성 인력 활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졸자, 무기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채용여력을 확대하여 지역인재 채용여건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관리상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안전전담조직 신설,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안전기본계획 수립, 국제공인 ISO45001 인증 획득, 위험성 평가 도입 등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16개 거점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개선하고, 콘텐츠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성장지원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콘텐츠기업 육성전략을 강화하고, 콘텐츠분쟁조정기능을 내실화함은 물론 납품업체 뇌물수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윤리경영전담조직 구성 및 인권경영 로드맵 구축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청렴사이버교육 및 갑질 관련 자가진단에 대한 기관의 점검이 요구되며 외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관의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기관은 경영효율화 추진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 R&R 조정과 교육에 집중적으로 노력함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조직개편 및 평가 운영방법에 있어서의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가지 내재화 및 분원근무 희망사유 심의제 등에 있어서의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현행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점검, 분석해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실천 목표 및 실천 방안, 성과 목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기초해 경영참여 제도, 의사소통 제도 개선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 요건 확대와 소통 및 환류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 외부 일자리 창출에서의 긍정적인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구성원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득점률은 89.483점으로 2018년 득점률 86.523점 대비 향상되었다. 일자리 창출 지표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에서 0.776점을 득점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580점을 득점하였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018년의 60.000점에서 크게 하락하여 28.821점을 기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2018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평점 98.7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중소기업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생산품에서 46.841점을 획득하는 등의 저조한 실적으로 종합하여 2.506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1.8%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0.834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대비 상승하여 0.969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과 유사하게 중소콘텐츠 기업 혁신성장기반조성,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의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기관은 미션체계와 추진계획을 전년도보다는 개선을 하였지만, 개별 주요사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고 평가대상사업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체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추진한 3개의 주요사업은 적절하게 추진되었으며 사회적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기관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양한 콘텐츠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창업지원으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가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다시 해외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 간의 연계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굴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 환류와 관련해서는 체계를 좀 더 보완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미개선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해연도 자체평가 결과의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환류계획을 추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사업과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지표 산식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제출한 매출실적 공문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나,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계량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0.25%p 상승한 99.29%를 기록하였다. 중소콘텐츠 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사업의 '문화기술 상용화 지원 성과' 지표와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사업의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 성과' 지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콘텐츠 지원율' 지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콘텐츠 산업재해 감축 노력' 지표의 득점률도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사업의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92.70%를 달성하였다.

4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C	3	1.78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D^+	1	0.5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D^+	3	2.958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974
주요 사업	1.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1)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10	10.000
	2.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1) 특허기술 동향조사 신규 지원율			6	6.000
	(2)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생산성			8	8.000
	3.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				
	(1)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성과			7	6.6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설립목적을 확대 해석해서 국민, 근로자, 생명,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가치체계를 재설정했다. 그 결과 핵심가치 해석을 통한 사회적 책임 부여와 가치체계 내재화 강화를 통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자, 포용적 혁신,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를 새로운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 향후 내재화 수준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기능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가치체계의 내재화를 통하여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기대하는 경영진의 노력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수단과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중장기 일자리 목표를 토대로 민간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최소화, 직종간 차별 개선 등 전환 성과 향상에 노력하였다. 향후 핵심고객기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자리 과제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 매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개선, 면접기준 강화 등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졸 적합직무 개발 등에 노력하였다. 향후 채용기준 개선을 통한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강화하고, 청년·지역인재 채용기반 강화 및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인력운영계획의 개선이 요구된다. 환경 보전의 지속적 실천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실천 목표와 실천 전략, 성과 목표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 보전 사업 및 계획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부서의 역할과 기능, 이를 위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전사적 차원의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마련하고, 산업·고용 위기지역 특허전략 지원 강화, 일본 수출규제 애로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향후 19개 지역혁신센터와 연계한 권역별 지역발전계획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레드휘슬 및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규 구축과 함께 사업추진 투명성 제고 및 인권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기록물관리 및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은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개방형 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를 확대 운영한 점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조직개편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및 일·가정 양립의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 능력 및 성과에 기반한 보수 체계 구축을 위해 직무 분석 및 직무 가치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청년이사회, 성과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경영현안회의 등 근로자들이 경영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기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마련 및 기관장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TF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혁신 교육 프로그램 환류 체계에 있어서도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득점율이 전년 85.315점에서 당년 85.167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전년 평점 96.700점에서 당년 96.698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전년 평점 29.300에서 당년 25.512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평점이 60.000점으로 일자리 창출 지표는 1.788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은 전년 평점 40에서 당년도 평점 0점으로 하락하였지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실적은 전년보다 상승하여 평점 100점으로 0.500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중소기업생산품 우선 구매 등 6개 항목에서 모두 100% 이행을 하여 평점 100점을 득점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항목에서 평점 86점을 획득하여 2.958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1.8% 중 실적치 1.449%를 달성하여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지표 중 경영정보

공시 점검에서 당년도 벌점이 0점으로 평점 100점 획득,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9.484점으로 전년도 87.754점에서 상승하여 평점 97.400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보유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의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일본 수출규제에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특허기술의 지자체 이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노력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성과지표별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응 노력과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PDCA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을 포함한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및 개선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해외 선진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Gap 해소 방안을 추진전략에 반영한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환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되나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

표치 설정이 요구되며,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8.56%p 상승한 98.71%를 기록하였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사업의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지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사업의 '특허기술 동향조사 신규 지원율' 지표,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생산성' 지표의 득점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사업의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94.29%를 달성하였다.

4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B^0	3	2.51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0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5.0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	C	3	2.652
	(5) 윤리경영	3.0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667
주요 사업	1.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				
	(1) 해양사고 감소실적			11	6.871
	2.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1)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15	15.000
	3.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성화				
	(1) 연구성과 창출 노력도			5	5.0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C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기존 전략목표'해양수산 HRD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의 현실과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가미하여 새 전략목표를 '교육훈련 기반 인프라 강화'로 전환하였다. 다만, '미래성장 역량 강화'라는 전략목표는 단순히 연구성과 제고, 아시아·태평양 선원네트워크(APEC SEN) 협력 강화, 글로벌 해외취업프로그램 활성화만으로는 그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 혁신, 현실적합성 높은 교육내용 내실화, 인프라 확충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기관의 글로벌 승선취업프로그램의 결과 해외취업생의 수적 확대, 지역다변화, 승선 선박의 다양화 성과가 나타났지만, 향후에는 지역별 성과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협약체결 등 제도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관은 2017년 구축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은 용역·파견 근로자 직고용 전환 및 처우개선 단계이다. 이에 따라 기관은 전환 대상자 75명을 직고용 전환 완료 하였고, 전환자에 대한 인사와 보수의 처우 등을 개선하였다. 기관의 이런 노력과 성과로 전환자의 보수·복지제도 만족도는 92.5점을 달성하여 긍정적이라고 인정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공정채용 3대 원칙인 통제강화, 엄중 제재, 투명성·신뢰성제고를 설정하여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이의 실행안을 제시하였다. 채용제도의 개선절차 수립과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13개 과제를 도출하여 인사규정, 직원채용규칙, 상벌규칙을 중심으로 개선항목을 도출하고 개선을 시행하였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기준이나 공정한 채용을 위한 내용 등이 대상별, 유형별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19년 1월 25일 발생한 해사고 1학년 연수생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책임있는 태도를 가지고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후 기관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수영장에 대해서 특별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요원의 지정 운영, 수영장에 대한 CCTV 설치, 안전라인의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관련하여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 국정과제, 지역사회니즈, 기관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역상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력 조성을 도출하여 추진과제와 연계 제시하였다. 지역현안 해결을 통한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해양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소통 및 참여확대로 공공성을 증진하는 등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기관은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고도화를 제고 하고자 윤리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조직의 확대, 규범정비, 의식확산 등을 반영하고 PDCA 실행체계를 제시하였다. 기관장 주도의 윤리경영 의지를 표명하여 청렴문화 조성 의지를 전파하고 청렴마인드 확립을 위한 솔선수범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윤리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의 주요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지식, 혁신, 윤리, 안전, 협력의 핵심가치와 전략목표를 도출하여 조직인력 진단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유 핵심사업기능과 공공성 및 미래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자 조직·인력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구성원의 소통기제를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적극적인 직원니즈 분석을 하고 이를 기초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의 복지예산 확대요구에 따라 복지 재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는 등,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면서 직원의 근무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개 노조체계의 안정적 정착 등의 필요에 따라 신규채널 발굴·운영, 소통채널 강화 그리고 소통채널 정비 등을 통한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노력과 노·사간 공감대의 효율적 형성을 위한 경영진과 직원간 소통, 상향식 소통, 하향식 소통, 수평적 소통, 그리고 통합적 소통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한 실적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기관장은 혁신의지를 반영하여 혁신활동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아이디어 발굴, 혁신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참여혁신단'은 해양수산발전에 관심있는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관의 혁신과제발굴 이행점검 등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초등학생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직접 교육에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양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득점률은 89.417점으로 2018년 득점률 88.808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511점(만점 3점), 0.9점(만점 1점) 및 2.652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1.8%)이내인 0.797%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5.6점을 부여받아 0.667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한 해양수산인력 양성, 선박 운항 및 어업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 '초급 해기사 교육 품질 제고',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성화' 등 3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주요 사업추진에서 다양한 해양사고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신규교육 발굴, 교육생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수요 창출 등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성과목표 전에 선정되고 SWOT 분석을 통해서도 그대로 실행과제 도출의 상위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성이 미흡한 추진과정과 추진체계에 대하여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주요사업과 계량지표간의 연계성과 일부 주요사업에서 비계량 성과지표의 성과분석과 성과달성수준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활동을 하였고 특히, 2019년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자체평가를 통한 당해연도 환류 활동 결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환류 활동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3개의 사업에서 3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모든 지표가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량지표는 해양사고 감소실적,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연구성과 창출 노력도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86.68%를 기록하였다.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연구성과 창출 노력도 성과가 득점률 100%로 나타났고, 해양사고 감소실적 성과가 득점률 62.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	3	2.71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	1	0.925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C	3	2.976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0.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51
주요 사업	1. 환경R&D 지원				
	(1) R&D 과제의 현장 활용도			5	5.000
	(2) R&D과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7	6.990
	(3) 연구비 투명성			3	3.000
	2. 환경산업 육성				
	(1) 중소중견 환경기업 국내외 매출실적			6	6.000
	3. 친환경상품 확산				
	(1) 친환경시장 확대지원 실적			5	4.353
	4.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1) 환경보건 취약계층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5	5.00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0		
	6.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설립목적을 새롭게 정의해서 국민 중심 경영을 위한 비전 및 핵심 가치를 재설정했는데, 기존의 '환경과 경제의 상생' 관점에서 '국민의 쾌적한 환경의 질 향유' 관점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안전가치가 신설되고 총 6개의 핵심 가치에 의하여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기관은 비전, 핵심가치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4단계에 걸친 프로세스별 구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사회적 가치 내재화 수준에 대한 측정방식에 대한 고민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 경영개선이 필요할 것인데, 기관은 상대적으로 업무프로세스 혁신 관련 개선 성과가 크지 않다. 기관장 주도로 추진된 가치체계 공유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종합지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적극적 채용정책을 통해 내부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 전환자 대상 직무·보수·처우 개선에 노력하였다. 향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체계화하고, 환경산업분야 기술혁신형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면접체계와 AI면접 등 직무역량 중심 채용체계를 강화하고, 경력단절녀, 신중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 노력하였다. 향후 환경약자의 범위와 대상별 지원 사항을 체계화하고, 임금피크제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형평적 채용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 시설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설 개선 및 진단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은평, 인천 등 소재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사회 참여에 노력하였다. 향후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보완하고, 환경산업분야 일감몰아주기 해소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자체평가(CSA) 확대 운영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종합청렴도

조사에 있어서 등급 상승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록물 관리와 청렴교육 환류 체계 개선 등에 있어서의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SMART-HR 시스템 개발로 성과평가 만족도 개선 및 업무추진 방식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개방형 직위제 및 전문직위제 운영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육아휴직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기관의 검토가 요구된다. 직무 분석 및 조직 효율화 연구 등을 추진하고 직무급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외부 기관 공식파견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한 실적은 긍정적 평가다. 좋은일터만들기 위원회로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여 RPA 도입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집중근무제도 도입, 예산전용 간편화 시스템 도입, PC-OFF 제도 도입을 통한 업무 집중도 상승 및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감소,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강화 및 사내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창출한 것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혁신점단 조직 구축 및 혁상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시범 도입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많은 협의체와 TF 운영에 있어서의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혁신 교육 환류 체계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회적가치구현 총득점율이 전년 91.150점에서 당년 94.54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평점 98.724점을 달성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평점 100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평점 9.941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은 전년 평점과 동일하게 80점을 획득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평점 100점으로 0.500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술개발생산품을 제외한 중소기업생산품 등 우선 구매 실적,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평점 99.2점, 득점 2.976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1.8% 중 실적치 2.123%를 달성하여 0.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전년 벌점 8.5점에서 당년도 3.0점으로 평점 83.400점 획득,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7.236점으로 평점 91.660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환경 R&D 지원사업과 환경산업 육성사업, 친환경상품 확산사업,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사업의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션체계도와 추진계획, 환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비교적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추진한 4개의 주요사업은 적절하게 추진되었으며, 기관이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업에 따라 Eco - Bridge를 추진하여 과기부 우수기초기술 개발성과를 환경분야의 실용화 연구에 연계한 것은 국가 R&D 재정 효율화와 성과활용을 도모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환경 R&D 지원사업의 성과가 기관의 다른 주요사업과 연계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사업 성과는 적절하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 환류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성과평가활동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활용한 환류활동에 대해 추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되나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되며,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3.79%p 상승한 97.88%를 기록하였다. 환경R&D 지원사업의 'R&D 과제의 현장 활용도' 지표, 'R&D과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지표 '연구비 투명성'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100%, 99.86%,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환경산업 육성사업의 '중소중견 환경기업 국내외 매출실적' 지표, 친환경상품 확산사업의 '친환경시장 확대지원 실적' 지표,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사업의 '환경보건 취약계층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각각 100%, 87.06%, 100%를 달성하였다.

4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평가 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0**	D^{+}	3	2.59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0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3.0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0	D^{+}	3	2.952
	(5) 윤리경영	3.0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 소통			2	1.758
주요 사업	1. 해양수산R&D 융복합기술 지원 강화				
	(1) 해양수산분야 융복합기술 지원 확대			7	6.789
	2. 해양수산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				
	(1) 해양수산분야 연구 질적 관리 강화			10	9.546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3. 해양수산R&D 시장창출 성과 제고				
	(1)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지원			11	10.43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C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D^{+}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합계		**55**		**43**	
가점	1. 혁신성장	1	0.600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0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혁신성장 관점과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설립목적을 재해석하고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산업진흥의 역할을 새롭게 도출하고 임직원이 참여한 상황에서 가치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가치체계의 내재화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결과 내재화 수준이 상당 부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기관은 미래 사업에 주로 관심이 갖고, 기능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기존 사업의 폐지, 이관, 지속 등을 판단할 경우에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관장의 경영계약 과제 선정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경우, 목표설정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도 적극 반영되어 구성원 간 가치체계의 공유도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지수를 토대로 중기일자리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지원 다변화, 해양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향후 근무형태 다양화 등을 통한 내부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혁신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기직 직무체계 개선 등 직종 간 불합리한 차별 개선, 지역인재 및 여성인력 채용 확대에 노력하고,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향후 고졸자, 비수도권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실천 계획과 방법, 성과목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지역농어가·사회적 기업·복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다자간 공익거래모델'을 구축·운영하였다. 향후 8개 권역별 지역발전사업의 목표와 전략체계를 보완하고, 수산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기록물 관리체계 고도화 및 감사인의

전문성 확대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윤리경영 내부 환류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에 있어서의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혁신성장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HRD 체계 구축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조직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기관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편성 시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건비, 경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편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 이행율 제고를 위해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기 전에 노사협의회 간사 회의, 노사 한마음 워크숍, 한마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혁신전담부서 신설 및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기관장의 연구현장 방문 등 혁신 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양한 소통 채널 정비 및 혁신 교육의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전년 91.577점에서 당년도 94.200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당기 24.9점이 하락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당년도 52.487점이 상승하여 당년도 2.594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동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평점을 100점을 획득하여 1.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 이행율을 보였으며, 기술개발생산품은 전년 평점 83.860점에서 당해 평점 88.150점으로 상승하여 2.952점을 획득 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1.8% 중 0.956%를 달성하여 3.000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벌점 6점을 부여받아 0.83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0.92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18년과 동일하게 '해양수산 R&D 융복합기술 지원 강화', '해양수산 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 '해양수산 R&D 시장창출 성과제고'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이 사회적 가치 및 전략연계를 고려한 SMART 평가를 통해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전년대비 목표부여 방식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관은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표가 포함된 Pool과 평가결과를 같이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략목표와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확보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지표선정 과정에서 AHP(계층화)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석 방법은 평가 주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관 내 일부 부서의 인원이 참가한 경우 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외부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비계량 성과지표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그 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과 도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계량 성과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이나 산출 차원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목표 설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계량지표는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 구성 또한 기관의 사업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과 지표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적별로 세부지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적 산정시 기관의 당해연도 노력과 관련이 낮은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기관의 당해연도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타 기관 유사지표의

실적 산정 방식과 같이 최근 일정기간내 지원했던 과제의 성과에 한정하여 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9년 득점률은 2018년 대비 21.24%p 상승한 96.03%를 기록하였다. 해양수산R&D 융복합기술 지원 강화사업의 '해양수산분야 융복합기술 지원 확대' 지표, 해양수산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사업의 '해양수산분야 연구 질적 관리 강화' 지표,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6.99%, 95.46%, 100%를 기록하였다. 또한 해양수산R&D 시장창출 성과 제고사업의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지원' 지표에 대해 목표치 대비 94.85%를 달성하였다.